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조사

—경상남도 함양군을 중심으로—

고광명 · 황석규 · 송 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발 간 사

1951년에 창설되어 제주도에 존재하였던 한국 최초의 육군 제1훈련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신병훈련소로서, 논산 제2훈련소가 창설되어 신병교육을 맡기 전까지 5년 동안 50만여 명의 신병을 훈련시켜 한국 전쟁에 내보냈을 정도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창설은 제주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간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전무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함양군을 중심으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서 신병 훈련을 거친 29명의 사병에 대한 구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상남도 함양군은 호국보훈의 날 참석자 약 200명 중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거쳐 한국전쟁 전선 및 다양한 지역의 육군 부대에 배치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명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술조사를 통해 1950년대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서 교육을 받은 훈련병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인의 시각이 아닌 기간사병과 훈련병들이 맞이한 제주사회의 생활상 및 제주도민에 대한 모습 등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물은 1950년대 제주사회를 이해하는데 주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구술조사와 더불어 사진, 증서, 기록물 등의 사료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주 근대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육군 제1훈련소가 있었던 모슬포 지역은 일제강점기 군사시설 유적을 비롯하여 한국전쟁과 제주4·3 유적지 등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시선으로 문화적 활용 및 평화교육의 장소로 활용한다면, 제주 및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여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연구를 개척해 주신 연구책임자 고광명, 공동연구원 황석규, 송 훈 등 연구자들에게 심신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11월

제 주 연 구 원
원 장 강 기 춘

연구요약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제주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주4·3 실태 및 유적지 조사 연구를 시작으로 일제 전적지, 일제강점기 문화유산(공장, 가옥 등), 제주 근현대 생활문화 공간(제주극장, 관광극장, 제주관광호텔 등) 그리고 해양 문화시설 등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제주4·3 실태와 유적지 그리고 일제 전적지 조사는 많은 연구기간을 할애하여 심도 높은 제주 근대문화유산 연구가 실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등재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 하지만 1951년에 창설되어 제주도에 존재했던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미한 정도로 진행되어 왔고,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의 등재는 단 2곳[육군 제1훈련소 교수관(제410호)과 강병대교회(제38호)]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에서 최초로 다수의 신병훈련을 담당하기 위해 창설된 육군 제1훈련소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및 연구는 미진한 상태에 놓여있다.
- 제주에 존재했던 한국 최초 육군 제1훈련소는 훈련장 범위, 훈련장 수, 훈련병 수, 교관 수 등 훈련소의 규모가 아시아 최고의 신병교육 훈련장이었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논산의 육군 제2훈련소로 신병교육의 역할을 이전시키기 전까지 5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약 50만 명의 신병을 훈련시켜 한국전쟁의 전장으로 보내졌다.
- 이처럼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현재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한 당당한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조사 연구가 미비하다는 점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조사 연구는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구술조사와 사료수집이 더욱 우선시되는 조사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육군 제1훈련소 훈련병들에 대한 생생한 구술채록과 그들이 소지한 사진 및 군 경험 사료들을 수집한다는 것은 미

래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조사 연구의 기초가 되며, 아카이브 구축에도 필수불가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 연구목적

- 첫째, 제주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와 같이 비중이 높은 한국군 전적지는 없다. 이런 관계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훈련병들에 대한 구술조사는 매우 중요하며, 또한 지금까지 거의 구술조사가 진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의의는 크다고 하겠다.
- 둘째, 이번 구술조사는 현재까지 불명확하게 지목되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훈련장, 각 연대의 위치, 숙영지, 하사관 교육연대, 급양생산대 등 훈련소 부대시설들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추후에 지금까지 추상적으로 설정된 훈련소의 부대시설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셋째, 구술조사를 통해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서 지냈던 훈련병들의 생활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입대하게 된 배경, 입대 경로, 훈련 정도, 식사 방식 등 육군 제1훈련소에서 진행된 다양한 교육 및 문화를 파악하였다.
- 넷째, 구술조사를 진행하면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서 교육을 받을 당시 훈련병들이 확보하고 있는 사진, 증서 그리고 기록물 등의 사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는 이들의 지닌 사료들을 수집하여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실상과 더 나아가 제주 근대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 다섯째,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창설과 더불어 모슬포를 포함한 제주 사회는 많은 생활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제주인의 시각이 아닌 기간사병과 훈련병들이 맞이한 제주사회의 생활상 및 제주도민에 대한 모습 등을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물은 객관적으로 1950년대 제주사회를 이해하는데 주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3. 연구범위

- 지역적 범위 : 본 연구는 대상지역을 경상남도 함양군으로 국한하여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조사자의 의도적 선택에 기인한다. 조사자는 2014년도에 군인 4·3 국가유공자를 조사하기 위해 함양군을 찾아갔다. 2014년 6월 호국보훈의 날에 함양군 보훈회관을 방문하였고, 그 날 참석자 200명 중 100명 이상이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거쳐 한국전쟁 전선 및 다양한 지역의 육군 부대에 배치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좁은 지역에 많은 참여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상남도 함양군을 조사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다.
- 대상자 범위 : 구술조사는 경상남도 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에서 28명(참가자)은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고, 1명(비참가자)은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함양군지회장을 맡고 있는 장교 출신이다. 하지만 연구자가 조사한 28명은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은 훈련병들과 훈련 중 기간사병으로 이동한 군인 그리고 하사관 교육연대에 입교하여 훈련을 받고 기간사병이 된 군인에 대한 구술조사이다.
- 시간적 범위 : 본 연구는 2017년 4월 10일부터 2017년 10월 10일까지(6개월)로 지정되어 있다. 구술조사는 시간적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지조사는 5월과 6월 2회에 걸쳐 경상남도 함양군 11개 지역(1읍, 10면)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진행되었다. 1차 현지조사는 2017년 5월 28일부터 2017년 6월 1일(5일간)까지 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2차 현지조사는 2017년 6월 24일부터 2017년 6월 29일(5일간)까지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4. 연구기간

- 연구기간 : 2017년 4월 13일 ~ 2017년 10월 9일(6개월)

5. 연구방법 및 절차

-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헌과 사료를 조사하였고, 다음으로 제주 육군 제1훈

련소 참가자(28명)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질적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6. 연구내용

- 첫째,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소장들의 임무와 역할, 훈련병들의 강제소집 및 징집되는 상황, 육지에서 제주 육군 제1훈련소로 이동하는 입대 경로, 훈련소 규모와 위치, 훈련소 생활, 제주사회에 대한 인식 및 느낌 등을 조사하였다.
- 둘째, 증언자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훈련기간은 16주였지만 전쟁이 급박할 경우 한 달도 채 훈련을 받지 못하고 전쟁터로 나가야 하였다. 의식주 생활 중 가장 어려웠던 것은 식수와 식사였는데, 특히 제주지역 환경에 의해 식수가 모자라서 힘이 들었다. 신병훈련소와 하사관 교육연대에서도 식사량이 부족했는데 훈련소를 퇴소하면 ‘마른 명태’가 나온다는 공통적 증언을 하고 있다. 또한 훈련소에서 근무하는 장교와 기간사병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훈련병들의 식사량 부족도 이들의 소행에 의한 것이고, 구타와 착취가 많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훈련소에서 생활할 때 이가 많아 고생했고, 설사, 눈병, 열사병 등의 질병이 만연했으며,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비밀스럽게 처리했다는 증언들도 있었다.
- 셋째, 훈련소 생활에 비해 훈련소 규모와 시설에 대한 증언은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적었다. 우선 훈련병들은 자신이 훈련 받을 당시 시설과 규모 정도를 기억하고 있어서 훈련소 전반의 규모와 시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억력이 감퇴하여 제대로 증언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기억력으로 자세하게 증언을 하는 훈련병들도 있었다. 이들을 통해 어느 정도의 훈련소 막사 및 천막의 위치 그리고 훈련장 및 숙영지에 대한 위치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었다.
- 넷째, 외지인의 시각으로 1950년대 제주사회는 자신들이 생활하던 경상남도 함양군에 비해 살기 어려웠던 지역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여성이 많은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제주도민의 인심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는 증언을 하고 있다.

- 다섯째,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서 근무했던 기간사병 및 신병들의 사진과 제대증의 사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7. 연구의 기대 효과

- 첫째, 문화재 보존에 대한 정책적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모슬포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와 관련된 문화재 중에는 보존이 잘 되어 있는 문화재도 있지만 보존 상태가 불량하거나 훼손 및 파괴된 문화재도 많다. 이에 대해 문화 정책적 차원에서 보존 및 복원 계획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참가자들이 기억하는 사항들을 확인하고 문화재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할 수 있었다.
- 둘째, 문화재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육군 제1훈련소는 한국군 전적지로서 제주 초·중·고 등 학생들에게 한국전쟁의 실상을 교육할 수 있는 장소이며, 당시 신병들이 훈련을 받았던 장소에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아시아 최고의 신병훈련소였다는 점에서 세계 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는 세계 관광명소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 셋째, 국가문화유산을 비롯한 등록문화재로서의 등재를 고려해야 한다. 한국 최초이며 아시아의 최고인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국가문화유산으로서의 등재 요인을 충분히 지니고 있으며, 1950년대 당시의 훈련소가 복원이 된다면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가능성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II.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전사	16
1.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창설	16
2.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역대 소장	19
3.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예하부대 및 시설	41
III.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조사 분석	47
1. 조사대상자 구술조사 특성	47
2. 조사대상자 훈련소 경험	57
3. 증언 및 사료를 통한 부대시설 규모와 위치	71
IV. 1950년대 제주사회 변화	76
1. 6·25와 제주사회의 인구 변화	76
2.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창설에 따른 제주사회의 변화	77
3. 군 경험을 통한 제주사회의 변화	80
V. 결론 및 제언	83

1. 결론	83
2. 조사의 문제점	85
3. 정책적 제언	85
참고문헌	88
부 록	90
■ 분야별 전문가 회의록	90
■ 전문가 워크숍 회의록	91
■ 구술조사 질문지	92
■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채록 응답자 특성	93
■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채록 조사카드	95
Abstract	141

〈 표 목차 〉

〈 표 I-1〉 함양군 지역별 6·25참전유공자 현황(2014.03.12 현재)	5
〈 표 I-2〉 함양군 6·25참전유공자 비교(2014년과 2017년)	7
〈 표 I-3〉 현지조사 일지	9
〈 표 I-4〉 구술조사 질문내용	12
〈 표 II-1〉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역대 소장	20
〈 표 II-2〉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예하부대 및 시설 현황(1955년)	39
〈 표 II-3〉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소장 특징	40
〈 표 II-4〉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예하부대 창설 및 해체	45
〈 표 III-1〉 연령대별 분포	47
〈 표 III-2〉 출생 시기별 분포	48
〈 표 III-3〉 출신 지역별 분포	49
〈 표 III-4〉 직업별 분포	49
〈 표 III-5〉 학력별 분포	50
〈 표 III-6〉 결혼 유무별 분포	51
〈 표 III-7〉 입대 동기별 분포	51
〈 표 III-8〉 입대 시기별 분포	52
〈 표 III-9〉 군번 유형별 분포	53
〈 표 III-10〉 입대 경로별 분포	54
〈 표 III-11〉 군속 기간별 분포	55
〈 표 III-12〉 전역 시기별 분포	56
〈 표 III-13〉 계급별 분포	56

〈사진 목차〉

〈사진 I-1〉 6·25참전유공자회 함양군지회 지회장(강계원) 면담 모습 ..	4
〈사진 I-2〉 안의면 6·25참전유공자회 사망자 회원 확인 장면	6
〈사진 I-3〉 6·25전쟁 제67주년 기념 군민대회 장면 및 초청장	10
〈사진 II-1〉 중국 반공포로수용소 배경	27
〈사진 II-2〉 육군 제5훈련소 위치(제주주정공장 터)	42
〈사진 II-3〉 인성리 방사탑	46
〈사진 III-1〉 친구들과 함께 찍은 군 입대 기념 사진	52
〈사진 III-2〉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졸업 기념 사진	54
〈사진 III-3〉 1차 현지조사 모습(안의면)	60
〈사진 III-4〉 훈련소 막사 앞에서 전우와 함께	64
〈사진 III-5〉 2차 현지조사 모습(함양읍)	66
〈사진 III-6〉 증언자 기억에 의한 육군 제1훈련소가	67
〈사진 III-7〉 제주 육군 제1훈련소 훈병 시절(제2숙영지)	68
〈사진 III-8〉 하사관 교육연대 증언 모습	70
〈사진 III-9〉 함양읍 분회장(양기영)과 대화 장면	72
〈사진 III-10〉 학과장으로 가는 길(보행길)	73
〈사진 III-11〉 산방산을 배경으로 한 수용연대 모습	75
〈사진 IV-1〉 경상남도 함양군 6·25와 베트남전 참전 기념탑	87

<그림 목차>

<그림 I-1> 경상남도 함양군 지도(1읍과 10면)	3
<그림 III-1>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위치	74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제주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주4·3 실태 및 유적지 조사 연구를 시작으로 일제 전적지, 일제 강점기 문화유산(공장, 가옥 등), 근현대 제주 생활문화 공간(제주극장, 관광극장, 제주관광호텔 등) 그리고 해양 문화시설 등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제주4·3 실태와 유적지 그리고 일제 전적지 조사는 많은 연구 기간을 할애하여 심도 높은 제주 근대문화유산 연구가 실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등재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1951년에 창설되어 제주도에 존재했던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미한 정도로 진행되어 왔고,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서의 등재는 단 2곳[육군 제1훈련소 교수관(제410호)과 강병대교회(제38호)]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에서 최초로 다수의 신병훈련을 담당하기 위해 창설된 육군 제1훈련소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및 연구는 미진한 상태에 놓여있다.

제주에 존재했던 한국 최초 육군 제1훈련소는 훈련장 범위, 훈련장 수, 훈련병 수, 교관 수 등 훈련소 규모가 아시아 최고의 신병교육 훈련장이었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논산의 육군 제2훈련소로 신병교육의 역할을 이전시키기 전까지 5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약 50만 명의 신병을 훈련시켜 한국전쟁의 전장으로 보내졌다.

이처럼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현재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한 당당한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조사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조사 연구는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구술조사와 사료수집이 더욱 우선시되는 조사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육군 제1훈련소 참여자들에 대한 생생한 구술채록과 그들이 소지한 사진 및 군 경험 사료들을 수집한다는 것은 미래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조사 연구의 기초가 되며, 아카이브 구축에도 필수불가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관한 구술조사의 목적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제주 근대문화유산으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와 같이 비중이 높은 한국군 전적지는 없다. 이런 관계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참여자들에 대한 구술조사는 매우 중요하며, 또한 지금까지 거의 구술조사가 진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의의는 크다고 하겠다.

둘째, 이번 구술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불명확하게 지목되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훈련장, 각 연대의 위치, 숙영지, 하사관 교육연대, 급양생산대 등 훈련소 부대시설들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추후에 지금까지 추상적으로 설정된 훈련소의 부대시설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구술조사를 통해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서 지냈던 훈련병들과 기간사병들의 생활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입대하게 된 배경, 입대 경로, 훈련 정도, 식사 방식 등 육군 제1훈련소에서 진행된 다양한 교육 및 문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넷째, 구술조사를 진행하면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내 기간사병과 훈련병들이 확보하고 있는 사진, 증서 그리고 기록물 등의 사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는 이들의 지닌 사료들을 수집하여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실상과 더 나아가 제주 근대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다섯째,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창설과 더불어 모슬포를 포함한 제주사회는 많은 생활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제주인의 시각이 아닌 기간사병과 훈련병들이 맞이한 제주사회의 생활상 및 제주도민에 대한 모습 등을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물은 1950년대 제주사회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주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구술조사는 크게 지역적 범위, 대상자 범위, 시간적 범위 등 3개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1) 지역적 범위

본 연구는 대상지역을 경상남도 함양군으로 국한하여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조사자의 의도적 선택에 기인한다. 조사자는 2014년도에 군인 4·3 국가유공자를 조사하기 위해 함양군을 찾아갔다. 2014년 6월 호국보훈의 날에 함양 보훈회관을 방문하였고, 그 날 참석자 약 200명 중 100명 이상이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거쳐 한국전쟁 전선 및 여러 지역의 육군 부대에 배치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조사자는 좁은 지역에 많은 참가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상남도 함양군 지역을 조사 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다. 경상남도 함양군은 1개의 읍과 10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림 I-1>과 같다.

<그림 I-1> 경상남도 함양군 지도(1개 읍과 10개 면)



출처 : 함양군청 홈페이지(www.hygn.go.kr)

조사자는 경상남도 함양군 각 읍·면에 산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참가자를 찾아다니며 조사대상자를 면담 조사하였다. 이번 경상남도 함양군을 조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사자가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함양군지회를 방문하여, 『6·25참전유공자 명부』를 확보한 것에 기인한다.

6·25참전유공자회 함양군지회가 작성한 『6·25참전유공자 명부』는 2008년부터 6·25참전용사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게 되면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6·25참전유공자회 함양군지회가 회원명부를 작성하게 되었다. 원래 함양군 6·25참전유공자는 회원명부에 작성된 회원보다 많은 수가 있었지만 2008년 이전 사망한 국가유공자는 제외되었고, 그 후 지속적으로 사망한 국가유공자를 삭제하며 매해 새롭게 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 I-1> 6·25참전유공자회 함양군지회 지회장(강계원) 면담 모습



자료 : 2017년 5월 30일 6·25참전유공자회 함양군지회 사무실에서 연구자 촬영

<표 I-1>에서 보면 2008년 함양군 6·25참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전체

유공자수는 319명이었는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8명이 사망하였고, 2014년 기준으로 현재 유공자수는 25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면 6년 동안 전체 6·25참전 국가유공자의 21.3%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I-1 > 함양군 지역별 6·25참전유공자 현황(2014.03.12 현재)

(단위 : 명)

구분	전체 유공자수	현재 유공자수	감소 인원
함양읍	51	51	0
마천면	47	33	14
휴천면	18	17	1
유림면	22	16	6
수동면	23	18	5
지곡면	32	25	7
안의면	57	42	15
서하면	18	14	4
서상면	18	13	5
백전면	14	11	3
병곡면	19	11	8
총계	319	251	68

자료 : 6·25참전유공자회 함양군지회(2014), 『6·25참전유공자 명부』.

조사자가 6·25참전유공자회 함양군지회로부터 받은 회원명부에는 2014년과 2017년 사이에 각 읍·면에서 사망한 6·25참전 국가유공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남아 있었다. 즉, 회원들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적색 선을 그어 현재 생존하고 있는 유공자와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사진 I-2> 안의면 6·25참전유공자회 사망자 회원 확인 장면



자료 : 2017년 5월 29일 6·25참전용사 사랑방에서 연구자 사진 촬영(中 최수언)

하지만 <표 I-2>에서 보듯이 일부 면지역(서하, 서상, 백전, 병곡면)에서는 2014년과 비교해서 2017년 사이에 사망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사망자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사자가 면담하는 과정에서 체험한 사실에 근거하면 사망자는 없을 수가 없다. 이는 함양군지회에서 일부 면에 대한 사실 확인이 되지 못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은 처음 6·25참전유공자 명부에 등록할 때부터 누락된 국가유공자 명단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자가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함양군지회로부터 받은 명부는 실제 함양군 전 지역(1개 읍과 10개 면)을 찾아다니며 구술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요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었다.

< 표 I - 2 > 함양군 6·25참전유공자 비교(2014년과 2017년)

(단위 : 명)

구분	전체	2014년	감소 인원	2017년	감소 인원
함양읍	51	51	0	26	25
마천면	47	33	14	16	17
휴천면	18	17	1	12	5
유림면	22	16	6	15	1
수동면	23	18	5	16	2
지곡면	32	25	7	20	5
안의면	57	42	15	37	5
서하면	18	14	4	14	0
서상면	18	13	5	13	0
백전면	14	11	3	11	0
병곡면	19	11	8	11	0
총계	319	251	68	191	60

자료 : 6·25참전유공자회 함양군지회(2014), 『6·25참전유공자 명부』 .

(2) 대상자 범위

구술조사는 경상남도 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29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들 29명은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훈련병으로 입소하여, 퇴소 후 자대배치를 받거나 혹은 훈련 중 기간사병 그리고 하사관 교육연대로 이동하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출생년도를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1927년부터 1933년에 이르기까지 7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입대 당시 만 17세에서 24세까지 분포되고 있다.

조사대상자 구분에서 가장 주요한 사항은 입대년도와 군번에 있다. 함양군 6·25참전유공자는 다양한 군번으로 존재한다. 그 당시 대부분의 군번은 앞 두 자리 숫자로 군 입대시기를 파악할 수 있고, 의용특공대를 포함하여 대략 20개로 나타나고 있다. 의용특공대는 여순반란사건 시기에 마을을 수호하고자 자진 혹은 강제로 구성된 부대이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신병교육에 참여하고자 함양군에서 입대한 훈련병들은 대부분 1951년부터 1954년 사이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06으로 시작되는 군번은 1951년, 88과 92는 1952년 그리고 94는 1953년에 입대하고 있다. 하지만 적은 수이지만 조사과정에서 1954년에 10군번의 입대도 지속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조사대상자의 범위에는 함양군 출신으로 1951~1954년에 입대한 만 17~24세로 군번이 06, 88, 92, 94, 10으로 시작되는 훈련병이 해당된다.

(3) 시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는 2017년 4월 10일부터 2017년 10월 10일까지(6개월)로 지정되어 있다. 연구 완료 전 구술조사는 연구의 시간적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술조사는 5월과 6월 2회에 걸쳐 경상남도 함양군 11개 지역(1읍, 10면)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진행되었다.

< 표 I - 3 > 현지조사 일지

순번	일시	장소	응답자	입대일
1	2017년 5월 29일 11:00~13:00	안의면 6·25참전용사 사랑방	김 O 수	1952.12.05
2	2017년 5월 29일 11:00~13:00	안의면 6·25참전용사 사랑방	최 O 언	1952.12.07
3	2017년 5월 29일 11:00~13:00	안의면 6·25참전용사 사랑방	박 O 필	1952.12.05
4	2017년 5월 29일 11:00~13:00	안의면 6·25참전용사 사랑방	정 O 수	1953.07.01
5	2017년 5월 29일 11:00~13:00	안의면 6·25참전용사 사랑방	하 O	1952.05.09
6	2017년 5월 29일 11:00~13:00	안의면 6·25참전용사 사랑방	진 O 권	1952.12.07
7	2017년 5월 29일 16:00~17:00	함양읍 신천리 자택	조 O 완	1952.08.15
8	2017년 5월 30일 10:00~12:00	6·25참전유공자회 함양군지회	강 O 원	1948.07.13
9	2017년 5월 31일 10:00~12:00	6·25참전유공자회 함양군지회	양 O 영	1952.08.15
10	2017년 5월 31일 15:00~15:30	휴천면 목현리 자택	김 O 태	1952.12.05
11	2017년 5월 31일 16:00~16:40	휴천면 대천리 자택	정 O 상	1952.12.05
12	2017년 5월 31일 17:00~17:20	휴천면 대천리 자택	김 O 민	1953.07.07
13	2017년 5월 31일 17:30~18:30	휴천면 문정리 자택	김 O 복	1952.12.15
14	2017년 6월 01일 11:00~12:00	수동면 우명리 자택	박 O 규	1951.12.13
15	2017년 6월 25일 14:00~15:00	백전면 백운리 자택	하 O 화	1954.12.15
16	2017년 6월 26일 10:00~13:00	함양읍 RAON Hotel 커피숍	노 O 상	1952.07.17
17	2017년 6월 26일 10:00~13:00	함양읍 RAON Hotel 커피숍	노 O 현	1952.14.04
18	2017년 6월 26일 10:00~13:00	함양읍 RAON Hotel 커피숍	김 O 상	1952.07.17
19	2017년 6월 26일 10:00~13:00	함양읍 RAON Hotel 커피숍	김 O 중	1952.07.17
20	2017년 6월 26일 14:00~14:40	서상면 자택	조 O 래	1952.06.03
21	2017년 6월 26일 15:00~16:00	서하면 황산리 자택	송 O 윤	1953.07.07
22	2017년 6월 26일 16:30~17:30	백전면 평촌리 자택	이 O 암	1953.07.07
23	2017년 6월 26일 18:00~19:00	백전면 양천리 자택	이 O 민	1952.05.18
24	2017년 6월 27일 09:30~10:30	지곡면 공배리 자택	조 O 제	1951.12.13
25	2017년 6월 27일 11:00~12:00	지곡면 공배리 자택	허 O 오	1952.12.05
26	2017년 6월 27일 13:30~14:30	지곡면 마산리 자택	김 O 철	1952.11.06
27	2017년 6월 27일 15:30~16:30	지곡면 개평리 자택	김 O 동	1952.12.06
28	2017년 6월 27일 17:00~18:00	병곡면 광평리 자택	김 O 호	1950.08.30
29	2017년 6월 28일 14:00~15:30	유림면 자택	서 O 석	1953.07.03
기타	2017년 6월 25일 10:00~13:00	6·25전쟁 제67주년 기념 군민대회 참석(문화예술회관)		

1차 현지조사는 2017년 5월 28일부터 2017년 6월 1일(5일간)까지 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2차 현지조사는 2017년 6월 24일부터 2017년 6월 29일(5일간)까지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조사일지 내용은 <표 I-3>과 같다.

특이 사항으로 2차 현지조사 때 6월 25일 함양군에서 6·25전쟁 제67주년 기념 군민대회 행사가 거행되었는데, 우리 조사팀은 6·25참전유공자회 함양군 지회의 초청을 받아 행사에 참여하여 조사대상자들을 접견하고, 다음 날에 면담이 이루어졌다.

<사진 I-3> 6·25전쟁 제67주년 기념 군민대회 장면 및 초청장

	<p style="text-align: center;">초 청 장</p> <p>6.25전쟁의 역사적의의와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노고를 위로하며 전후세대들에게 안보의식고취와 자유평화수호를 위한 범군민 안보의식 결집의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p> <p>6월 호국의달을 맞이하여 6.25전쟁 제67주년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7. 6. 25</p> <p style="text-align: center;">6.25참전유공자회 함양군지회장 강 계원 배상</p> <p style="text-align: center;">◆ 행 사 개 요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명 : 6.25전쟁 제67주년 기념 군민대회 ◆ 일 시 : 2017년 6월 25일(일) 10:30시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강당 (1층) ◆ 참석인원 : 300명
--	--

자료 : 2017년 6월 25일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연구자 사진 촬영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9명을 대상으로 질적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조사 실시 전에 면담조사를 위해 질문할 내용

을 미리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표 I-4>와 같다.

구술조사는 경상남도 함양군에 거주하는 6·25참전 유공자 중에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전역한 군인 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6·25참전유공자회 함양군지회 사무실, 6·25참전용사 사랑방(안의면), 각 유공자 자택 등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의 취지와 목적 등을 설명하여 실시하였다.

구술조사 내용은 증언자 개인 속성(6개), 입소 과정 및 경로(4개), 훈련소 생활(12개), 퇴소 후 자대배치 및 전역(6개) 등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질문 내용은 연구목적에 의거하여 크게 6개로 구분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개인 속성을 묻는 질문 내용으로는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학력, 직업, 주소와 육군 제1훈련소 입대일, 입대 전 결혼유무, 군번 그리고 육군 제1훈련소 퇴소 후 전역일과 계급 등이었다.

둘째, 육군 제1훈련소 입소와 관련된 입대 동기 및 시기, 제주 육군 제1훈련소로 입대하는 경로 등에 대한 질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육군 제1훈련소 생활을 알아보는 내용 등을 질문하였다. 훈련소에서의 소속, 훈련병 숙소, 훈련하며 기억하고 있는 숙영지, 기억하는 제식훈련, 총검술 등의 훈련장소, 훈련 기간, 훈련소에서의 식사 및 피복, 훈련병 시기에 면회 온 횟수 및 특이사항 그리고 기억에 남아있는 훈련과 교관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넷째, 육군 제1훈련소 퇴소 후 신병의 상황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였다. 신병 이동경로, 배치된 부대 그리고 전선배치 지역과 참가한 전투 등에 관한 내용과 기타 사항으로 배치된 부대에서의 생활상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다섯째,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생활뿐만 아니라 1950년대 외지인으로서 제주도에 입도하면서 인식한 제주지역 사회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또한 제주에서 훈련병 생활을 지내면서 제주인과의 접촉 상황 등을 질문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외지인으로서 그 당시 제주의 생활상을 객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기타 사항으로 함양군에서 입도한 훈련병들은 제주 6·25참전용사들과 여러 면에서 제주 생활 및 전투 경험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관계로 이

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소지한 사진과 특별하게 기억나는 훈련소 및 군대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술 조사한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조사자의 성명을 기록하였다.

< 표 I - 4 > 구술조사 질문 내용

항목	구술조사 내용	문항 수
개인 속성	연령, 출생연대, 출신지역, 학력, 직업, 결혼 유무	6
입소 과정 및 경로	입대 동기, 입대 시기, 군번, 입대 경로	4
훈련소 생활	훈련장 위치 및 범위, 부대시설 위치 및 규모, 훈련병 수, 소속, 훈련병 숙소, 훈련병 숙영지, 교육 훈련, 훈련기간, 훈련병 식사 및 피복, 훈련병 면회, 기억나는 훈련 및 교관, 제주 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상	12
자대배치 및 전역	근속기간, 전역시기, 계급, 신병 이동경로, 전선배치 지역 및 참가한 전투, 소속 및 부대배치	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장에서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선행 연구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는데 있다.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슬포 전쟁유적지 관광자원화 기본계획수립 보고서, (가칭)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 각종 인터뷰와 자서전 그리고 역사사진자료집 등에 대해 기술한 다음 이번 구술조사가 지니는 독특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남제주군은 2005년 『모슬포 전쟁유적지 관광자원화 기본계획수립 보고서』를 작성하였다.¹⁾ 이 보고서에서는 ① 역사문화유적 및 전쟁 유적지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광자원화 추진, ② 세계평화의 섬 지정 배경에 연계될 수 있도록 전쟁유적지 조사 및 보존, 활용 등 역사성 있는 전쟁 유적지 개발로 관광자원화, ③ 세계평화의 섬을 상징할 수 있는 역사현장으로 관광자원화, ④ 송악산, 산방산, 용머리관광지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는 관광권역 형

1) 남제주군(2005),『모슬포 전쟁유적지 관광자원화 기본계획수립 보고서』.

성, ⑤ 지방자치시대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성장하고 역사성이 있는 특이한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과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적 비전 제시 등을 주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일본군 전쟁 유적지, 제주4·3 유적지, 한국군 전쟁 유적지 등 전쟁유적지로서 관광자원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비롯하여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겠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는 2008년 『(가칭)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²⁾ 이 보고서는 대정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에 조사한 역사유적지 자료를 정리하여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특히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이 2007년까지 기초조사한 일본군 및 한국군 전적·유적지 조사에 기인하고 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배경에 기초하여 역사교육의 장 및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조성 기본계획은 일본군 및 한국군 전적·유적지가 제주도민의 아픈 역사성을 갖고 있는 장소로서 이를 보존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제주도의 관광자원은 관광자원화의 새로운 발전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앞으로 인문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관광 즉,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관점에서 제주 역사성이 존재하는 특이한 관광명소로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한국군 유적지로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기본적 내용만이 소개되고 있지만, 역사적 사실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에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셋째, 이승만 한국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 프란체스카 도너 리는 2010년에 『6·25와 이승만-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이란 제목으로 자서전을 출간하였다.³⁾ 이 자서전은 영부인의 기억의 방법을 적용하여 서술되고 있어서 객관성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육군 제1훈련소 필요성을 지적하는 1951년 1월 9일자 대목을 정리하고 있다. “순수한 우

2) 제주특별자치도(2008),『(가칭)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

3) 프란체스카 도너 리(2010),『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6·25와 이승만』, 기파랑.

리청년들의 기백과 애국심을 살려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의 승리는 확실하다. 약 50만 명에 달하는 우리 청년들을 다른 장소(제주도)로 옮겨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⁴⁾고 기록되어 있으며, 제주에서 체험했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인보다 전쟁을 경험한 일본인을 한국전에 참전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격분하였다는 내용⁵⁾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사실상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초대 훈련소장 백인엽은 2008년 『국방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전쟁 능력 갖춰야 진정한 군인이다」라는 제목으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창설 및 체계가 잡혀가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⁶⁾ 백인엽 훈련소장은 실제 자신이 경험했던 기억을 기초로 육군 제1훈련소의 시작과 함께 어려웠던 점과 훈련소의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 스스로 일익을 담당했던 일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짧은 훈련 기간과 낮은 연령의 신병들에게 전투 능력을 갖춰 한국전쟁에 신속하게 투입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당부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가 경험한 기억에 의존되어 객관성이 보장되지 못하지만 이후 훈련소장으로 재직한 장도영, 권 준, 이응준 장군들은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인터뷰 혹은 자서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비교해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향토사학자로서 현 (사)대정현역사문화포럼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웅철은 2006년 『역사사진자료집 : 强兵臺(陸軍第1訓練所)-그리고 募瑟浦』의 제목으로 역사사진자료집을 출간하였다.⁷⁾ 역사사진자료집은 지금까지 향토자료와 국방부, 육군 제1훈련소 정훈동지회, 전쟁기념관, 제주도민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으며, 분량은 260쪽으로 흑백사진 약 300점이 실려 있다. 이 자료집은 일반 사진집과는 달리 각각의 사진에 역사적 사실과 생존자의 증언에 기초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육군 제1훈련소에 관한 내용은 역사사진자료집 제3편 「민족의 비극-6·25와 호국의 힘찬 함성」에 기록하고 있다. 그 내용은 6·25전쟁으로 인해 한국군을 양성하기 위한 육군 제1훈련소인 강병대(强兵臺) 창설에서부터 훈련 과정, 전쟁 중 훈련소를 방문한 이승만

4) 프란체스카 도너 리(2010), 앞의 책, 374쪽.

5) 프란체스카 도너 리(2010), 앞의 책, 380쪽.

6) 백인엽(2008), 「전쟁 능력 갖춰야 진정한 군인이다」, 『국방저널』47~50쪽.

7) 김웅철 편저(2006), 『역사사진자료집 : 强兵臺(陸軍第1訓練所)-그리고 募瑟浦』, 남제주문화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요인과 외국 사절단, 학생 군사훈련 등의 사진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육군 제1훈련소 설치에 따른 대정사회의 다양한 변화 모습들도 담겨져 있다.

앞에서 서술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5개) 중 3개 연구는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2개 인터뷰 자료는 객관성을 지닌 연구 자료로서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웅철의 역사사진자료집은 사진이라는 역사자료를 통해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가칭)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 보고서는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이 오랜 기간을 통해 답사하고 측량조사뿐만 아니라 구술조사를 통해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육군 제1훈련소에 중점을 둔 조사라기보다는 일제강점기 일본전적지 조사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주제인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조사- 경상남도 함양군을 중심으로-」는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조사대상자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서 직접 훈련에 참가한 사람들(28명)을 중심으로 면담조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연구를 위해 구술조사가 진행된 경우는 없다. 둘째,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연구는 지금까지 미흡한 정도에서 진행되었지만 제주도 사람이 아닌 국내 경남 함양군 지역을 대상으로 구술조사를 진행한 첫 시도이다. 셋째,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입소한 경남 함양군 출신 훈련병들의 기억을 통해서 훈련장과 연대 막사 위치, 숙영지, 하사관 교육연대 등 훈련소 부대시설들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훈련소에서의 생활상과 더불어 1950년대 제주사회의 생활상 및 제주도민에 대한 모습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부가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을 통해 신병들의 사진, 훈장 그리고 증서 등의 사료를 확보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조사는 선행연구들과 차별되는 독특성을 지니며 또한 객관성을 지닌 조사임에 틀림없다.

II.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전사

1.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창설

한반도는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자립적인 임시 정부 수립이 되지 못하였다. 미국 군인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미군정은 1946년 1월 남조선 사람들을 모집하여 국방경비대를 창설하여 운영하게 된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방경비대는 대한민국 국군으로 전환하며 자립적인 군대를 지니게 된다. 정부 수립과 더불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호국병역에 관한 임시조치령」을 내려 한국군을 의용병 제도의 형태로 모집하였다. 하지만 초대 정부는 의용병제보다는 의무병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의무병제의 병역법안 마련에 착수하고 있었다. 의용병제로 충분한 국군병력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초대 정부는 1949년 1월 20일 대통령령 제52호로 '병역임시조치법'을 공포하게 된다.

1949년 8월 6일 정부는 법률 제41조로 최초의 「병역법」을 공포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한국군을 징병제로 모집하는 의무병역제도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 병역법은 전문 8장 81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 20세에 달하는 자는 전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제23조) △본적지 또는 거주지의 부윤(지금의 시장)·구청장·읍·면장은 매년 1월 내지 2월 중 다음 징집연도 적령자에게 지정한 기일과 장소를 통해 등록통지서를 발송해야 하고(제25조) △병원(兵員)을 징집하기 위하여 징병구(徵兵區)를 설치하고(제27조)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실역(實役)에 적절한 자는 체격 등위의 우열에 따라 현역병·호국병·제1보충병의 순서로 징집한다(제34조)는 등의 징집 규정이 명기되어 있었다. 이 병역법에 의거해서 1950년 1월 6일 최초로 징병검사가 실시되었지만, 국군 10만 명 편제 제한이 발효되면서 정기적인 징집이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동년 3월 4일에 징병검사의 실시는 보류되고 말았다.

한국군은 징집제도 및 국군조직 편제 등의 많은 문제점이 산재한 가운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급기야 정부는 가두징병제로 국

민병(國民兵)을 긴박하게 소집했으며, 또한 전장에 투입할 예비전투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각 시·군·구별로 제2국민병 예비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로서 인천상륙작전을 앞둔 1950년 8월 초 20만 명 가까운 장정을 소집하는 성과를 이루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전쟁은 지속적으로 한국군 병력 자원의 증대를 요구하게 되면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의무병제도 시급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1950년 12월 16일 「국민방위군설치법」을 제정하고, 이 법을 근거로 17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를 국민방위군으로 약 50만 명을 소집하게 된다. 결국 전쟁의 여파로 인해 1949년 병역법에는 연령 20세인 남자를 소집했지만 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는 17세로 낮추었다. 이들 약 50만 명 중에는 40세의 중장년 연령자도 포함하고 있어서 국민방위군에 대한 신병 훈련이 시급하게 된다. 하지만 51개 훈련소에서 신병 훈련을 받던 국민방위군은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상도 지역에서 약 5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부정부패와 관련된 5명을 처형하게 된다.⁸⁾ 정부는 전장에 나갈 군인을 소집했지만 신병 훈련과 적절한 배급을 운영할 수 있는 훈련소를 모색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그 당시 제주지역에서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7월 16일 제주주정공장 위치에 육군 제5훈련소(대령 김병휘)를 설치하여 신병을 양성하게 된다. 제주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민방위군설치법」 제정 이전 1950년 8월 3일 중·고생으로 조직된 학도 돌격대가 결성되어 훈련소에 입소하였으며, 이들과 더불어 제주출신 청년 약 3천 명이 동년 동월에 해병 3·4기로 지원 입대하여 훈련을 받게 된다. 이들은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되어 서울 탈환에 나섰고, 동년 9월 27일 중앙청에 태극기를 나부끼게 된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대구에서 창설되어 시작된다. 정부는 1950년 7월 11일 대구에 제25교육연대를 창설하였지만, 바로 다음 날인 7월 12일 경북편성관구사령부 제7교육대로 명칭을 개칭하였다. 또한 동년 8월 14일 국본 일반명령(육)제46호에 의거 육군 본부 직할 육군 제1훈련소로 재창설과 동시에 동년 8월 26일 제1, 2, 3, 5, 6, 7, 8, 9교육대 편성을 완료하게 된다.

8)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의 하영식 편(국민방위군사건)을 참조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대구 육군 제1훈련소보다는 최남단으로 보다 안전하게 신병을 훈련시킬 수 있고, 이미 일제강점기 때 알뜨르비행장 부근에 군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로 육군 제1훈련소 이전을 감행하게 된다. 특히 중국의 갑작스런 한국전쟁의 참전으로 인하여 전황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한국 군인을 강병으로 양성해야 할 사명 및 책임감이 존재하였다. 프란체스카 자서전⁹⁾에는 1951년 1월 12일 당시 상황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리지웨이 장군의 초청으로 국방부 장관을 대동하고 대구를 방문하였다. (중략) 리지웨이 장군, 어째서 귀하는 싸울 태세를 갖추고 훈련이 되어 있는 한국 청년들을 무장시키지 않습니까? 어째서 약 50만 한국 청년들이 공산당과 싸울 수 있도록 무장시키지 않습니까? (중략) 어째서 귀하는 한국 청년들을 제쳐놓고 대신 일본을 무장시켜서 또 다시 일본을 열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중략) 대통령은 리지웨이 장군과 헤어진 뒤 신 국방장관 및 정일권 장군과 함께 전방을 둘러본 뒤 우리 군인들의 소총 또는 훈련장을 시찰하면서 훈련 광경을 지켜보았다.”

급기야 1951년 1월 14일 정부는 대구 육군 제1훈련소, 부산 육군 제3훈련소 그리고 제주 육군 제5훈련소 통합을 추진하게 되며, 동년 동월 21일에 대구 및 부산 훈련소가 제주로 이동을 하여 제주 대정읍 상모리에 육군 제1훈련소를 창설할 준비를 마치게 된다.¹⁰⁾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창설 준비를 위해 백인엽 준장은 1951년 1월부터 제주에 부임하여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 그 후 1951년 3월 21일 육군 제1훈련소 초대 소장으로 백인엽 준장이 취임하면서 창설을 종결하게 된다. 이후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충청남도 논산에 위치하고 있는 육군 제2훈련소로 대부분의 교육 및 훈련 기능이 옮겨가고, 남은 부대는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위치한 제1야전군 예하 제102보충대대로 기능이 옮겨간 1956년 1월 1일 국본 일반명령(육군) 제223호에 의거 공식적으로 폐쇄하게 된다.¹¹⁾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5년 동안 신병 훈련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약 50만

9) 프란체스카 도너 리(2010), 앞의 책, 380쪽.

10) 유광중(2010), ‘대구에서 품은 강군의 꿈, 제주 신병 훈련소’, 《중앙일보》2010.11.09.

11) 김대영(2008), ‘제주 옛 육군훈련소 지휘소, 해병 훈련시설 등록문화재 확정’, 《제주일보》 2008.09.30. 일견으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폐쇄는 1956년 1월로 보는 견해도 있다.

명에 달하는 병력을 양성하게 된다. 훈련소 초기에는 하루에 신병 500명 정도가 입소하였으나 전방의 전투가 한창 치열할 때는 동시에 약 8만 명이 입소하기도 하였다. 역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는 많은 제주 청년들이 입소하기도 하였다.¹²⁾ 구술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초기 훈련기간은 16주였으나 3주로 단축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3주도 채우지 않고 전방으로 투입되는 경우도 있었다. 즉, 훈련소 초기와 전투가 한창일 때 신병들은 대체로 1개월 정도 훈련을 받고 전장에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정지역에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와 더불어 제5공군 군사고문 단원들이 주둔하였는데, 이때부터 K-40 비행장으로도 알려지고 있었다. 또한 1951년 2월 1일부터 동년 7월 21일까지 공군사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3개월 동안 사관생도(1,073명)를 교육하였다. “이곳에서 공사2기 사관생도들은 기본 군사훈련 과정을 수료했으며, 각종 장교 후보생들도 소정의 교육훈련(1~24주)을 마친 뒤 임관하여 각 분야에서 공군을 단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현대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¹³⁾

2.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역대 소장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1951년 3월 21일 초대 훈련소장으로 백인엽 준장이 취임하여 1956년 1월 1일 공식적으로 폐쇄할 때까지 6대에 걸쳐 7명의 훈련소장이 역임하였다.¹⁴⁾ <표 II-1>은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역대 소장에 대한 내역을 설명한 것이다.

12) 《서귀포문화대전(<http://seogwipo.grandculture.net>)》에서 참조하였다.

13) 국방부(2008), 『국방저널』 7월호, 45쪽.

14)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하기 이전 제주 육군 제5훈련소가 있었다. 육군 제5훈련소 초대 소장 김병휘 대령(1950.07.16), 2대 최 석 대령(1950.08.14)을 시작으로 3대 박기성 대령(1950.10.24), 4대 최 석 대령(1950.10.26), 5대 유승열 대령(1950.11.12) 그리고 6대 이형근 준장(1951.01.09) 등이 소장을 역임하였다.

〈표 II-1〉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역대 소장

순위	계급	성명	취임일자	출생년도	사망년도
1대	준장	백인엽	1951.03.21	1923	2013
2대	준장	장도영	1952.01.07	1923	2012
3대	준장	오덕준	1952.08.12	1921	1980
4대(대리)	준장	권 준	1953.05.09	1895	1959
4대	중장	이용준	1953.06.15	1891	1985
5대	소장	이준식	1954.06.05	1901	1966
6대	준장	오창근	1955.01.12	1924	2004

출처 : 육군본부(1956), 『6·25사변 국방전사(인사편)』, 193~196쪽; 육군본부(1970), 『육군발전사』, 704~708쪽; 김웅철 편저(2006), 『强兵臺(陸軍第1訓練所)- 그리고 募瑟浦』 등에서 작성.

1) 백인엽(白仁燁)

초대 훈련소장 백인엽(白仁燁)은 평안남도 강서군(江西郡)에서 1923년 2월 18일 출생하여 일제강점기 때 1943년 일본 메이지(明治)대학 경제학과와 1945년 일본 육군항공학교를 졸업하였다. 해방 후 1946년 대한민국 군사영어학교(1기생)¹⁵⁾와 1947년 대한민국 통위부 보병학교를 졸업하고 6·25를 맞게 된다. 한국전쟁 후 그는 1953년 미국 육군참모대학교와 1956년 대한민국 국방대학교(행정학사 1기)를 졸업하였다.

초대 훈련소장 백인엽은 1943년 3월 일본군 만주국군(중위)에서 군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해방 후 1946년 1월 대한민국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참위(현 육군 소위)로 임관하게 되고, 한국전쟁 당시 1950년 10월 준장으로 진급하여 육군본부 정보국 국장으로 재직하다 1951년 3월 21일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소장으로 부임한다. 1952년 1월 7일 제주 육군 제1훈련소를 떠나 육군 제6보병사단 사단장으로 부임하고, 전쟁 후 1955년 5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산 육군 제2훈련소장으로 발령을 받게 된다. 그

15) 이 학교는 1946년 1월 개교하여 군사영어를 가르쳤고, 4개월 후 1946년 4월 30일 폐교되었다. 배출 학생 수는 110여 명이며, 일본군, 만주군, 독립군에서 활동하던 군인들을 학생으로 받아들이며, 일명 한국군 건국 당시 장교 양성소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군사영어학교는 국방경비사관학교로 개교하고 나중에 육군사관학교로 변화하게 된다.

후 1955년 9월 중장으로 진급하고 육군본부 기획참모부 부장으로 활동했으며, 1956년 4월에는 육군 제1군단 군단장으로 재직하고, 1956년 9월에는 육군 제6군단 군단장으로 부임하였다. 마지막 군 활동은 1959년 2월 육군본부 관리참모부 부장으로 재직하다 1960년 6월 대한민국 군인을 전역하게 된다.

백인엽 훈련소장은 2008년 『국방저널』 인터뷰에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생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초대 훈련소장으로 부임해 온 제주도는 한마디로 ‘맨땅에 해당하는 꼴’ 격으로 막막하기만 하였다. (중략) 게다가 부산까지 밀려온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기는 문제까지 심각하게 거론되는 어려운 시기에 정예장병 육성은 발등의 불이요, 지상 과제이며 국가의 운명과 같았다. 숨 들릴 틈도 없이 훈련소 조성 작업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훈련장과 숙영지를 짓고 연병장을 조성하는 등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작업은 계속됐고,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첫 정규 신병훈련 장정 500여 명이 그해 2월 중순에 도착하여 기초 군사훈련에 들어갔다. 그렇게 1년여 만에 7만여 명의 정예 신병을 육성해 전선에 투입하는 역할을 해냈다.”¹⁶⁾ 백인엽 초대소장은 육군 제1훈련소의 틀을 갖추기 위해 예하부대로 교도연대, 자동차운전병학교, 공병대, 군악(예)대, 헌병대, 하사관 교육연대 등을 구성하고, 훈련소에 제5연대, 제6연대, 제7연대, 제8연대 그리고 제9연대를 창설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백인엽 장군은 ‘전장에서 필승 요건은 크게 3가지’라며 ‘올바른 정신, 즉 애국심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강건한 체력이며, 고도의 무기 조작력과 전투기술 능력을 갖추어야 전장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런 점을 훈련병들에게 주입시켰고 상황이 급박한 만큼 훈련 강도는 강했으며 그것을 이겨내야 했다’고 그 당시 신병훈련소 상황을 설명하였다.”¹⁷⁾ 백인엽 소장은 제주에서 강한 신병을 양성하는 훈련소의 초석을 다졌으며, 훈련장을 비롯해 숙영지, 막사, 훈련병의 의식주에 대한 기초를 다졌고, 훈련방식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백인엽 소장은 제주도에서 사망한 훈련병을 위한 위령탑을 세우기도 하였다. “6·25 전쟁 당시 새로운 병역법이 만들어졌는데 바로 국민방위군설치법이었다. (중략) 국민방위군 사령관이 예산을 횡령하면서 장병들이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모슬포에 도착하자마자 죽

16) 국방부(2008), 앞의 책, 48쪽.

17) 국방부(2008), 앞의 책, 48쪽.

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하루에 30여 명이 죽는 경우도 있었고, 훈련도 오후에 겨우 시켰다. 이마저도 이겨내지 못하고 숨지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위령탑을 세웠다.”¹⁸⁾ 백인엽 훈련소장은 1951년 3월부터 재직하면서 제주도 체육대회를 워커훈련장에서 개최하였다. 제1훈련소는 군인과 민간이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서로 협력하며 극복하기 위해 친선도모의 장을 펼치기도 하였다. 또한 1951년 5월 28일에는 정일권 육·해·공군 총사령관 시찰도 진행되었고, 8월 17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내도하여 훈련소를 시찰하게 된다.

백인엽 소장은 사회에 나와서 교육행정가로서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겸 합동참모총장을 지낸 친형인 백선엽과 함께 선인학원의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2013년 12월 14일 숙환(91세)으로 세상을 떠났다.

2) 장도영(張都暎)

2대 훈련소장 장도영(張都暎)은 1923년 1월 23일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태어났으며, 선천(宣川)에서 신의주중학교, 신의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유학하여 1944년 도요(東洋)대학 사학과를 졸업하였다. 일제강점기 때 대학 졸업과 동시에 일본군 소위로 중국 쉬저우(徐州)에 주둔했던 일본 츠키다(柄田)부대에서 복무하였다. 해방 후 평안북도 선천으로 돌아와 모교인 신의주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후배 양성에 주력하던 중 1945년 11월 23일에 신의주 반공학생 의거가 발생한다. 이 사건으로 소련 군정과 공산주의자들은 반공인사를 탄압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피하기 위해 월남하여 서울로 내려왔다.

월남 후 1946년 2월 군사영어학교에 입교하고, 한 달 후 동년 3월 23일에 군사영어학교 졸업과 동시에 군번 10080을 부여받은 뒤 국방경비대 육군 참위(현 소위)로 임관하였다. 이후 대구 국방경비대 제6연대 1중대 소대장에 보직되었고, 그 해 가을에는 중위로 진급하여 이리(裏里) 제3연대 2중대장으로 진급한 후, 제3연대 제3대대 신설에 참여한 뒤 초대 대대장으로 부임하였다. 1947년 9월 태릉(泰陵) 국방경비사관학교로 전보되어 제5기 생도대의 중대장

18) 국방부(2008), 앞의 책, 50쪽.

에 임명되었으며, 1948년 7월에는 부산 육군 제5연대장으로 부임하였다. 1948년 여순(여수·순천) 육군 제14연대 반란 사건이 발생하고, 당시 반란 가담자였던 박정희가 무기징역을 언도받게 되고, 이에 백선엽, 정일권 등에 의해 박정희 구명운동이 있자 장도영도 적극 호응하게 된다. 1949년 6월 육군 수도사단 제9연대장으로 승진하였고, 동년 11월 육군본부 정보국 국장으로 부임하였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장도영은 동년 10월 만 27살의 나이에 준장으로 진급하게 되고, 짧은 기간이지만 육군 제9사단장을 맡게 되었다. 제9사단 임무는 북진 대열에 참가하여 텅 비게 된 서울이나 후방을 방어할 사단으로 창설하게 된다. 하지만 9사단 창설 도중에 중공군의 공격으로 타격을 받게 되고, 바로 제6보병사단장을 맡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제6보병사단장으로 한국전에 참전하여 1951년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벌어진 사창리(史倉里) 전투에서 중공군에 의한 중과부족으로 패배하게 된다. 하지만 다음 달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전개된 용문산 전투에서는 ‘결사’의 전투모를 쓰고 중공군 제63군 예하 3개 사단(187, 188, 189사단) 및 증원부대를 대파하는 승리를 거두게 된다.

한국군의 대승을 이끌고 난 다음 장도영 준장은 1952년 1월 7일에 제주지구위수사령관 겸 제주 육군 제1훈련소 2대 훈련소장으로 부임하게 된다. 백선엽 훈련소장은 훈련소 창설, 기반시설, 교육 프로그램, 훈련병 의식주 등의 훈련소 기초 작업에 몰두하였다. 반면 장도영 훈련소장은 보다 강하게 훈련된 장병을 육성하기 위해 제1·2·3·5숙영지를 건설하여 강도 높은 훈련장을 구축하였고, 예하부대로 수용대를 창설하고, 이와 함께 훈련병의 보건 및 정신안정 교육에 주목하게 된다. 특히 훈련 중 사상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육군 98병원이 개설되어 많은 신병들의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육군 98병원은 50여 개의 병동으로 400여 개의 병상을 가진 규모이다. 그리고 자신의 교육정신이 잘 나타낼 수 있는 교회를 건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1953년 1월 21일 육군 제1훈련소 총칭이 강병대로 결정되면서 그 당시 건축된 교회를 강병대교회로 명명하게 된다. 이 교회는 현재 제주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훈련소 운영에 대한 정부의 격려인지는 모르지만 훈련소장으로 근무하던 장도영은 1952년 7월 육군 소장으로 진급하게 되고, 1952년 8월 9일 훈련소장을 이임하면서 오덕준 준장에게 물려주게 된다. 이임할 당시 1952년 7월 3일 이

승만 대통령 부부와 밴 프리트 미8군 사령관, 유재홍 중장 등이 제주 육군 제1훈련소를 시찰하고 돌아간다.

전쟁발발 이후 1953년 6월 육군 제8사단장, 1954년 2월 육군 제2군단장 등을 거쳐 그 해 10월 육군 중장으로 승진하였다. 1955년 5월 육군본부로 돌아와 기획참모와 행정참모 부장 등을 역임한 후 1956년 육군 참모차장으로 취임했다. 1957년 7월 다시 육군 참모차장에 연임되었고, 육군 제2군사령부 사령관을 거쳐 1961년 2월 제2공화국 출범 이후 장면 국무총리에 의해 육군 참모총장으로 발탁하게 된다.¹⁹⁾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장군에 의한 군사정변이 성공하자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계엄사령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내각수반, 국방부 장관으로 추대된다. 하지만 동년 6월 6일 국방부 장관에서 해임되고, 7월 3일 5·16정변 주체 세력에 의해 불과 47일 만에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직에서도 해임되게 된다. 이 날 장도영 중장은 추종 세력 44명과 함께 박정희의 중앙정보부에 의해 반혁명음모혐의로 체포되게 된다. 결국 장도영은 8월 22일 중장 계급으로 대한민국 군인에서 예편하게 되었다. 그 후 장도영은 1961년 11월 2일 군사혁명재판소에서 법정구속이 이뤄지고, 동년 12월 23일 군사혁명 검찰부는 사형을 구형하고, 1962년 1월 10일 군사혁명재판부는 사형을 언도한다. 그 후 1963년 3월 감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동년 5월 형집행면제로 풀려나게 된다.

출소 후 장도영은 미국의 주선으로 1963년 만 39세 나이로 미국으로 건너가 1969년까지 미시간대학에서 정치학을 수학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년 위스콘신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여 1993년까지 재직하게 된다. 2011년 5월 무렵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Orlando)에서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등 합병증으로 투병하다가 지병으로 2012년 8월 3일 밤 별세(89세)하였다.²⁰⁾

3) 오덕준(吳德俊)

19)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20) 장도영은 자신의 회고록 《망향》에서 5·16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나는 정변 주체들의 범행을 용납한 죄를 범하였다.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다 넘어갔어. 어떻게 할 수 없었어.”라며 당시의 불가항력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의 장도영 편을 참조하였다.

3대 훈련소장 오덕준(吳德俊)은 1921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소덕리에서 태어났다. 고향에서 보통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1943년 일본 오사카(大阪) 간사이(關西)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학도병으로 일본 후쿠치야마(福智山) 육군예비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히로시마(広島) 주둔 제48부대에 배치되었다가 미국의 원폭 투하에 부상을 당하게 되어 해방을 맞게 된다. 그때 오덕준의 계급은 일본군 소위였다.

해방 후 오덕준은 한국으로 귀국하여 조선건국위원회 경남지부 군사고문과 경남 국군준비대의 간부를 지내다 1946년 2월 26일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하면서 군번 10059를 부여받고 국군 소위에 임관한다. 그리고 1946년 3월 1일 국군 창설(국방경비대)²¹⁾ 당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백선엽, 이치업, 이후락, 김익렬, 박진경, 백남권, 박병권 등과 함께 부산 감천동(구 일본군사령부 건물)에서 제5연대를 창설하게 된다. 이로 인해 오덕준은 1947년 1월 제5연대 중대장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1948년 6월 28일 백골부대로 유명한 제3사단 참모장을 지내다 동년 8월 8일 광주에 주둔하고 있던 제5사단 참모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오덕준 중령은 1948년 10월 19일 여순사건 주동 부대인 제14연대²²⁾의 제주 이동을 확인하여 보고하기 위해 여수항에 제14연대장 박승훈 중령과 함께 있었다. 이들은 사건을 목격하고 해병경비정을 타고 목포를 거쳐 육군본부로 직행하여 이 사실을 중앙에 보고한다. 1948년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여순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 오덕준 중령은 제4연대를 지휘하면서 수도 경찰부대와 함께 순천 서쪽의 보성을 점령하는 성과를 얻게 된다.²³⁾

전쟁발발 전 육군은 8개 사단과 22개 연대를 운용하고 있었다. 이 중에 오덕준 중령은 이미 제5연대 창설에 기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49년 4월 15일 제7연대 2대대에서 병사를 차출 받아 제22연대를 창설하게 된다. 이로써 오덕준 중령은 전쟁 전부터 지휘관으로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1949년

21) 국방경비대는 9개의 연대를 구성하여 창설하였다. 서울 태릉(구 일본군 지원병훈련소) 1연대, 충남 대전 2연대(정위 이형근), 전북 이리 3연대(부위 김백일, 부위 김종오), 전남 광산(구 일본 해군 예과 연병사) 4연대(부위 김홍준), 경남 부산 감천리 5연대(부위 방병권, 부위 이치업), 경북 대구 6연대(참위 김영환), 충북 사천 관설리 7연대(참위 민기식), 강원 춘천 8연대(부위 김종갑), 그리고 제주 대정 9연대(정위 장창국). 국방부(1954),『국방부사』제1집, 341~342쪽.

22) 제14연대는 광주에 주둔한 제4연대로부터 장병을 차출하여 1948년 5월 여수읍 신월리(전 일본 해군 항공기지)에서 창설되었고, 초대 연대장은 이영순(전 일본 해군 중위)이었다.

23) 박윤식(2012)『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 3 여수 14연대 반란-여수 순천 사건』, 휘선.

5월 호국군²⁴⁾ 참모부장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동년 7월 25일 제10연대장으로 부임하면서 1950년을 맞이하게 된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 당시 오덕준 대령은 부산에서 새롭게 부대를 재편한 제9사단 참모장으로 있었다. 1950년 7월 20일 경남 편성구사령관 이종찬 대령으로부터 보병 1개 대대를 남원으로 급파하라는 명령을 받은 오덕준 대령은 1,000여 명의 군인을 수합하여 7월 23일 남원에 도착하게 된다. 하지만 이동 중 300여 명은 이탈하고 남은 700여 명의 군사를 대동하여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이 부대를 오부대라고 명명하게 된다. 오부대(오덕준 대령)는 서남부 지연전 임무를 지니고 1950년 7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 민부대(민기식 대령), 김부대(김병화 소령) 그리고 해병대(김성은 중령)와 함께 북한군 4사단의 공격을 남원-운봉-징계-안의-함양으로 이어지는 지연전투를 진행하며 후퇴하게 된다. 겨우 오부대는 남은 병사 200여 명을 이끌고, 다른 부대와 연락이 단절된 채 진주까지 후퇴하여 이동하게 된다.²⁵⁾

1950년 10월 29일 오덕준 준장은 장도영 준장 후임으로 제9사단장을 맡게 되면서 6·25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그는 이전처럼 지연하며 후퇴하는 전쟁이 아닌 공격하고 진격하며 방어하는 전투에 임하게 된다. 그리고 1951년 1월 2일에는 제1군단 참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1951년 5월 23일에는 제11사단장이 된다. 그 당시 한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대규모 참전으로 후퇴하였다가 다시 38도선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고 영토 확장 및 휴전을 포함한 다양한 전술전략과 함께 일진일퇴를 반복하던 시기였다. 오덕준 장군이 이끈 한국군 전투는 인제군 현리전투(1950년 12월)와 향로봉 전투(1951년 9월)가 대표적이다. 제11사단장으로 복무하던 시기에 오덕준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조국을 위해 충성을 다하라”[爲國盡忠 辛卯年秋 贈 吳德俊 將軍 雲南 李承晩]는 뜻의 친필 휘호를 하사받아 이를 바위에 새겨 놓았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제11사단을 화랑부대, 즉 삼국통일과 민족중흥의 대업을 이룩한 신라 화랑의 후예로서 남북통일의 주역이 되라는 뜻을 담은 부대 명칭을 하사하였다. 이에 오덕준 장군은 제11사단의 문장을 고안하였으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4) 육군 예비군부대를 말하며 1948년 11월 20일 창설되어 1949년 8월 31일 해체된다.

25) 《전쟁기념관(www.warmemo.or.kr)》.

II.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전사

휴전협정 시기에 도달하면서 오덕준 준장은 1952년 8월 14일 제주지구 위수사령관 겸 육군 제1훈련소장에 취임하게 된다. 오덕준 훈련소장은 부임 후 우선적으로 하사관 교육연대 숙영지에 대한 관심을 두고 하사관 교육연대 제 1, 2숙영지를 건설하고, 예하부대로 경비대를 구성하였다. 특히 급양생산대를 조직하여 군 스스로 식량을 생산하며 훈련을 할 수 있는 자급자족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사진 II-1> 중국 반공포로수용소 배경



출처 : 2017년 6월 24일 자택(안의면)에서 김광수 사진 제공

또한 그의 업무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책무는 포로수용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유엔군과 한국군이 복진하면서 체포된 중공군 등의 많은 포로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였다. 1952년 10월 2일 포로수용소에서 반공포로와 공산포로 간의 격투로 시작한 폭동사건으로 인해 사상자(165명)가 발생하고, 다음날도 계속해서 사상자(4명)가 나타나게 된다. 이로써 반공포로와 공산포로를 격리 분산하여 수용하게 된다. 중공군 포로수용소

문제에 직면한 훈련소장은 경비대에 예하부대를 구성하게 된다. 또한 제주지구 위수사령관으로서 오덕준 훈련소장은 이 시기에 발생했던 피난민 사건과 휴전 결사반대 및 북진통일 총궐기대회 등에 대한 고민이 깊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2년 9월 25일 훈련소장 부임 중에 전국체육대회를 훈련소에서 개최하게 된다. 이전까지 육군 제1훈련소는 제주도 도민체육대회에 주력했지만 오덕준 소장은 전국으로 체육대회를 확대하여 어려운 시기에 군·민 협력관계를 도모하였다.

휴전 및 제1훈련소장 퇴임 후 1953년부터 1954년까지 오덕준은 미국 육군 참모대학에 파견되어 수학하였다. 1955년 합동참모본부장 그리고 1957년 제주 육군 제1훈련소장의 경력으로 논산 제2훈련소장, 동년 7월 육군소장으로 제3군단장을 역임하였다. 1959년 7월 중장으로 승진하며 제5군단장을 역임하였고, 1960년 5월 전투병과 교육사령관으로 재직한 후 1961년 예비역(중장)에 편입하게 된다.

오덕준은 1961년 7월 남원 수해지구 긴급대책본부장으로 파견되어 활동하였고, 1961년 11월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에 임명되었다. 이후 한국수출무역공사를 설립하여 각종 산물을 국제시장에 수출하여 외화 획득에 이바지하였다. 제일산업회사 지사 등 다수의 기업체를 운영하였고, 대한재향군인회 부회장으로도 재임하다가 1980년 5월 사망하였다.²⁶⁾

4) 권 준(權 俊)

독립운동가(3급) 백인(百忍) 권 준(權 俊)은 1895년 5월 2일 경상북도 상주군 함창면 척동리 168번지에서 출생하였다. 1917년 경성공업전습소를 졸업한 후 비밀결사대 광복회(光復會) 활동에 참여하여 항일투쟁을 시작한다. 1919년 3·1만세운동 직후 중국으로 건너가 상해에서 동제대학(同濟大學) 공과를 졸업하고, 만주로 이동하여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하면서 독립운동가로서 어려운 길로 들어서게 된다.

권 준은 1919년 11월 9일 중국 지린성(吉林省)에서 신흥무관학교 출신을

26)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의 오덕준 편을 참조하였다.

중심으로 형성된 의열단 결성에 동참하게 된다. 의열단²⁷⁾ 단원은 고문 김대지(金大池), 황상규(黃尙奎)를 중심으로 김원봉(金元鳳), 윤세주(尹世胄), 이성우(李成宇), 곽경(郭敬), 강세우(姜世宇), 이종암(李鍾岩), 한봉근(韓鳳根), 한봉인(韓鳳仁), 김상윤(金相潤), 신철휴(申喆休), 배동선(裴東宣), 서상락(徐相洛), 권 준(權 俊) 등 13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단장으로 김원봉이 선출되었다. 의열단에서 권준은 중앙 집행위원으로서 의열단의 활동 자금을 관리하고 폭탄을 제조하는 중책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권 준은 밀양, 부산, 종로경찰서, 조선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의 폭탄투척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어렵고 힘든 독립운동가로서 권 준은 권중환, 권중석, 강병수, 진민각, 장종화, 양 무, 장수화 등의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며 자신의 노출을 숨겨야 하였다.

권 준은 1926년 3월 중국 국민당 지도자 쑨원(孫文)이 설립한 황포(黃埔)군관학교 제4기생으로 입교하게 된다. 동년 10월 보병과 소속으로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국민혁명군 장교 임관과 동시에 황포군관학교 우한(武漢)분교 교관으로 배속되어 항일투쟁을 위한 중국군 양성 및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한 조선인 청년들의 군사교육을 담당하면서 북벌전(北伐戰)에 참전하기도 한다. 또한 동년 한커우(漢口)에서 열린 동방피압박민족연합회(東方被壓迫民族聯合會)에 조선대표로 참석하여 집행위원에 뽑히게 된다.²⁸⁾

의열단 지도부는 1932년 초 조·중 항일연합전선을 결성해 일본에 항쟁하기로 노선을 바꾼다. 따라서 조·중 항일연합전선 활동의 일환으로 의열단은 1932년 9월 중국정부 군사위원회 위원장 장제스(蔣介石) 승인을 얻어 김원봉과 덩지예, 간귀권(干國勳) 등이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를 설립하게 된다. 이 간부학교는 6개 대로 편제되었는데 5개 대는 중국인 그리고 1개 대는 조선인으로 구성되었다. 조선 간부학교의 정식 명칭은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 간부 훈련반 제6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학교는 조선인민만을 대상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군사학교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로 명명하게 된다. 군사학교는 1935년까지 각 기수 마다 6

27) 의열단은 '정의(正義)의 사(事)를 맹렬(猛烈)히 실행한다.'는 의미로 정했으며, 과격하고 급진적인 폭력투쟁을 목표로 하였다. 13명으로 시작했는데 그 규모가 커져 단원이 70여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28)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의 권준 편을 참조하였다.

개월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여 항일투쟁 졸업생(125명)을 배출하였다. 권 준은 1933년 1월까지 축성학(築城學) 교관으로 난징(南京) 교외의 탕산(湯山)에 위치한 선사묘(善祠廟)라는 사찰에서 제1기생 조선인 군인 장교를 양성하게 된다.²⁹⁾

권 준은 1933년 1월 중국 한커우(漢口)로 가서 중국군에 복귀하게 되는데 1934년 6월 난징에 있는 부대에서 연장(連長)과 1937년 12월 중국군 상교(上校)로 근무하게 된다.³⁰⁾

1937년 말 중국군 장교로서 조선의용대 창설과 동시에 비서장으로 책무를 맡게 되고 항일무한방위전(抗日武漢防衛戰)에 참가하게 된다. 1942년 조선의용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휘하의 광복군에 합류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임시정부에 들어가게 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권준은 군무부(軍務部) 산하의 군사학편찬위원을 역임하다가 동년 5월 중경(重慶)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무부 차장으로 임명되고, 경위대(警衛隊) 대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광복을 맞이하게 된다. 광복 후 권 준은 바로 귀국하지 않고 무한(武漢)지역 교포선무단 단장과 한국 광복군 제5지대장으로 동포의 생명과 재산 보호, 안전 귀국 등에 전념하다가 1946년 12월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귀국 후 권 준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타국에서의 군 경력자로 인정받아 대한민국 육군 대령(육사 특채 8기)으로 임관하게 된다. 권 준 대령은 1948년 제106여단장으로 임명되고, 1949년 7월 초대 수도경비사령관 등을 역임한다.

권 준 준장은 1953년 5월 9일부터 제주 육군 제1훈련소 3대 훈련소장 대리로 36일 동안 근무하게 된다. 한 달 동안 근무한 훈련소장에 대한 업적도 현재 시점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리고 한 달 후 제주 육군 제1훈련소장으로 부임한 이응준 중장은 그 당시 나이가 62세에 달하고 있다. 또한 백선엽 참모총장은 권 준 소장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이응준 중장에게 제주 육군 제1훈련소를 맡아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 당시 권 준 준장은 한국 군대에서의 위치를 비롯하여 다른 여러 문제들이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³¹⁾ 전쟁 이후 권 준 준장은 초대 육

29)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의 권준 편을 참조하였다.

30)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의 권 준 편을 참조하였다.

31) 이응준은 일본군 출신들의 경비대 진출을 도와주는데 그치지 않고 좌익 계열의 진출을 적극적인

군 제50사단장을 맡게 된다. 제50사단은 1955년 강원도 화천에서 창설되었고, 임무는 6·25전쟁 전후 복구사업에 주력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다음해 1956년 권준은 소장으로 예편하게 된다.

권 준 소장은 1959년 10월 27일 충남 대덕 유성면 구암리에서 별세(65세)하고,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 ‘102’에 안장된다. 그리고 정부에서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된다. 이로서 권 준 소장은 해방 후 귀국하여 군인으로서 한국 군대에서 활동한 것보다 현재 오히려 대한독립의 유공자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5) 이응준(李應俊)

이응준(李應俊)은 1891년 6월 27일 평안남도 안주(安州) 빈농 집안에서 출생하여 한학을 배웠다. 1907년 보성중학교(1회)에 입학하여 수학하다가 지인들을 통해 얻은 지식과 도움으로 1908년 대한제국 무관학교에 편입한다. 그곳에서 1년 동안 교육을 받는 중에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면서 무관학교 운영은 대한제국에서 일본군대로 이양되게 된다. 이응준은 일본군 운영지침에 따라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이전 관비 유학생으로 일본에 가게 된다.³²⁾

일본으로 건너간 이응준은 일본 육군사관학교 예비과정에 해당하는 도쿄 육군중앙유년학교에 편입되어 예과 2년 과정을 밟던 중에 한일합방을 맞이하게 된다. 예과과정을 마치고 1912년 6월 육군중앙유년학교 본과를 졸업한다. 이응준은 도쿄에 있는 일본 군대에서 6개월간 실습을 거치고, 1912년 12월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1914년 5월 제26기생으로 졸업하고 견습(見習)사관이 된다. 같은 해 12월 일본군 육군 소위로³³⁾ 임관된 후 도쿄에 배속되어 근무하게 된다. 1916년 지바(千葉)보병학교에서 3개월간 보병전문교육을 받은 후 육군 중위로 진급한다. 1918년 9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이응준 중위는 최초의 일본군 출정 부대를 따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에 있는 일본 파견군사령부에 배속된다. 파견군사령부의 임무는 러시아인, 중국

로 막으려 하였다.

32) 당시 무관학교 1, 2학년 재학생들 중 44명을 선발하여 일본으로 유학시켰는데, 이들이 후일 일본 육군사관학교 제26기생과 제27기생이 되었다.

3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의 이응준 편을 참조하였다.

인,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었다.³⁴⁾

1920년 9월 우츠노미야 타로(宇都宮太郎) 조선군사령관(육군 대장)의 배려로 용산에 주둔한 조선군사령부 예하 제20사단 제40여단 제79연대로 배속된다. 그리고 1925년 대위로 진급과 동시에 중국으로 파견된다. 이는 11월 일본군이 중국 동북지역 군벌 장쥔린(張作霖)의 부하인 ‘귀송령(郭松齡) 모반사건’에 개입할 목적으로 중국 봉천(奉天)으로 출동할 때 일본군 예하 조선군으로 파견되어 현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후 조선으로 다시 돌아온 이응준은 대대부관을 거쳐 중대장으로 임명된다.³⁵⁾

이응준은 1933년 일본군 육군 소좌로 조선군 제20사단 제79연대 부관에 임명되고, 1934년 8월 제79연대 대대장으로 근무한다. 1935년 7월 일본군 장교로 장기 복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4등 서보장(瑞寶章)을 받는다. 그리고 1936년 일본군 육군 중좌로 진급해 경성의학전문학교와 경성약학전문학교 교련 담당 배속장교로 활동하고,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할 당시 중국 전선에 출정하여 제20사단 사령부에서 근무한다. 1938년 1월에는 중국 베이징(北京) 주둔 일본군 북지파견군(北支派遣軍) 사령부에서 근무하여 1939년 1월 훈3등 서보장을 받았다. 동년 8월에는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札幌) 병사구(兵事區) 사령부를 거쳐 1940년 8월부터 조선군 대구사령부에서 근무한다.³⁶⁾

이응준은 1941년 육군 대좌로 승진하여 원산기지 사령부 수송관을 맡는다. 1942년 5월 일본군 북지독립 제7여단으로 배속되었고, 1943년 초 중국 칭다오(靑島) 교육대 대장으로 5개월간 신병보충과 교육을 담당한다. 그리고 1943년 가을 독립 제7여단에서 편성한 토벌부대의 지휘관을 맡아 산둥성(山東省) 황해안지구 팔로군 진압작전에 참여한다. 1943년 말부터 1944년 초까지 중국 진저우(錦州) 정차장사령관(停車場司令官)으로 근무하게 된다. 1944년 봄 중국에서 서울로 돌아와 용산 정차장사령관(수송사령관)으로 전임되어 조선과 만주 사이의 수송 업무를 지휘한다. 이응준은 1945년 6월 원산항 수송부로 배속되어 근무하다가 해방을 맞았으며, 소련군이 진주하기 직전 서울로 돌아온다.³⁷⁾

3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의 이응준 편을 참조하였다.

3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의 이응준 편을 참조하였다.

3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의 이응준 편을 참조하였다.

3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의 이응준 편을 참조하였다.

해방과 함께 이응준은 1945년 11월 전조선임시군사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미군정청(美軍政廳)의 요청으로 12월부터 군사영어학교 생도 모집을 주도한다. 그리고 1946년 1월 미군정청 국방사령부 고문으로 임명되고, 동년 2월 26일 일본군에서 근무했던 과거 경력과 미군정청의 고문 역할이 감안되어 군사영어학교를 통과한 것으로 처리되어 대령으로 임관되면서 조선국 방경비대를 창설하는 등 건군을 주도하게 된다. 1946년 6월 이응준 대령은 통위부 감찰총장으로 임명된다.³⁸⁾

1947년 12월 1일 대령 이응준은 조선경비대 제3여단을 창설하여 여단장이 되며, 다음 해 1948년 2월 5일 제1여단 2대 여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몇 달 후 11월 10일 이응준 대령은 초대 육군참모총장으로 추대되고, 취임 3달 후 준장으로 진급된다. 이는 대한민국 및 육군 최초의 장성으로 같은 해 소장으로 진급한다. 이응준 소장은 1949년 5월 춘천 제8연대 소속 2개 대대 병력이 월북한 사건이 일어나자 그 책임을 지고 육군 참모총장을 사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3사단장을 맡게 된다.

1950년 이응준 소장은 제5사단장으로 재임할 당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수원지구 방위사령관, 전라남도 편성관구사령관, 서남지구 전투사령관, 마산지구와 제주지구 계엄사령관, 전라남도 병사구사령관 및 전라남도 계엄민사부장 등에 복무하며 공비토벌 작전과 후퇴 지연작전을 지휘한다. 국방장관 신성모(申性模)와의 불화로 1950년 11월 전역하고, 제2대 상의군인회 회장으로 추대된다. 하지만 1951년 ‘거창양민학살사건’과 ‘국민방위군사건’으로 신성모 국방장관이 사임하자 1952년 4월 현역으로 복귀해서 육군대학 총장에 취임한다.³⁹⁾

이응준 소장은 1953년 6월 1일 제주 육군 제1훈련소 4대 훈련소장으로 취임한다. 이 당시 육군 참모총장 백선엽 대장은 이응준 소장이 육군 제1훈련소 소장 수락을 받기 위해 자신이 행동했던 일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나는 그(육군 제1훈련소장) 책임자로 이응준 장군을 생각하였다. 우리 군의 원로인 이 장군은 그때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로 육군대학 총장으로 있었다. 열악한 환경 속에 그렇게 비대한 부대(육군 제1훈련소)일수록 인격적으로 훌륭

3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의 이응준 편을 참조하였다.

3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의 이응준 편을 참조하였다.

한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육군대학으로 이 장군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였다. “어려우시겠지만 육군 제1훈련소장을 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면 노골(老骨)이나마 헌신해야겠지.” 이 장군은 선뜻 내 청을 받아주었다. 우리 육군 창군 원로에게 어려운 자리를 맡기는 것은 송구스럽지만, 불안해 노심초사하는 것보다 나은 일이었다. 그 예우로 나는 이 장군의 중장 진급을 상신해 부임과 동시에 진급이 됐다.⁴⁰⁾

이응준 훈련소장은 우선적으로 신병들의 교육 및 복지에 주목하고 있다. 1954년 1월 한글교육대를 창설하여 신병들의 교육 신장을 돕고자 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4월에 해체시켰다. 이 시기에 신병의 대부분은 문맹이었는데 한글을 습득시키려는 이응준 훈련소장의 의미는 크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허약한 사병들의 몸을 회복하고 휴양을 돕는 시설인 보육대 설치와 동시에 신병들의 건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PX도 설치하고 있다. 또한 전쟁 포로들을 위한 공민학교⁴¹⁾도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응준 훈련소장의 가장 주력한 업무는 특히 남북 간 휴전협정이 이뤄지는 시기에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기능을 논산 제2훈련소로 이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이를 잘 나타내주는 업무로는 훈련소 예하부대인 제1연대, 제5연대, 제8연대, 제9연대 등 신병훈련 연대를 비롯하여 자동차운전병학교와 하사관 교육연대를 해체시키고 있다. 또한 신병 제1숙영지, 제3숙영지, 제5숙영지 그리고 하사관 교육연대 제1숙영지를 폐쇄시키고 있다. 백선엽 육군 참모총장이 이응준 소장에게 훈련소장의 어려운 임무라고 설명했던 부분은 바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기능을 점차 폐쇄시키고, 논산 육군 제2훈련소로의 기능 위임을 위해 추진된 첫 단계 업무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런 공로로 이응준은 육군 제1훈련소 재임기간에 중장으로 승진하게 된다.

이응준 중장은 1954년 6월 제주 육군 제1훈련소를 이임하여 육군 참모차장을 역임하게 되고, 1955년 대한민국 군대에서 유래가 없는 2번째 장군으로 예편하게 된다. 이후 바로 1955년부터 1958년 기간 동안 체신부장관을 지내고,

40) 《<http://blog.daum.net/koreanmarinecorps>》의 백선엽(老兵이 걸어온 길, 103회) 편을 참조하였다.

41) 이 시기에 전쟁포로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훈련소에 공민학교가 들어서게 된다. 공민학교는 전쟁 포로들에게 한글, 역사, 지리, 산수 등을 가르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개월 동안 6년 과정을 배우는 속성과정으로 운영하였다.

1962년 재향군인회 고문, 1965년 성우구락부(星友俱樂部) 회장, 1967년부터 1972년까지 반공연맹 이사장 등을 역임한다. 1970년 건국대학교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1972년 반공유공자 보국훈장(保國勳章) 통일장(統一章)을 받는다. 그리고 1979년 국정자문위원, 1980년 국방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재향군인회와 통일원 고문을 지냈으며, 태극무공훈장, 보국훈장 통일장을 받는다. 1985년 7월 8일 별세하여 육군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자서전으로는 1982년에 출간된 《回顧 九0年》이 있다.⁴²⁾

6) 이준식(李俊植)

이준식(李俊植)은 1901년 2월 18일 평남 순천에서 출생한 후 상경하여 서울에서 휘문중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윈난(雲南)군관학교를 졸업한다. 1940년 9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군 총사령부 창설을 선언할 때 총사령 이청천 장군 휘하의 참모로 참여한다, 그 후 임시정부 산하 군무부 제1지대장 겸 제1징모분처(第一徵募分處) 주임으로 임명되어 산시성(山西省) 대동(大同)을 근거지로 산시성과 허난성(河南省) 일대에서 광복군 모병 활동에 주력한다. 조국이 해방될 무렵 중국에서 경험한 20년간 군 생활을 통해 광복군 소장(少將)까지 올랐고, 1945년 광복군 총사령부 참모 직책을 지낸다.⁴³⁾

해방 후 귀국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준식은 중국 광복군 대좌로 항일투쟁에 전념한 경력을 인정받아 육군사관학교 제8기 특별반에 입교하여 일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1949년 1월 1일 육군 대령(군번 12445)으로 임관된다. 이준식 대령은 서울 용산에서 제1연대와 제9연대 그리고 제17연대와 제19연대를 기반으로 창설된 제7여단 초대 여단장으로 부임하고 예하부대를 편성한다. 1949년 2월 1일에는 총사령부에 의해 제7여단이 수도여단으로 개칭됨에 따라 수도여단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동년 5월 12일에는 여단이 사단으로 승격되자 수도사단장에 임명되면서 육군 준장으로 진급한다. 이어 1949년 6월 20일 육본 명령에 의해 수도사단이 제7사단으로 개칭되면서 초대 제7사단장으로 취임한다.⁴⁴⁾

4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의 이응준 편을 참조하였다.

4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의 이준식 편을 참조하였다.

4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의 이준식 편을 참조하였다.

이준식 준장은 제9연대와 제19연대에서 각각 1개 대대를 차출하여 1949년 9월 4일부터 1950년 1월 3일까지 지리산지구 공비토벌 작전을 전개한다. 공비토벌 임무를 완수한 제7사단장은 육본 명령에 의거 예하 제1연대를 동두천 북방, 제9연대를 포천 북방, 제19연대를 예비로 사단사령부가 있는 의정부에 위치시켜 38도선 경비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준식 준장은 6·25전쟁 발발 보름 전 1950년 6월 10일 육일명 제47호에 의거 유재홍 준장에게 사단지휘권을 넘겨준 다음 육군사관학교 교장에 임명된다.⁴⁵⁾

6·25전쟁이 발발하자 이준식 준장은 1950년 7월 1일 육군사관학교 교장에서 제3사단장으로 임명된다. 첫 임무는 국군이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는 상황에서 제22연대, 제25연대 그리고 육사 생도대대를 이끌고 금곡리에서 수원까지 저지선을 형성하고 북한군 제3사단 8연대 진격을 저지하고 지연함으로써 적의 전략적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이었다. 이에 성과를 이루게 된 이준식 준장은 1950년 7월 16일부터 동해안 영덕지역에서 포항으로의 진출을 기도하는 북한군 제5사단 침공을 2주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한 끝에 저지하고 국군과 유엔군의 낙동강 방어선을 용이하게 형성하는 전공을 세우게 된다, 이 전투가 인정되어 1954년 7월 6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87호)을 수여받게 된다. 그 후 국군 및 유엔군의 총반격으로 인천 및 서울지역이 수복되자 9월 25일 경인지구 계엄사령관에 부임한 이준식 준장은 수복지구의 패잔병 소탕과 치안 확보에 전력하게 된다.⁴⁶⁾

이후 이준식 준장은 1950년 10월 16일 제1군단 부군단장으로 전보가 된다. 한국군과 유엔군이 북진으로 돌아선 시기에도 불구하고 제1군단은 1951년 2월에 들어 닥친 중공군의 강력한 공세로 인하여 원주 이남까지 후퇴하게 된다. 이준식 준장은 1951년 3월 제1군단 부사령관으로서 제1군단을 강원도 인제군 현리에서 양양까지 진격 작전에 참가하게 된다. 이 작전에 참여한 부군단장 이준식 준장은 3월 26일 제9사단 전선을 시찰하고 군단 지휘소로 복귀하던 제1군단장(김백일 소장)이 항공기 사고로 전사하자 임시로 군단을 지휘하게 되고, 이 기간 동안에 동해안의 전술적 요충지 양양을 확보하는 공을 세우게 된다. 양양 진격작전이 종료되자 이준식 준장은 1951년 4월 27일 육군본부

4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의 이준식 편을 참조하였다.

4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의 이준식 편을 참조하였다.

로 전출 명령을 받고 전방 지휘소장을 역임하고 참모차장 대리를 거쳐 1951년 6월 육군본부 작전참모와 행정참모 부장 소임을 다하게 된다. 1952년 5월 19일 육군 소장으로 진급하였으며, 전쟁 말기 1952년 9월 국방부 제1국장 등 정책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다 휴전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종전 후 1954년 4월 교육 총감을 맡은 후 1954년 6월 5일 제주 육군 제1훈련소 5대 소장으로 발령을 받게 된다.⁴⁷⁾

이준식 훈련소장(준장) 부임의 목적은 제4대 훈련소장 이응준 중장이 진행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기능을 논산 육군 제2훈련소로 위임하면서 뒷정리와 함께 북한의 재침공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 훈련소 규모와 강병의 신병을 새롭게 훈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재임기간 약 7개월 동안 이준식 훈련소장은 제주 육군 제1훈련소를 재창설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우선 해체된 신병 제1, 2숙영지를 1954년 11월 15일에 새롭게 문을 열고, 훈련소 예하부대인 교도연대를 11월 18일에 교수대로 재창설하고 있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를 오창근 준장에게 이임한 이후 1956년 2월 24일 제5관구사령관 등을 역임하게 되고, 1959년 5월 14일 육군 중장으로 승진과 동시에 현역 군인에서 예비군으로 편입하게 된다. 그리고 1966년 4월 5일 타계(67세)했는데 현재 이준식 장군의 유해는 서울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4에 안장되어 있다.

7) 오창근(吳昌根)

오창근(吳昌根)은 1924년 2월 10일 황해도 해주에서 출생한 후 1943년 중국 만주에서 신징(新京)공대를 졸업한다. 해방 후 1946년 6월 15일 육군사관학교 제1기생(40명)으로 졸업한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육군은 개정된 국군조직법에 따라 보병, 기병, 포병, 공병, 기갑병, 항공병, 방공병, 통신병, 헌병 등의 병과가 제정됨에 따라 미 군사 고문단과 협조하여 12개 군사학교를 창설하였다. 이를 근거로 1948년 11월 25일 경기도 김포에서 제1공병단 예속으로 육군공병학교를 창설하게 되는데 오창근 대위가 교장으로 임명되고, 공병대 간부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정진한다. 오창근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제

4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의 이준식 편을 참조하였다.

5사단에 배치되어 대령으로 27연대장과 36연대장을 역임한다.⁴⁸⁾

오창근 준장은 1955년 1월 12일 5대 훈련소장(이준식)의 뒤를 이어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소장을 맡게 된다. 오창근 훈련소장은 마지막 육군 제1훈련소장으로서 훈련소 해체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맡게 된다. 약 50여만 명의 신병을 배출하던 거대한 훈련소를 해체하는 작업은 그다지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이때까지 남아있던 1955년 당시 훈련소 예하부대 및 시설 현황을 보면 <표 II-2>와 같다.

오창근 훈련소장은 1956년 1월 1일 이전까지 육군 제1훈련소 예하부대 및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해체하고 이양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식을 찾아야 했으며, 해체 진행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됐다. 이는 곧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최초 신병훈련소로서 제주 육군 제1훈련소가 5년 동안 강병 군인을 양성하고 역사 속으로 잠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 후 오창근 준장은 훈련소장을 이임하고, 1955년 보병 제12사단장, 같은 해 4월 20일 강원도 화천에서 창설된 35사단장에 오르면서 후방지역의 경계와 각 군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그 후 1959년 보병 제26사단장으로 임명된 후 소장으로 진급한다. 그리고 1963년 제5관구 사령관과 1964년 제1야전군 부사령관을 거쳐서 마지막 군 생활로서 1966년부터 1967년 8월 21일까지 육군대학교 총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육군대학교 총장을 지낸 후 1967년 8월 21일 육군 소장으로서 예비군에 편입되고, 이틀 후 8월 23일 새로 발족된 대한수자원개발공사 이사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대한민국 육군 장성으로서의 공을 인정받아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보국훈장 등을 받게 된다. 그리고 오창근 6대 훈련소장은 2004년 7월 27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별세하고, 국립 대전 현충원 장군 제1묘역 214에 안장되어 있다.⁴⁹⁾

4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의 오창근 편을 참조하였다.

4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의 오창근 편을 참조하였다.

II.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전사

< 표 II-2>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예하부대 및 시설 현황(1955년)

예하부대	창설일자	위치	해체일자	비고
제2연대	1950.10.28	경북 대구		
제3연대	1950.10.28	경북 대구		
공병대	1951.06.11	대정면(모슬포)		
군악(예)대	1951.11.13	대정면(모슬포)		
헌병대	1951.11.13	대정면(모슬포)		
제5연대	1951.06.20	대정면(모슬포)	1953.12.18	1955.03.05 재개
제6연대	1951.08.17	대정면(모슬포)		
제7연대	1951.08.17	대정면(모슬포)		
신병 제1숙영지	1952.02.13	안덕면 동광리	1954.05.05	1954.11.15 재창설
신병 제2숙영지	1952.02.13	서귀면 상예리	1954.09.09	1954.11.15 재창설
하교연대 제2숙영지	1952.10.04	대정면(모슬포)		하사관 교육연대
수용대	1952.05.20	대정면(모슬포)		
급양생산대	1952.10.	서귀면 상호리		1019- 1번지 ‘생산단지’
PX	1953.08.01	대정면(모슬포)		
경비대	1953.02.07	대정면(모슬포)		
보육대	1953.09.22	대정면(모슬포)		
육군 98병원	1952.06.	대정면(모슬포)		
강병대 교회	1952.05.20	대정면(모슬포)		
공민학교	1954.04.05	대정면(모슬포)		
교수단	1954.11.18	대정면(모슬포)		

8) 역대 훈련소장 특징

<표 II-3>에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역대 소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대 훈련소장의 공통적인 특징은 미군정 시기에 미국식 간부 양성을 위해 운영한 군사영어학교(Military Language School)를 졸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하지 못한다면 육군 장성이 되기 어렵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둘째, 미군정이 운영한 군사영어학교는 원래의 설립 취지에 의해 일본군, 중국군, 독립군 등 각 20명씩 60명으로 구성하려고 했지만 일본군(87명), 중국군(21명), 독립군(2명)으로 구성하여 졸업생(110명)을 배출하고 있다. 독립군 장교의 대부분은 미군정의 의도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한국 육군 창설의 주요 역할은 일본 장교들에 의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다시 표현하면 미군정은 중국군과 독립군을 선호하지 않았는데, 그 배경에는 사회주의 혹은 ана키즘(anarchism) 등에 대한 반발로 파악된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육군 제1훈련소 4대 대리 훈련소장을 지낸 권 준 준장과 7대 훈련소장 오창근 준장의 군인 생활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육군 제1훈련소 역대 훈련소장의 출생년도는 1920년대 이전 3명, 1920년대 4명으로 세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활발하게 신병을 훈련시킬 시기에는 1920년대 출생한 일본군 장교 출신이 주를 이루었으나 휴전협정 시기와 전쟁 후에는 1920년대 이전 출생한 장군과 중국군 장교 출신이 훈련소장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또 다른 역대 훈련소장의 일반적인 특징은 훈련소장을 역임한 사망 일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에 사망한 훈련소장은 3인에 불과했으나 백인엽 훈련소장은 2013년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글 혹은 자료는 백인엽 훈련소장이 2008년 『국방저널』에 인터뷰한 내용 정도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소장들에 대한 인터뷰 혹은 기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지만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자서전을 발간했을 뿐이다.

< 표 II - 3 >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역대 소장 특징

순위	계급	성명	해방 전후시기 군 경험	출생년도	사망년도
1대	준장	백인엽	일본군 장교→군사영어학교	1923	2013
2대	준장	장도영	일본군 장교→군사영어학교	1923	2012
3대	준장	오덕준	일본군 장교→군사영어학교	1921	1980
4대(대리)	준장	권 준	중국군 장교→군사영어학교	1895	1959
4대	중장	이응준	일본군 장교→군사영어학교	1891	1985
5대	소장	이준식	일본군 장교→군사영어학교	1901	1966
6대	준장	오창근	중국군 장교→군사영어학교	1924	2004

3.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예하부대 및 시설

1)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예하부대 설치 이전 상황

제주도에 군사시설이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우선적으로 고려시대에 탐라가 원나라의 지배하에 있을 때부터 설명되어야 한다. 원나라는 일본 정벌을 위해 제주도에 탐라총관부를 설치하고 100년의 지배를 이어왔다. 탐라총관부의 존속 이유는 언제든지 가능하면 일본 정벌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즉 제주도는 이미 1,200년도부터 중국-한국-일본을 잇는 지리적 군사적 중요성이 인지되고 있었다. 특히 일제강점기 말 일본은 자신의 본토 방어를 위해 결7호 작전을 수행하는데 그 지역으로 제주도 특히 모슬포 지역을 주요한 군사지역으로 설정하고 미군과 유엔군의 공격에 타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슬포 지역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결7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일본군 군사시설이 존재하고 있었다. 해방 후에도 일제강점기에 존재했던 일본군 군사시설을 이용하고자 미군정과 한국 정부는 군인을 제주도에 주둔시키게 된다. 해방 후 오무라(大村)항공대 건물은 1946년 11월 8일 대정공립초급중학교가 개교하면서 사용하게 된다. 이 학교는 오무라(大村)부대가 사용한 군인 막사 8동을 개조하여 교실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1947년 4월 국방경비대 제9연대가 모슬포에 창설하여 주둔하게 되면서 학교 위치를 옮겨야만 하였다. 최초의 모슬포지역 주둔 조선군은 미군정 시기인 1946년 11월 16일에 창설된 조선경비대 제9연대(연대장 장창국 부위)로 병력은 약 260명 정도에 불과했다. 1948년 4월 3일 사건이 발발하면서 제주도에 주둔하는 병력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 당시 모슬포 지역에는 국방경비대 11연대(최경록 중령)와 9연대(송요찬 소령), 해병대(사령관 신현준 대령) 제1대대와 제2대대(병력 1,200명) 등이 주둔하고 있었다.⁵⁰⁾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제주지역을 포함한 전국은 계엄이 선포되었고, 이에 제주지구 계엄사령부가 설치되면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해병

50) 이 시기에 모슬포 지역이 아닌 제주읍 지역에 배치된 부대는 국방경비대 2연대(함병선 중령)와 보병 제5사단 예하 독립보병 제1대대(김용주 중령) 그리고 미군 제59군정중대와 육군 제6사단 소속 1개 소대였다. 그밖에 서귀면 신흥리에는 병력 86명을 거느린 무지개부대(박창암 소령)가 주둔하고 있었다.

대 신현준 대령이 계엄사령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서울이 함락되고 북한 침공이 가속화되는 1950년 7월 초대 정부는 대구를 시작으로 최초 제1보충병 훈련소를 설치하고 뒤이어 김해 제1훈련소, 구포 제3훈련소, 제주 제5훈련소, 삼랑진 제6훈련소, 진해 제7훈련소를 설치한다.

1950년 7월 16일 제주주정공장 위치에 육군 제5훈련소를 설치하고 김병휘 대령이 훈련소장으로 취임하여 신병을 양성하게 된다. 김병휘 대령은 제주주정공장 자리에 훈련소 본부를 설치하고, 제1교육대를 모슬포지역 오무라부대 병사, 제2교육대를 한림국민학교, 제3교육대를 제주주정공장, 제5교육대를 제주농업학교, 그리고 서귀독립대대를 서귀국민학교, 김녕대대를 김녕국민학교에 설치한다.⁵¹⁾ 이곳에서는 제1교육대 출신으로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된 제주 해병 3·4기가 훈련을 받았으며, 육군 제5훈련소에 입소한 많은 제주 출신 신병들도 훈련을 받고 제11사단 등에 배치되어 6·25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사진 II-2> 육군 제5훈련소 위치(제주주정공장 터)



출처 : 2013년 연구자 촬영

51) 육군 제5훈련소에서 배출된 병력은 1일 평균 750명 정도이며, 입소한 훈련병은 대부분은 만 17세 이상 제주 출신으로 피난민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고급장교, 하사관 그리고 소수 기관요원을 제외한 대부분 교관들은 제주도 출신이었다.

2)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예하부대 및 시설 설치

1951년 3월 21일 창설된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여러 번에 걸쳐 예하부대 및 훈련장 시설들이 설치되고 해체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육군 제1훈련소 예하부대 및 시설은 <표 II-4>에서 알 수 있듯이 대략 30개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제1훈련소 예하부대인 제1, 2, 3연대가 대구에서 창설되어 있었는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1훈련소 내부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였다.

백인엽 초대 훈련소장은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규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훈련장 크기에 대해 설명하자면 미국 보병학교 훈련장은 제주도 크기 정도였지만 우리는 제주도의 절반을 훈련장으로 하였다.”⁵²⁾ 하지만 “제주 육군 제1훈련소 크기는 82만 6,446㎡~99만 1,735㎡(25~30만평)에 달하며 훈련장까지 포함하면 그 면적은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³⁾ 창설 초기에는 이전 제5훈련소 제1교육대가 있던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 배치하게 된다. 하지만 신병훈련소 병력이 약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훈련소 범위는 모슬포 지역을 넘어 대정지역 전체 그리고 안덕면 화순 및 서귀포까지 각 개전투 교장 및 신병 숙영지가 설치되게 된다. 이처럼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게 되었는데 6·25전쟁의 상황과 연계되면서 크게 3단계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1단계는 초기 단계로서 1951년 백인엽 준장이 초대 훈련소장(1951년 3월 21일~1952년 1월 6일)으로 재임한 시기이다. 백인엽 준장은 제주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하는 3월 이전에 제주도에 입도하여 훈련소의 면모를 갖추는 사전 작업을 시행한다. 새로 취임한 훈련소장은 신병을 훈련할 교관을 확보하는 작업으로 가장 먼저 교도연대 예하부대를 만들었다. 그 후에 훈련소는 기간사병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 자동차운전병학교, 하사관 교육연대, 공병대, 군악(예)대, 헌병대 등을 조직하고 있다. 그리고 훈련소는 신병을 교육하기 위해 대구에서 먼저 창설된 제1, 2, 3연대를 비롯해서 제5, 6, 7, 8, 9연대를 창설하고 있다. 결국 백인엽 훈련소장은 초대 훈련소장으로서 신병훈련소 기능을 할 수 있는 기초 작업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52) 백인엽(2008), 앞의 책, 49~50쪽.

53) 백인엽(2008), 앞의 책, 44쪽.

제2단계는 활성화 단계로서 2대 장도영 준장(1952년 1월 7일~1952년 8월 11일)과 3대 오덕준 준장(1952년 8월 12일~1953년 5월 8일)이 재임하는 기간으로 가장 많은 신병들이 훈련소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고 전장에 투입되던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신병 제1, 2, 3숙영지가 설치되고, 또한 하사관 교육연대 제1, 2숙영지를 설치하게 된다. 그리고 예하부대로 수용대, 급양생산대, 경비대 그리고 육군 98병원을 설치하였으며, 특히 신병들의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강병대교회가 설치되고 있다. 이처럼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훈련소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며, 강한 병사를 양성하여 전쟁에 투입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제3단계는 해체 단계로서 4대 대리 권 준 준장(1953년 5월 9일~1953년 6월 14일), 4대 이응준 중장(1953년 6월 15일~1954년 6월 4일), 5대 이준식 소장(1954년 6월 5일~1955년 1월 11일) 그리고 6대 오창근 준장(1955년 1월 11일~1955년 12월 31일)이 재임한 기간이다. 이 단계에서는 창설되는 예하부대 및 시설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훈련소 조직들이 해체되며, 대부분 기능들이 논산 및 다른 부대로 이전하는 시기이다. 결국 1953년 휴전협정이 임박하면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기능은 대부분 폐쇄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특히 이응준 훈련소장이 부임하면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예하부대와 시설들은 해체의 조짐을 알리고 있다.

창설 초기에 만들어진 예하부대 및 시설들은 옛 일본군, 국방경비대 제9연대가 주둔했던 장소이며, 6·25전쟁 발발 직후 제5훈련소 제1교육대가 있던 모슬포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 배치하게 된다. 특히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에 제1숙영지, 서귀면 상예리에 제2숙영지, 하원리 법화사(法華寺)에 제3숙영지, 서귀면 상호리에 제5숙영지를 설치하게 된다. 또한 안덕면 서광리에는 하사관 교육연대 제1숙영지를 설치하여 중간 간부를 육성하게 된다.

또한 훈련소 내 제5, 6, 7, 8, 9연대를 비롯한 숙영지 막사들은 훈련병들이 직접 작업을 수행하여 지어졌다. “훈련소 막사는 훈련병들이 야외 활동을 나갔다 복귀할 때마다 말 등 동물의 출입을 막기 위해 밭에 쌓아 둔 돌담을 하나 둘씩 들고 와서 지을 정도로 너무 열악했으며 훈련병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꾸었다.”⁵⁴⁾ 이 때 인성리에 존재했던 방사탑은 완전히 유실하게 되었는데 1959년 복원된 후 현재는 새롭게 복원되어 있는 상태이다.⁵⁵⁾

54) 백인엽(2008), 앞의 책, 44쪽.

II.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전사

< 표 II-4 >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예하부대 창설 및 해체

부대 명	창설일자	위치	해체일자	비고
제1연대	1950.10.28	경북 대구	1953.12.18	1955.03.05 재개
제2연대	1950.10.28	경북 대구		
제3연대	1950.10.28	경북 대구		
교도연대	1951.03.27	대정면(모슬포)		교수단으로 개칭
운전병학교	1951.05.17	대정면(모슬포)	1953.12.01	
공병대	1951.06.11	대정면(모슬포)		
군악(예)대	1951.11.13	대정면(모슬포)		
헌병대	1951.11.13	대정면(모슬포)		
하사관 교육연대	1951.06.20	대정면(모슬포)	1954.01.20	
제5연대	1951.06.20	대정면(모슬포)	1953.12.18	1955.03.05 재개
제6연대	1951.08.17	대정면(모슬포)		
제7연대	1951.08.17	대정면(모슬포)		
제8연대	1951.10.16	대정면(모슬포)	1953.12.18	
제9연대	1951.10.16	대정면(모슬포)	1953.11.15	
신병 제1숙영지	1952.02.13	안덕면 동광리	1954.05.05	1954.11.15 재창설
신병 제2숙영지	1952.02.13	서귀면 상여리	1954.09.09	1954.11.15 재창설
신병 제3숙영지	1952.02.13	서귀면 하원리	1953.09.21	
신병 제5숙영지	1952.03.15	서귀면 상효리	1954.04.18	서귀면 법호촌
하교연대 제1숙영지	1952.10.04	안덕면 서광리	1953.12.24	하사관 교육연대
하교연대 제2숙영지	1952.10.04	대정면(모슬포)		하사관 교육연대
수용대	1952.05.20	대정면(모슬포)		
급양생산대	1952.10.	서귀면 상효리		1019- 1번지‘ 생산단’
PX	1953.08.01	대정면(모슬포)		
경비대	1953.02.07	대정면(모슬포)		
보육대	1953.09.22	대정면(모슬포)		
육군 98병원	1952.06.	대정면(모슬포)		군산으로 이설
강병대 교회	1952.05.20	대정면(모슬포)		
한글교육대	1954.01.22	대정면(모슬포)	1954.03.20	
공민학교	1954.04.05	대정면(모슬포)		
교수단	1954.11.18	대정면(모슬포)		교도연대 교수부 합병 창설

출처 : 김웅철 편저(2006), 제주 육군 제1훈련소(강병대) 정문 등의 자료에서 작성.

- 55) 1950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 육군 제1훈련소 막사를 건축할 당시 마을 돌탑이 훼손 되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쌀을 모아 1959년에 일부를 복원하였고, 2001년에 나머지 2기 탑이 복원되었다. 탑은 마을 안 농로와 농지 가운데 있어서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4기 탑이 모두 원래 모습대로 잘 보존되고 있다. 1959년 복원한 방사탑은 지정문화재로 등록되었고, 2001년 복원된 2기는 비지정 방사탑이다. 《서귀포문화대전(<http://seogwipo.grandculture.net>)》의 인성리 방사탑 편을 참조하였다.

<사진 II-3> 인성리 방사탑



출처 : 2011년 9월 13일 1960년대 홍정표 촬영 《제주도민일보》

Ⅲ.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조사 분석

1. 조사대상자 구술조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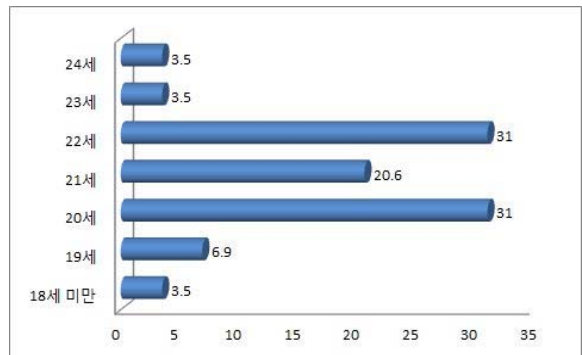
1) 개인 속성

(1) 연령대별

<표 Ⅲ-1>은 연령대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연령별로는 20세와 22세 비율이 각각 9명(31.0%)으로 가장 높았으며, 21세가 6명(20.6%), 19세가 2명(6.9%), 18세 미만과 23세, 그리고 24세가 각각 1명(3.5%)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함양군 출신 신병들의 군 입대 적령기는 20~22세 사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교사, 경찰, 의용특공대 등 연기 신청 등으로 인해 지역적 특수 상황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 연령대별 분포

항목	빈도(명)	비율(%)
18세 미만	1	3.5
19세	2	6.9
20세	9	31.0
21세	6	20.6
22세	9	31.0
23세	1	3.5
24세	1	3.5
합계	2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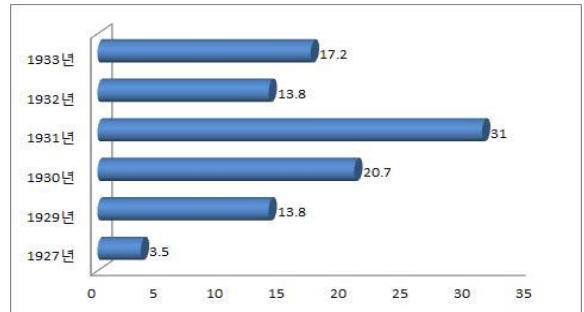


(2) 출생 시기별

<표 Ⅲ- 2>는 출생 시기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출생 시기별로는 1931년생이 9명(31.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930년생이 6명(20.7%), 1933년생이 5명(17.2%), 1929년생과 1932년생이 각각 4명(13.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전쟁 발발 시기에는 20대에 해당되는 1930년대 초반에 출생한 사람들이 대부분 입영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표 Ⅲ- 2> 출생 시기별 분포

항목	빈도(명)	비율(%)
1927년	1	3.5
1929년	4	13.8
1930년	6	20.7
1931년	9	31.0
1932년	4	13.8
1933년	5	17.2
합계	29	100.0



(3) 출신 지역별

<표 Ⅲ- 3>은 출신 지역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출신 지역별로는 안의면이 7명(24.1%)으로 가장 많고, 함양읍이 6명(20.7%), 휴천면과 지곡면이 각각 4명(13.7%), 백전면이 3명(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기준으로 총 319명 중에서 안의면과 함양읍 회원 수가 57명과 51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나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신병 입대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 당시 안의면에서는 120명 정도가 입대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현재 30명 정도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Ⅲ.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조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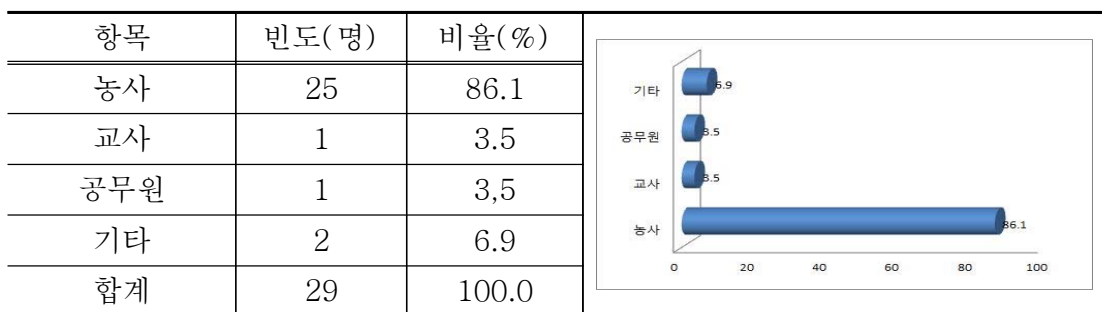
< 표 Ⅲ- 3> 출신 지역별 분포



(4) 직업별

<표 Ⅲ- 4>는 직업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직업별로는 농사에 종사한 비율이 가장 높아서 25명(86.1%)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타(미확인)가 2명(6.9%), 교사가 1명(3.5%), 공무원이 1명(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당시 경제적 환경이 미약하고 직업 선택의 폭이 좁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 입대 이전에 농사를 짓다가 입영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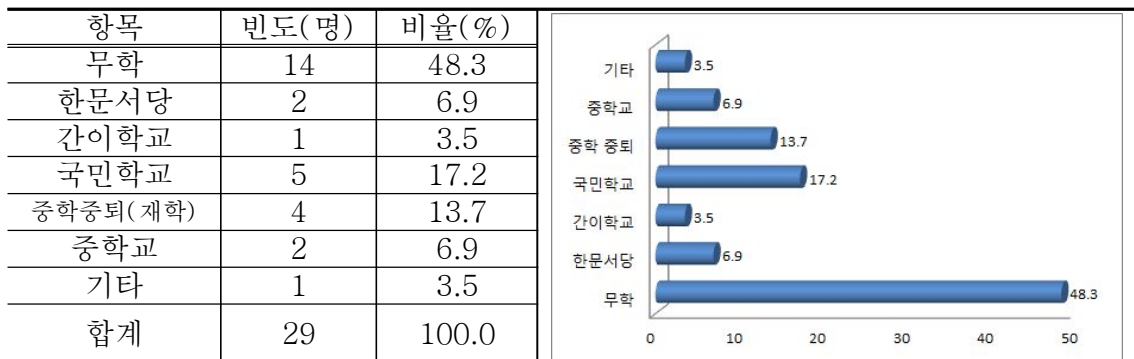
< 표 Ⅲ- 4> 직업별 분포



(5) 학력별

<표 III-5>는 학력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학력별로는 무학이 가장 높아서 14명(48.3%)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국민학교 졸업이 5명(17.2%), 중학교 중퇴(재학)가 4명(13.7%), 한문서당과 중학교 졸업이 각각 2명(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에서 보면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그 당시 시대적 교육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증언자에 의하면 자대에 공민학교(한글교육대)를 만들어 한글을 가르쳤는데 그 강좌를 듣는 신병들이 한 소대에 3~4명씩 있었다고 한다.

<표 III-5> 학력별 분포



(6) 결혼 유무별

<표 III-6>은 결혼 유무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결혼 유무별로는 미혼이 14명(48.3%)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혼이 10명(34.5%), 미확인이 5명(1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당시 후대를 이어가야 하는 유교적 문화에 따라 집안 어른신의 권유에 의해 입대하기 전에 결혼한 경우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부 증언자는 얼굴도 모르고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입대하였거나 입대한 후 제대할 때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Ⅲ.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조사 분석

< 표 Ⅲ- 6> 결혼 유무별 분포

항목	빈도(명)	비율(%)	
기혼	10	34.5	
미혼	14	48.3	
미확인	5	17.2	
합계	29	100.0	

3) 입대 동기 및 경로

(1) 입대 동기별

<표 Ⅲ- 7>은 입대 동기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입대 동기별로는 강제징집이 23명(79.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강제로집이 5명(17.2%)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는 2~3대 독자이거나 교사들이 군 면제를 받거나 일부 소수자가 강제로집 형태로 입대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전선이 급격하게 돌아가면서 17세 이상이면 강제징집 형태로 입대할 수밖에 없었다.

< 표 Ⅲ- 7> 입대 동기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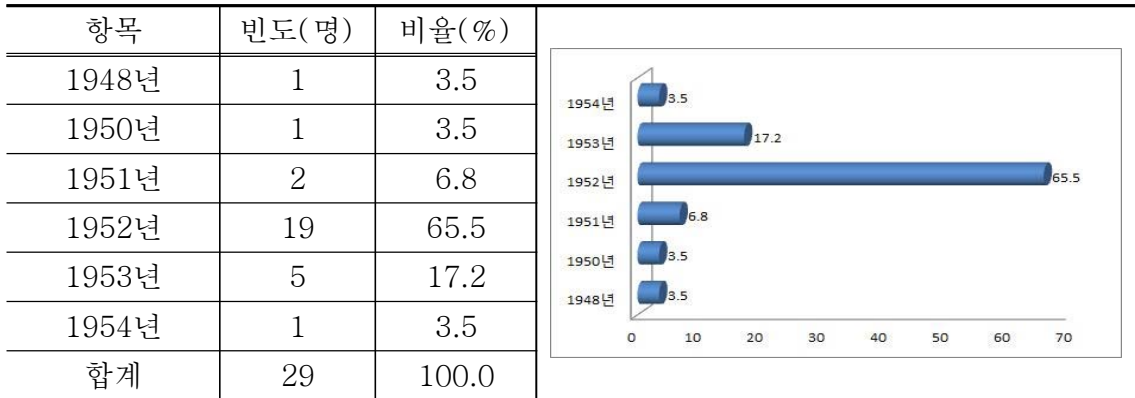
항목	빈도(명)	비율(%)	
강제소집	5	17.2	
강제징집	23	79.3	
기타	1	3.5	
합계	29	100.0	

(2) 입대 시기별

<표 Ⅲ- 8>은 입대 시기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입대 시기별로는 1952년에 입대한 경우가 19명(6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953년이 5명(17.2%), 1951년이 2명(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증언자들 중에는 전방부대 전선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1951년경 단기간 동안 기초훈련을 받고 전선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표 Ⅲ-8> 입대 시기별 분포



<사진 Ⅲ-1> 친구들과 함께 찍은 군 입대 기념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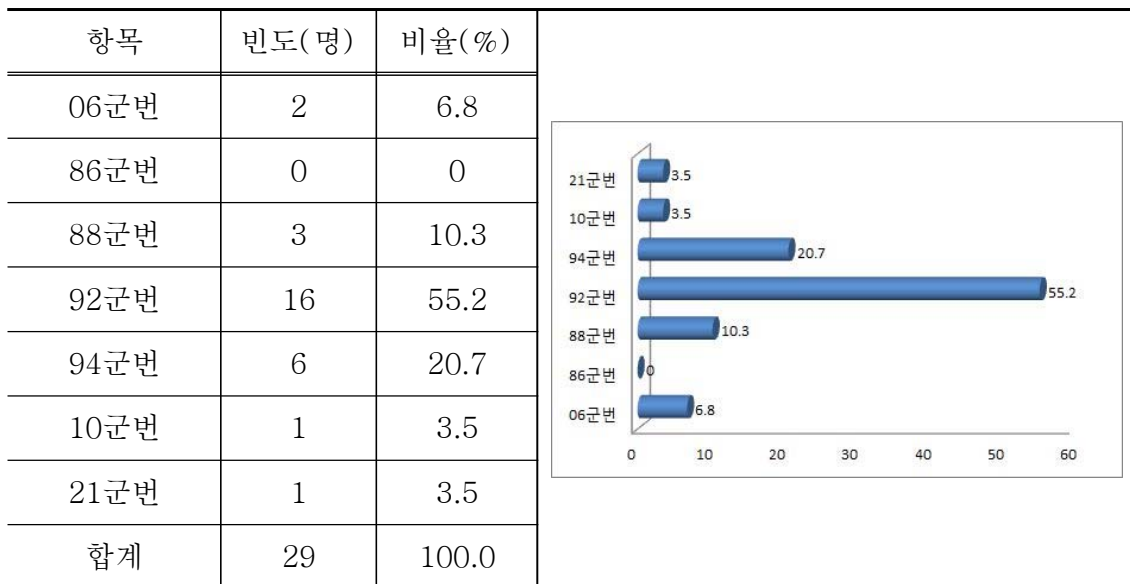
출처 : 2017년 6월 24일 자택에서 김광수 사진 제공

Ⅲ.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조사 분석

(3) 군번 유형별

<표 Ⅲ- 9>는 군번 유형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군번 유형별로는 92군번이 16명(55.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94군번이 6명(20.7%), 88군번이 3명(10.3%), 06군번이 2명(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증언자들은 06, 88군번과 같이 강제소집보다는 강제징집에 해당되는 92, 94군번이 많았다고 한다.

<표 Ⅲ- 9> 군번 유형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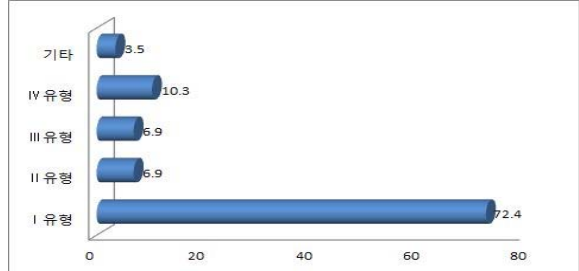


(4) 입대 경로별

<표 Ⅲ- 10>은 입대 경로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입대 경로별로는 I 유형이 21명(72.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IV유형이 3명(10.3%), II와 III유형이 2명(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증언자들 중에는 92, 94군번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신병들이 I 유형을 통해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입대한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

< 표 III- 10> 입대 경로별 분포

항목	빈도(명)	비율(%)
I 유형	21	72.4
II 유형	2	6.9
III유형	2	6.9
IV유형	3	10.3
기타	1	3.5
합계	29	100.0



주 : I 유형(함양→진주→포항→제주), II유형(함양→포항→부산→제주), III유형(함양→진주→부산→제주), IV유형(함양→부산→제주)

<사진 III- 2>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졸업 기념 사진



출처 : 2017년 6월 24일 자택에서 김광수 사진 제공

4) 자대배치와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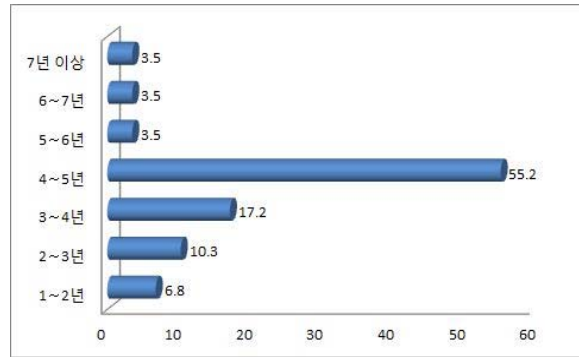
(1) 근속 기간별

Ⅲ.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조사 분석

<표 Ⅲ- 11>은 근속 기간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근속 기간별로는 4~5년이 16명(55.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3~4년이 5명(17.2%), 2~3년이 3명(10.3%), 1~2년이 2명(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증언자들 중에는 제주에서 훈련병 생활을 마치고 자대배치를 받은 후 소속부대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우가 많았다.

<표 Ⅲ- 11> 근속 기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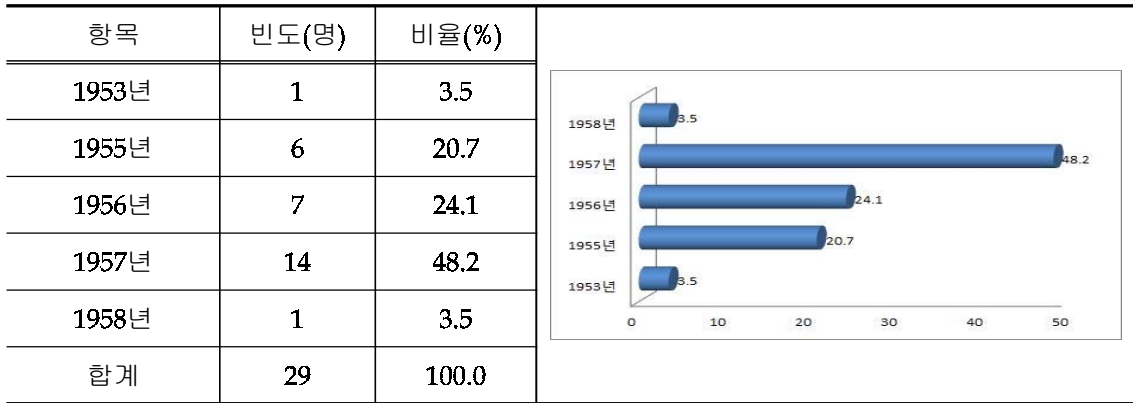
항목	빈도(명)	비율(%)
1~2년	2	6.8
2~3년	3	10.3
3~4년	5	17.2
4~5년	16	55.2
5~6년	1	3.5
6~7년	1	3.5
7년 이상	1	3.5
합계	29	100.0



(2) 전역 시기별

<표 Ⅲ- 12>는 전역 시기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전역 시기별로는 1957년 전역한 경우가 14명(48.2%)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1956년이 7명(24.1%), 1955년이 6명(20.7%), 1953년과 1958년이 각각 1명(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속기간을 고려하면 절반에 가까운 증언자들이 훈련병 생활을 마치고 자대배치를 받은 후 1957년을 계기로 전역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증언자는 육군통신학교를 졸업하고 10년 동안 군대에서 복무한 후 8번 전역 신청을 해도 기각되고, 9번째 신청해서 전역했다고 하는데, 특히 특기가 통신인 경우는 특수병과에 해당되어 전역을 계속 미뤄왔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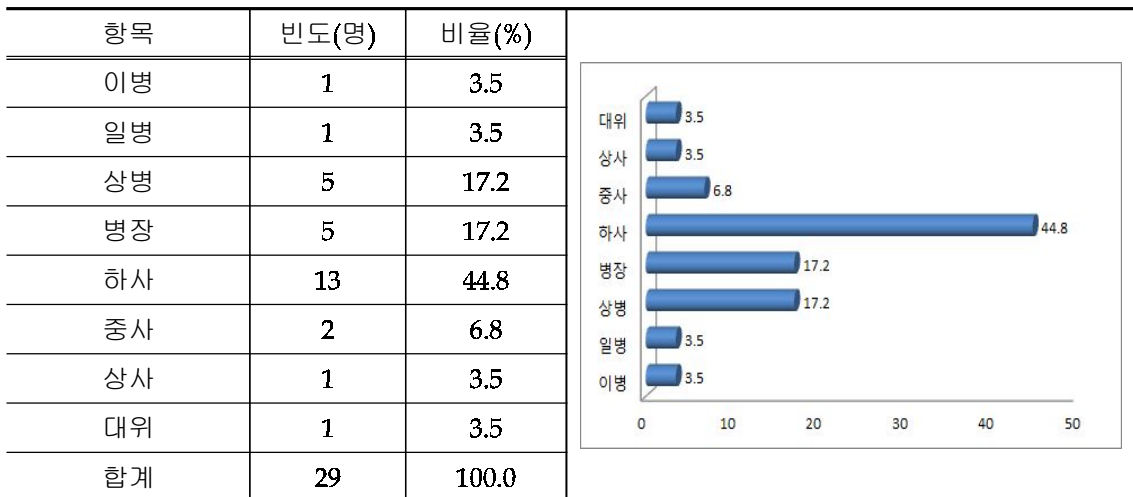
< 표 III- 12> 전역 시기별 분포



(3) 계급별

< 표 III- 13> 은 전역 당시 계급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계급별로는 하사가 13명(44.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상병과 병장이 각각 5명(17.2%), 중사가 2명(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증언자 중에는 장기 근속한 경우 하사로 전역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증언자는 7년 동안 상사로 근무했는데, 월남 파병 후 1년에 2계급 승진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 표 III- 13> 계급별 분포



2. 조사대상자 훈련소 경험

1) 핵심간부의 증언

우선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훈련방식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백인엽 초대 소장과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백선엽 장군의 증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백인엽 초대 훈련소장은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훈련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훈련은 일본식과 미국식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일본식은 현(縣)에서 1개 사단 혹은 연대가 신병을 뽑아 교육을 시키고 평생을 그 부대소속으로 근무한다는 것이다. 미국식은 한마디로 중앙 공급방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중앙 교육기관에서 신병 전체를 교육시켜서 필요한 전선(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었다. 대한민국 첫 신병훈련소로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훈련시켜야 할지도 그 당시 큰 문제였다. 이 문제를 두고 육군본부 고위 관계자와 미8군 참모부장 호디스(Hodes, H. I.) 준장은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서 사흘간 갑론을박한 끝에 미국식 보충훈련소를 만들기로 하였다.”⁵⁶⁾ 이에 대해 백선엽(2011)은 미국식 보충훈련소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본군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군에 패한 원인은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신규 병력 보충 시스템이었다. 일본은 사단별로 신규 병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다.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양성하는 집중형(集中型)이 아니라 각 사단 지휘관들의 판단과 능력에 맡기는 분산형(分散型)이었던 것이다. 그에 비해 미군은 중앙에서 신규 병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 후 시의 적절하게 전선으로 병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중앙에서 대규모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은 병력들은 각 전선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최고지휘부의 결정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선으로 배치되었다. 그러한 점이 미군의 승리를 이끌었던 원동력의 하나였다고 부인할 수 없다.”⁵⁷⁾

백인엽 초대 훈련소장은 훈련방식이 결정되자 “군 당국에 네 가지를 요청하게 된다. 우선, 장교를 보충해 달라는 것, 다음으로 미국 군사고문단을 100여 명까지 늘려 달라는 것, 그리고 정보, 작전 국장 등 육군 본부의 책임 있는 사

56) 백인엽(2008), 앞의 책, 48쪽.

57) 백선엽(2011), 『내가 물려서면 나를 쫓아-1128일의 기억』 제3권, 중앙일보, 134쪽.

람이 훈련병들의 먹고 자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달라는 것, 마지막으로 전투 경험이 있는 교관과 조교(기간사병)들을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⁵⁸⁾

백인엽 훈련소장이 요청한 네 가지 사항은 거의 관철되어 육군 제1훈련소 설치 공사에 들어갔다.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병대를 만들어 관정(管井)작업을 했으며, 불도저 2대를 지원 받아 훈련장을 만들었다. 병사들이 자는 막사는 미 8군의 지원 아래 신속히 지을 수 있었다. 이처럼 6개월 동안 작업한 끝에 3만여 명이 먹고 잘 수 있는 시설을 갖추 수 있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훈련병들의 먹을거리가 부족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식판도 알루미늄이었고 충분히 먹이고 재웠으며 씻겼다. 훈련장 등 훈련소 조성 작업에 모두 500여 명 장병이 투입됐다. 결국 1951년 6월부터 훈련소 모습을 갖추고 신병들에게 훈련다운 훈련을 시켰다고 이해하면 된다.”⁵⁹⁾

“훈련소에 교수부도 만들었는데 대한민국 육군의 최정예 장교로 구성됐다고 보면 된다. 육사 1기에 최고의 장교 출신으로 무려 50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이 곧 교관으로 투입되었는데 그만큼 신병 교육은 매우 촘촘했으며 정예 신병교육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중략) “1951년 2월 미국 LST를 타고 군복만 입은 장정 500여 명이 모슬포에 도착하여 곧바로 훈련에 들어갔다. PRI 교장 4곳을 만들어 훈련시켰으며, 특히 10m 조준사격장부터 만들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영점사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영점사격은 사흘간 계속됐으며 닷새간 실탄사격을 하였다. 훈련을 받은 뒤 바로 전장으로 나가서 싸워야 했기 때문에 우선 총을 쏠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총검술 등을 이틀 일정으로 하였다. 미국 군사고문단이 만든 ‘한 달 교육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시켜서 전장에 내보냈다. 이때 군단에서 보충대가 생겨 적재적소에 병사들을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중략) 각 군단에 골고루 배치된 신병들은 다시 각 연대로 분산돼 호국의 전선에 투입됐다.”⁶⁰⁾

“훈련은 철저히 각개전투 능력을 구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켰다. 군인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개전투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류탄 투척이나 침투훈련, 철조망 통과 등 기초 군사훈련을 철저히 시켰다. 훈련 과정이 무조건 한 달만은 아니었다. 1개월, 2개월, 3개월, 심지어 6개월도 있었다. 전선의 상황에 따라 훈련을 달리했다고 이해하면 된다.” (중략) “1개월은

58) 백인엽(2008), 앞의 책, 49쪽.

59) 백인엽(2008), 앞의 책, 48~49쪽.

60) 백인엽(2008), 앞의 책, 49쪽.

Ⅲ.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조사 분석

주로 개인전투 위주의 훈련 과정이며, 2개월은 공용화기, 3개월은 소대훈련을 시켜서 내보냈다. 6개월은 대전차훈련 등 보전 협동훈련까지로 보면 된다.”⁶¹⁾

핵심간부의 증언에서 보면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일본식이 아닌 미국식 신규 병력 보충 훈련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다. 이로서 백인엽 초대 훈련소장은 전쟁에 나설 신병훈련을 위한 훈련소 교육시설과 기간사병의 구축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신병들의 증언에 따르면 초대 훈련소장이 증언하는 신병 의식주에 대해서는 다른 증언이 나오고 있다.

2) 신병훈련소 생활 경험

(1) 훈련기간과 교육훈련 내용

증언에 따르면 정규 훈련기간은 96일이며, 일요일을 제외한 16주이었다. 3연대 74중대 8소대 소속인 박○필은 “훈련기간은 96일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김○수, 최○언, 정○수, 정○상, 서○석, 김○상, 이○암 등의 증언에서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전쟁이 한창 진행 중에는 96일을 채우지 않고 훈련소를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92군번으로 3연대 74중대 소속인 김○철은 “전시가 급해서 80일 만에 전방에 투입됐다”고 증언하고 있다. 88군번 허○화의 증언에 의하면 “먼저 입대하여 훈련소를 나간 사람들은 4~50일 동안 훈련을 받았다.” 이는 전쟁이 치열하던 시기인 1951년 정규 훈련기간의 절반 정도를 훈련시켜서 전쟁으로 보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비교해서 양○영의 증언에 따르면 “훈련기간은 12주로 교육 중 기간사병으로 보직 변경을 받아서 제주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여기에 하사관 교육연대를 지원하거나 선택이 되면 훈련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하사관 교육연대로 이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8군번 조○래의 증언에 따르면 “9연대 125중대 2소대 2분대에 소속되어, 96일(16주) 동안 훈련을 받았다.” 또한 같은 88군번 이○민의 증언 역시 “5연대 96중대 소속으로 4월에 입소한 사람들은 96일 동안 훈련을 받고 10월에 마쳤다.” 이로서 정규 훈련기간은 96일(16주)로 거의 4~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제주에서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훈련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94군번 이○암에 의하면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전시 중이라 훈련이 심한 편이었다. 훈련을 잘 받으면 절대로

61) 백인엽(2008), 앞의 책, 49쪽.

안 다친다고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92군번 정○상은 “신병훈련소에는 제식훈련, 화기학과(M1 등), 전술학과 등 3개 학과가 있었다.”고 말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으로 94군번 김○상은 “M1소총 분해결합, 각개전투, 총검술 등의 훈련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다. 88군번 이○민은 “각개전투, 사격 등의 교육을 받았다.”고 회상하고 있다. 88군번 서○석의 증언에 따르면 “학과장으로 갈 때 수통에 물이 없으면 못 갔다. 제식훈련 등 기초훈련은 많이 받지 않고 M1총 사격, 각개전투 등의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일반훈련과는 비교되는 훈련이 진행되었는데 92군번 양○영의 증언에 따르면 “각 학과장마다 교관들이 있었다. 훈련기간은 12주로 일등중사(상사)가 대전차포, 박격포, 무관단총 등을 교육하였다. 훈련장에는 선임조교 1명(중위), 조교 5~6명이 있었다. 하지만 훈련을 받는 동안 훈련병 대접이 안 좋았다.”고 기억하고 있다.

또한 88군번 이○민은 “아침 기상시간은 오전 6시로 훈련은 오후 5~6시경에 끝났다.”고 증언한다. 이에 첨가해서 92군번 진○권의 증언에 따르면 “교육은 8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학과장으로 갔다.”고 한다. 10군번 허○화에 따르면 “오전에 훈련을 받고 오후에 비오면 훈련을 중지하였다. 학과를 마치고 나면 실탄 및 탄피 정리 작업을 하였다.” 종합하면 훈련병들은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식사하고 오전 8시에 교육이 시작되어 오후 5~6시경에 훈련을 마치고 있다.

<사진 III-3> 1차 현지조사 모습(안의면)



출처 : 2017년 5월 29일 6·25참전용사 사랑방(안의면)에서 연구자 사진 촬영

(2) 의복과 식사 생활

우선, 훈련병 의복에 대한 증언이다. 92군번 김○철에 의하면 “좋은 작업복도 아닌 실탄에 맞거나 피 묻은 옷을 입고 2개월 정도 훈련을 받았다.” 증언자들에 따르면 군인 모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94군번 정○수는 “모자 1개에 10원 정도 하였다.” 서○석에 따르면 “모자 하나로 16주 사용하였다.” 88군번 허○오에 따르면 모자를 자주 잃어버려서 자신도 “화장실에서 모자를 뺐은 적이 있다.” 94군번 송○윤은 “하루 저녁 화장실에 갔는데 모자를 뺐지 못 하였다. 한라산 밑에서 마지막 야간 훈련을 받다가 모자가 날아 가 버렸는데 사람 좋은 2분대장이 모자를 가져다주어 고비를 넘긴 적이 있다.” 이와 반대로 기간사병들은 훈련병들의 의복을 착복한 증언들도 있었다. 최○언의 증언에 의하면 “모포는 기간사병들이 다 가져갔으며 나쁜 짓을 많이 하였다.” 또한 정○상은 “신병 교육연대 조교들이 피복, 충기부품 등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증언을 통해서 보면 작업복과 모자 등의 의복은 신병에게 한 번 지급하면 마지막이고 이후에 필요하면 자신이 구입하거나 훔쳐서 해결했던 것으로 비정상적인 행동이 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신병들의 식사와 관련된 증언들인데 가장 많은 응답을 하고 있다. 92군번 김○수는 “배가 고프니까 식사 당번을 해서 취사장에서 누룽지를 훔쳐먹은 기억이 있다. 80일이 되면 마른 명태가 되어 나왔다. 병사들에게는 건빵 등의 배급이 나왔으며 화랑 담배를 피웠다.” 최○언은 “밥과 국을 나누어 주었는데 두 번 먹으면 다 없어졌다. 반찬은 소금 국물이 전부였다. 사회에서 밥을 많이 먹던 사람들은 굶어 죽었다. 고추장, 된장, 콩나물, 김치 등이 있어도 제대로 배급되지 않았다.” 서○석의 증언에 따르면 “17일 동안 훈련을 받고 휴전되었다. 물도 보급이 잘 되지 않았고, 식사(밥, 국)는 두 사람이 같이 하는데 빨리 먹는 사람은 먼저 먹고 느린 사람은 나중에 거의 먹지 못 하였다.” 94군번 정○수는 “훈련을 마치고 12월 말에 나오는데 제주에서 마른 명태가 나온다고 하였다.” 김○철은 특히 “포복할 때 배가 고파서 다른 생각이 없었다. 배가 고프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 노○상은 “도라무통에 손을 집어 놓고 먹었는데, 배가 고파서 시레기 풀이라도 먹고 싶은 심정이었다. 신병교육이 끝나면

마른 명태가 나온다고 할 정도로 먹지 못 하였다.” 허○화는 “식사 양은 충분하지 못 하였다. 빵이나 풋고추 같은 것을 사서 먹었다.” 노○현은 “배가 너무 고팠다.” 하지만 이렇게 배고픈 이유에 대해 훈련병들은 기간사병들의 술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정○상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 급식량이 나와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갔다. 중대장, 소대장 등 전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서 욕심을 많이 냈다. 취사장에서 소를 잡았는데 기간사병들이 집에 다 가져갔다.” 허○오는 “돈이 없어서 사먹지 못하고 돈이 있으면 기간사병들이 가져갔다. 그 때는 먹는 것이 힘들었다. 배가 고프고 훈련 받기 힘들어서 집에 가고 싶었다. 하루에 쌀 두 홑이 나왔는데 기간사병들이 가져가서 먹었다. 부친이 면회를 오지 못해서 제주에 가는 사람에게 돈을 붙였는데 그 돈을 받아서 빵 하나를 사 먹고 나머지는 기간사병들이 가져갔다. (훈련소를 퇴소하여 자대배치를 받은 후) 전방 투입하기 전 한달 동안 점심 식사로 문어 젓갈이 든 주먹밥 한 덩어리를 주었는데 제주도 훈련소 식사 때보다 나았다.” 또한 김○동은 “식사는 도라무장에서 퍼서 배급했는데 20세 때 배가 고파서 힘들었다. 백인엽 장군이 훈련소장으로 있을 때 콩나물국을 배급했는데 말도 못해요, 높은 사람이 다 가져갔다.” 조○래는 “9연대 125중대 2소대 2분대 소속으로 2명이 한 조가 되어 식사(하나는 밥, 다른 하나는 국)를 타고 오다가 다른 부대원들에게 뺏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날 부대 훈련병들이 밥을 다 굶었다. 간부 부인들이 빵을 팔았는데 빵 먹은 사람은 쉬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교육을 받았다. 훈련소에 있을 때 한라산에 고사리를 꺾으러 가자고 해서 갔는데 호각을 부르면 동일한 시간에 많이 꺾은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등과 비교해서 몽둥이로 때렸다. 나중에 가마니에 담아서 한라산 후생사업(돈벌이)을 했다고 한다. 먹고 자는 생각만 하였다.” 송○윤은 “전방에 가도 배가 고프고 했는데 간부들이 생활하다보니 전부 뺏아서 먹었다. 취사반에서 좋은 것을 다 가져갔다. 쌀 2홑이 나오는데 다 먹지 못해도 취사병이 쌀을 팔아서 휴가를 갔다.” 훈련소장이 신병의 급식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실패하고 있음도 증언하고 있다. 양○영의 증언에 따르면 “훈련소장(오덕준)이 새로 부임하면서 식사 등 급양 보급에 힘쓰고 강병에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순찰을 나오면 밥을 많이 주었다.” 조○제의 증언에 의하면 “훈련소에서는 돼지를 사육(약 100두)해서 사병들을 먹였다. 하지만 훈련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

다. 학과장에 가면 파는 사람이 있어도 사먹지 못하고 내색을 하지 못했으며, 돈을 내서 통째로 사면 기간사병들과 같이 나누어 먹었다. 소대장과 연대장까지 문제가 되다보니 부패가 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심정뿐이었다. 봄이어서 쭉 등을 뜯어 삶아서 소금을 넣고 먹었다.” 이로서 신병들에게는 배고픔이 주요한 사항으로 인식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증언을 종합하면 식수와 음식이 충분하지 않았고, 훈련 후에 제주를 떠날 때 마른 명태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구술하고 있다.

(3) 내무반 생활

내무반 생활에 대한 기억은 대체로 기간사병들의 체벌과 착취에 대한 내용이다. 최○언의 증언에 의하면 “기간사병들은 돈을 거두고 못살게 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병기가 없으니까 두들겨 패서 충을 사오라고 하였다.” 진○권의 증언은 “1연대 19중대(병기대)에서 대장 조수를 했으며, 학과장에 갔다 오면 충이 없어서서 돈을 건어서 주면 충을 주었다. 983중대에서는 병기로 때렸는데 죽은 경우가 있었다.” 조○제는 “그 당시 밤이 되면 밖에 나가지 못했으며 죽창을 들고 보초를 섰다. 또한 돈이 필요로 했으며, 말을 안 들으면 몽둥이로 매일 맞았다. 돈 있는 사람도 내색을 하지 않았는데 돈을 주면 안 때리고 하니 무척 화가 많이 났다. 그래서 부대 내에서 돈을 거두어서 상납한 적이 있다. 조교에게는 맞았지만 훈련병들끼리는 서로 때리지 않았다.” 9연대 182중대 소속인 김○상은 “집에서 돈을 좀 갖고 왔는데 화투를 좋아하는 조교들이 놀음해서 돈을 다 갖고 갔다.” 3연대 74중대 소속인 김○동은 “내무반 생활에서는 때리기도 했으며, 분대장은 추울 때 밤에 나오라고 해서 막대기로 때린 적도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9연대 125중대 2소대 2분대 소속인 조○래는 “훈련병 때 5분 동안에 빨래를 하라고 해서 동작이 빠른 사람은 빨래를 하지만 느린 사람은 소지품도 꺼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침번을 서게 되면 눈병, 이질 등에 안 걸린 사람이 없었다. 안 걸린 사람은 명당 집 집 안에서 태어난 자손이었다고 하였다. 한 수통이면 5명이 세수하는데 얼굴을 무명 수건으로 닦으면 반들반들해서 눈병에 걸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하루에 여러 사람들이 사망했는데 훈련 때 사망한 사람은 비밀이었다. 하루라도 매를

맞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했다. 1중대에 250명이 생활했는데 한사람이라도 잘못하면 때렸다.” 허○화는 “기간사병이 한 사람당 5대씩 200여명을 두들겨 패서 뒤지게 맞은 적이 있다.”

<사진 III-4> 훈련소 막사 앞에서 전우와 함께



출처 : 2017년 6월 24일 자택에서 김광수 사진 제공

(4) 질병

질병과 관련해서 보면 이가 많았으며 눈병, 설사병 그리고 열사병 등이 자주 나타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서○석의 증언은 “여름에는 이가 있어서 물가에 가서 세탁을 해도 안 죽었다(삶지 않아서), 그래서 살충제 하나인 디디티(DDT)를 뿌렸다.” 그리고 2연대 41중대(모슬포 시내 옆이 2중대) 소속인 노○현은 “겨울이라도 바람이 많이 불지 않고 따뜻해서 세탁하러 가면 이가 많았다.” 허○화는 “산방산 밑에 가서 세탁한 적이 있다.” 김○철에 따르면 “당시 이가 있어서 DDT(가루약)를 분무기로 뿌렸다.” 결국 훈련병들은 사계절 동안 이를 퇴치하려고 세탁을 하고 DDT를 뿌려야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7연대 2중대 소속인 송○윤의 증언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훈련 받을 때는 눈병, 설사병 등에 걸리는데 특히 배탈이 많이 났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었으며, 야외에서 훈련 받을 때는 죽는 경우도 많았다. 당시 육군 98병원에 입원한 적은 없었지만 만일 입원하게 되면 나오지 못했다. 아파도 아프다고 못했으며

Ⅲ.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조사 분석

눈병에 걸린 적도 있었다.” 5연대 96중대 소속인 이○민은 “공기와 물이 나빠서 배가 아팠는데 본인의 생존은 하나님이 도와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2연대 2중대에서 제3연대 2중대로 이동한 허○화는 “열사병으로 아파서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3연대로 이동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5) 면회

훈련기간 중 면회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김○상은 그 당시 훈련병들의 상황에 대해 단호하게 “돈이 없으면 면회를 오지 못했다. 면회는 오지 못했지만 돈을 부친다는 편지는 왔다.” 이에 서○석은 “면회는 오지 못했지만 부인이 국민학교를 졸업해서 편지 왕래는 있었다.” 대부분 훈련병들은 면회 오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었고 대신 편지 왕래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은 “면회를 온다고 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만나지 못했다.” 노○현은 하사관 교육연대로 갔던 “노○상이 신병훈련소에 찾아온 적이 있다.” 그리고 김○철은 “삼촌(대위)이 면회를 와서 장교 집에서 외박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 당시 논 한말지기(200평)를 팔아서 면회를 왔다. 면회를 온 다음 돈이 있어서 친구들에게 빌려주기도 하였다.” 결국 육지에서 제주로 면회를 오게 되면 많은 경제적 부담이 있었으며, 부유한 가정이면 생각도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6) 탈영과 지역감정

이 외에도 훈련소 생활 경험으로 탈영에 대한 증언이다. 이○암 증언에 따르면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고 농촌에서 살다가 간 사람들은 그저 그렇고 도시에서 간 사람들은 덥고 애먹고 힘들었다. (도시 사람 중) 탈영한 사람들은 육지로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 제주도가 섬이기 때문에 탈영을 해도 육지로 갈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94군번 정○수의 증언에 따르면 “그 당시 병신 되어야 집에 간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역감정에 대한 증언도 있었다. 8연대 148중대 소속인 김○수의 증언에 따르면 부대에 “거창과 부산 출신들이 많았다.” 진○권의 증언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가도 같은 중대로 편입되지 않았다.” 노○현은 “그 당시 함양에서 온 사람들은 약 200명이 넘었다. (우리 부대에) 기간사병으로 전라도 출신(1명)이 있었다.” 허○화의 증언은 “특히 기간사병들 중에는 전라도 출신 악질이 많았다.”

<사진 Ⅲ-5> 2차 현지조사 모습(함양읍)



출처 : 2017년 7월 26일 ○○식당에서 연구자 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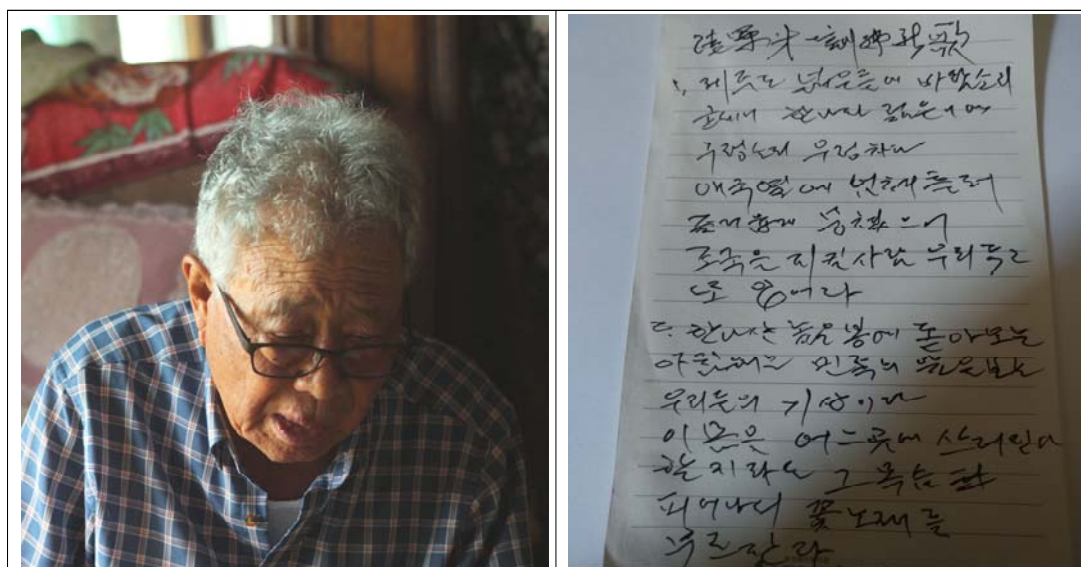
(7) 휴전 소식과 기간사병으로 이동

훈련기간 중 휴전 소식을 접한 내용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1952년 7월 94군번으로 입대한 김○상은 “96일 교육훈련 중 휴전을 맞았다. 휴전 소식을 듣고 환호하였다.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생각은 안했지만 조금은 걱정이 됐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밖에 양○영의 증언에 따르면 “훈련 받은 후 육지로 가려고 했다. 막사에서 본적, 현주소, 이름, 군번 등을 영어로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호출되었다. 그래서 밀양 출신 손○○ 등 9명은 훈련소로 발령을 받아 기간사병으로 남게 되면서 만 4년 동안 제주도에서 생활하였다. 위병소에서 근무할 때 연락이 오면 다시 본부로 연락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는 훈련병

Ⅲ.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조사 분석

에서 기간사병 혹은 하사관 교육연대로 이동할 때 학력(교육)이 주요한 기준이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대부분 훈련병들은 무학으로 문맹 수준이었다. 따라서 국민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춘 경우 기간사병 혹은 하사관 교육연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하게 많은 증언자들이 훈련소 군가를 기억하고 있었고, 3절로 된 훈련소 군가 중 2절까지 암송하고 계신 증언자도 있었다.

<사진 Ⅲ-6> 증언자 기억에 의한 육군 제1훈련소가



출처 : 2017년 7월 24일 자택에서 김광수 사진 제공

3) 숙영지 생활

연병장(학과장) 교육에서 벗어나 야외에서 특별한 교육을 진행한 숙영지 생활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우선 김○수의 증언에 따르면 “산에 있는 숙영지로 갈 때는 행군해서 갔으며, 그곳에서 잠을 잤다. 숙영지에서 교관, 조교(기간사병)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1953년 1월 1일 설날(양력)을 숙영지에서 보낸 기억이 있다. 박격포를 쏘는 학과장에서 훈련 받은 경험이 있다. 오전과 오후 각각 4시간씩 하루 8시간 교육훈련을 받았다. 비가 오면 훈련을 취소해서 철수했다가 다시 훈련을 받았다. 사격 후에는 총 수리를 했는데

잘못하면 기합을 받았다.” 이와 함께 7연대 138중대 소속인 양○영의 증언으로 “제2숙영지에서 박격포 훈련을 했고, 조교(기간사병)로 생활하였다. 제2숙영지는 대왕암 근처에 있었다. 땅 바닥에 판자를 깔아 놓고 취침하였다.” 이로서 제2숙영지는 중문에 있었으며, 박격포 훈련을 하는 특별한 훈련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박○필의 증언에 따르면 “숙영지에는 움막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잠을 잤었다. 숙영지는 전부 천막집으로 3시간 훈련을 받고나서 밥을 타러 갔다.” 박○필이 증언한 제2숙영지의 경우 오전과 오후 각각 4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다면 이 숙영지는 제2숙영지가 아닌 다른 숙영지에서 경험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연대 183중대 1소대 소속인 최○연의 증언에 따르면 “숙영지에서 반합에 배급을 받아서 먹었던 기억이 있다. 산비탈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곳에서 빵을 팔아서 그것을 사서 먹은 기억이 있다.” 그리고 1연대 9중대 소속인 허○오는 “2~3일씩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그곳에 교육장(숙영지)이 있었고 물이 좋았다. 밥은 도라무깡에서 퍼서 먹었는데 배가 고파서 생썩을 손으로 뜯어서 먹거나 생감자를 캐서 먹었다.”고 하였다. 이로서 훈련소에서는 식수가 어려웠지만 숙영지에서는 식수가 해결되고 있었다. 하지만 숙영지에서도 여전히 적은 식사량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III-7> 제주 육군 제1훈련소 훈련병 시절(제2숙영지)



출처 : 2017년 6월 24일 자택에서 김광수 사진 제공

4) 하사관 교육연대 생활

하사관 교육연대에서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입소한 신병들을 대상으로 입교를 종려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하사관 교육연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국민학교 이상의 교육 수준을 충족해야만 하였다. 하지만 교육 수준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신병들은 김○호의 증언처럼(전쟁이) “빨리 결판을 낸다고 해서 하사관 교육연대에 가지 안하였다.”고 한다. 여기에는 이중적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전방부대로 배치될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후방지역인 제주도에 남아있기 위해서 입교하는 의미가 있었다. 따라서 전쟁이 빨리 끝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훈련병들은 하사관 교육연대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증언이다.

3연대 61중대 소속인 조○완의 증언에 따르면 “신병은 8~9주 동안 훈련을 마친 후 하사관 교육연대에 들어갔다. 훈련 받을 때 총기소지 검사 등으로 애를 먹었으며 엄격하였다. 밥을 받아놓고 감사의 묵념을 하고 1분도 안돼서 집합시켰다. 일주 행군은 전원 실습훈련으로 공격과 방어전술, 순찰 등의 교육을 받았으며, 밥을 직접 지어서 배식하여 식사를 해결하였다. 지휘관들은 분대장들에게 교육을 잘 받지 못하면 귀한 집 자식들이 다 죽는다고 하였다. 하사관 교육연대에 들어가서(260기) 1주 후에 휴전(7월 20일)되었으며, 8~9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거주하였다. 교육기간은 8주로 체식훈련 등 기초교육을 받았다. 그 당시 분대장을 했는데 훈련 중에 땀을 많이 흘리면 피를 많이 안 흘린다고 하였다.” 이로서 하사관 교육연대에서는 8주 동안 교육을 받았으며, 신병보다는 한층 상향된 훈련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8연대 145중대 소속인 정○상은 하사관 교육연대에 대해 보다 상세한 증언을 하고 있다. “훈련소 신병 때는 향도, 보급계, 병기계, 분대장, 소대장 등을 역임하였다. 신병훈련이 끝난 후 하사관 교육연대에 들어갔는데 모슬포에서 한림까지 하루 동안 일주 행군 훈련을 한 적도 있다. 하사관 교육연대에 서 훈련을 마친 후 근무지 파견으로 경비사령부, 육군 98병원에서 근무하였다. 하루는 사계리 바닷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병무과장(거창 출신)이 제주도에서 기간사병을 모집한다고 해서 거창, 함양 출신들이 많이 지원하였다. 군번, 성명, 본적지 등을 칠판에 한문으로 작성하는 시험을 치렀는데 거창

사람들은 다 합격하였다. 이로 인해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남게 되면서 교도 연대 조교를 하게 되었다. 기간사병으로 지낼 때 동료 15명과 함께 야간 분대 공격훈련(84일차) 조교를 담당하였다. 1년 만에 일등중사(하사)로 진급하고 제주도 경비사령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진○권의 증언에 따르면 “훈련병들 중에는 하사관 교육연대(산방산 옆)에 지원하여 16주 훈련을 받아 상병으로 진급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신병이 하사관 교육연대에 지원하게 되면 진급이 빨랐음을 알 수 있다. 6연대 99중대 소속인 노○상에 따르면 하사관 교육연대는 “국교(초등학교)를 졸업해야만 시험보고 입학이 가능하였다. 그곳에서 교육을 받을 때 모가지에 힘이 없어서 철모가 왔다 갔다 하였다. 90일 정도 신병훈련(교육)을 마치고 하사관 교육연대에 들어가서 48일 동안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결국, 증언을 종합하면 8주(1주일 6일)동안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 수준과 식사는 신병훈련 때보다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사관 교육연대에서도 식사의 문제가 심각하여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사진 III-8> 하사관 교육연대 증언 모습



출처 : 2017년 6월 24일 자택에서 연구자 사진 촬영

3. 증언 및 사료를 통한 부대시설 규모와 위치

1) 증언을 통한 부대시설 규모와 위치

우선, 증언자를 통해 훈련장과 부대시설의 규모와 위치를 알아보고자 질문하였다. 1952년 8월 15일 입대한 양○영의 증언에 따르면 “92군번 신병들은 훈련 받고 나서 학과장을 만들어 생활하였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1952년 8월 까지도 훈련소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파악할 수 있고, 계속하여 신병들이 입소하면서 훈련소의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92군번 조○완은 “모슬봉 앞에 신병훈련소가 있었고 그 옆에 하사관 교육연대가 있었다.” 이를 통해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모슬봉을 중심으로 부대시설들이 위치하여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연대 9중대 소속인 허○오의 증언은 “1연대부터 9연대까지 쪽 있었는데 본부는 한두 채 있어서 나무로 짓고 거주했으며, 가운데 통로 양쪽에서 잠을 잤다. 한 막사에 50여 명이 지냈다.” 그리고 3연대 74중대 소속인 김○철은 막사와 천막 시설을 비교하는 증언을 하고 있다. “제1, 2연대는 막사, 제3연대는 텐트(천막)로 지어졌다.” 소속에 대한 기억이 없는 김○호의 증언에 따르면 “막사는 둘로 지었다.”에서 1연대 혹은 2연대 소속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2연대 41중대 소속인 노○현은 “항상 훈련 갔다가 돌아올 때 돌멩이를 지고 왔다.”라고 증언함에 따라 연대 막사에 대한 보수 공사는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대정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인성리 방사탑 돌이 군인들로 하여금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고 한다. 현재의 방사탑은 전쟁 후 어느 할아버지가 액운을 감당하면서 복원했으며, 현재에 이르러 인성리 방사탑은 새롭게 재차 복원되었다고 한다.

특히 3연대 74중대 소속인 김○동에 따르면 “연대본부와 중대본부는 막사였고 중대는 천막을 쳐서 생활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제1, 2연대는 전체가 막사로 지어져 있어서 그곳에서 훈련병들이 생활했다면, 3연대 본부는 막사이고 훈련병들은 천막에서 지냈음을 알 수 있다. 9연대 182중대 소속인 김○상은 “9연대는 맨 끝자락(골짜기)에 있었는데 천막(조립식 창고) 가운데 통로 양쪽에 취침 침대가 있었고, 3연대는 천막이었다.” 그리고 9연대 125중대 2소

대 2분대 소속인 조○래는 “천막은 아래에 있었고 정문도 있었다.”고 회상하고 있다.

<사진 III-9> 함양읍 분회장(양기영)과 대화 장면



출처 : 2017년 6월 25일 함양읍내에서 연구자 사진 촬영

다음으로 증언자를 통해 숙영지의 위치를 알아보고자 질문하였다. 증언에서 보다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정○상은 “제1숙영지는 한림에서 금악으로 올라가는 마절리라고 명명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제2숙영지는 중문 위쪽, 제3숙영지는 서귀포 아래쪽, 제5숙영지는 서귀포 위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모슬포 뒤쪽 모슬봉 근처에 수원지를 만들었다. 서림수원지(서림리)는 바닷가에서 물이 나와서 식수로 사용하던 곳이다. 제1, 2, 3, 5숙영지 중 급양생산대는 제3숙영지 근처에 있었다. 숙영지에서는 연대별로 나뉘어서 훈련을 했는데, 제1숙영지는 사격, 제2, 3, 5숙영지는 전술훈련을 하였다. 사격 훈련장은 제1숙영지(마절리)에 있었는데, 20m 사격은 모슬봉 쪽에서 하였다.”

이와 더불어 6연대 99중대 소속인 노○상은 “제1, 2, 3, 5숙영지가 있었다. 제2숙영지는 폭포가 있어서 물이 좋아 논도 있고 해서 많이 사용했으며, 그곳에 한번 가게 되면 2주 동안 교육을 받았다. 제5숙영지는 주변에 공비가 있어서 완전무장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거나 행군하였다. 7연대 142중대 소속인

Ⅲ.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조사 분석

서○석의 증언은 “서귀포 폭포 위에 제2숙영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3연대 74중대 소속인 김○철은 “제1숙영지는 물이 부족했고, 제2숙영지는 물이 좋았다.” 그리고 김○수의 증언에 따르면 “한라산 중턱에 제1, 2, 3숙영지가 있었다. 몇 십 명이 돌로 담을 쌓아 학과장을 만들어서 훈련을 받았다.” 이를 종합하면 숙영지는 대부분 한라산 중산간에 위치하고 있었고, 특히 제2숙영지는 물이 좋아서 많은 훈련병들의 기억에 각인되어 있었다. 하지만 숙영지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을 받고 있거나 확충 혹은 보수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모습이었다.

<사진 Ⅲ-10> 학과장으로 가는 길(보행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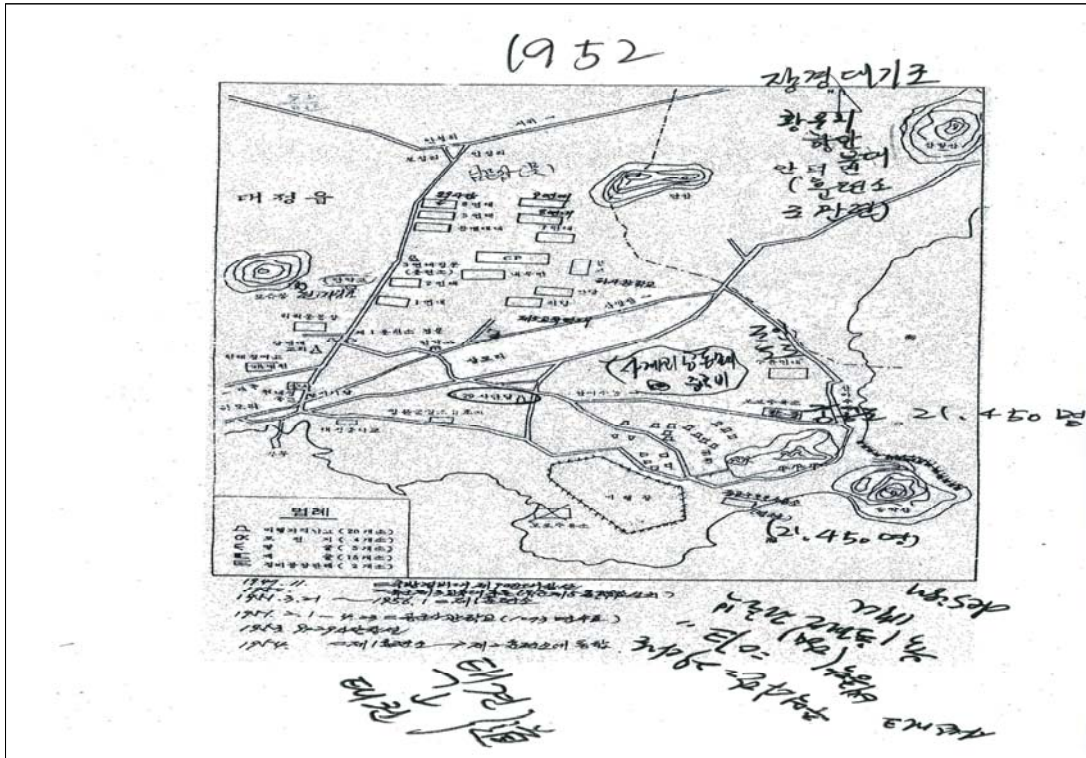


출처 : 2017년 6월 24일 자택에서 김광수 사진 제공

2) 사료를 통한 부대시설 규모와 위치

지금까지 사료를 통해 부대시설의 규모와 위치에 대해 설명된 사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사)대정현역사문예포럼 김웅철 이사장으로부터 한 장의 도면을 받아 볼 수 있었다. <그림 Ⅲ-1>은 1952년도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의 규모와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위에 다른 글씨체는 김웅철 이사장이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변화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림 III-1>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위치



출처 : 김용철 그림 제공

<그림 III-1>에서 보듯이 모슬봉을 중심으로 우측에 부대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슬포에서 인성리로 가는 도로에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정문이 위치하고 있고, 정문 좌측으로 위커훈련장, 강병대교회 그리고 아래 쪽으로 육군 98병원이 존재하고 있다. 정문 우측으로 1~9연대, 그리고 공병대까지 길게 늘어서 있고, 연대 막사와 천막을 둘러싸고 본부, 내무반, 식당, 강당, 창고 그리고 하사관 교육연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산이수동 끝자락에 수용연대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그림 III-1>에서는 숙영지, 수송대, 자동차운전병학교 등에 대한 위치가 설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숙영지의 위치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장소들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은 향후 조사 연구를 통해 점차 확인되어야 하겠지만 정확한 지도 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Ⅲ.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조사 분석

<사진 Ⅲ- 11> 산방산을 배경으로 한 수용연대 모습



출처 : 2017년 6월 24일 자택에서 김광수 사진 제공

IV. 1950년대 제주사회 변화

1. 6·25와 제주사회의 인구 변화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대정(大靜)면 모슬포를 중심으로 형성하기 시작한다. 모슬포는 “군사도시(軍都)”의 형태로 탈바꿈하여 갔다. 피난민들과 훈련병 가족들이 연일 몰려들어 대정면의 상주(常住) 인구는 무려 약 7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제주사회는 6·25전쟁의 발발과 육군 제1훈련소가 들어 오면서 급속한 인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 당시 제주도 인구는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6·25전쟁이 발발하고 낙동강 이남까지 북한군이 남하하면서 제주사회 인구는 급속히 변화하게 된다.

제주에서 피난민의 첫 행렬은 1950년 7월 16일 제주, 한림, 성산, 화순항 등을 통해 약 1만 명이 들어오면서 시작된다.⁶²⁾ 그리고 대량의 피난민 행렬은 1951년 1월 4일 중공군의 개입을 통한 유엔과 한국군의 후퇴와 함께 일어나고 있다. 1951년 1월 13일 제주에서는 피난민 주택난 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 때 제주도 동부지구에 군경가족과 피난민 약 2만 명을 수용하고 있었는데 이들로 인하여 주택난이 일어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1951년 5월 20일 제주도 집계에 의하면 피난민 수가 148,79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주도민의 3/4에 해당하는 인구가 증가한 양상이다. 피난민 수는 1951년 1월 3일까지 1만 6천여 명에 불과했으나 1월 15일에는 8만 7천여 명, 5월 20일에는 무려 14만 8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⁶³⁾ 결국 제주도는 급격히 불어난 피난민을 위한 주택 및 의식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또한 일시적으로 많은 인구가 불어나자 각종 질병들도 번지게 된다.

1951년 6월 6일 피난민들은 스스로 관덕정 광장에 모여 자신들에게 직결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난민 협회(회장 김활빈)를 결성하였다. 하지만 제주도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인구의 급작스런 변화로 인해 제

62) 염미경(2017), ‘산업화 시기의 제주 이주민 : 지역정착과 사회연결망’ 『제주 이주의 역사와 문화』, 2017년 (사)제주학회 45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93쪽.

63) 김아람(2017), ‘한국전쟁기 제주 피난과 이주, 그리고 정착’, 『제주 이주의 역사와 문화』, 2017년 (사)제주학회 45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73쪽.

주사회의 위기를 초래하기 시작한다. 특히 1952년 가을부터 다음해 봄까지 식량 절대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북제주군 지역에서만 약 3만 명이 끼니를 잇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로서 제주사회에서는 1953년 2월 10일 피난민 설화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제주읍 관덕정 광장에 약 2천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피난민대회에서 피난민들은 자신들에게 배당된 구호곡의 일부를 제주4·3 이재민들에게 돌린 것이 부당하다고 격렬히 항의하게 된다. 연사로 나선 김명수는 도의회 의장과 김○○의원을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발언으로 인해 도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게 된다. 결국 피난민대회준비 위원장을 맡은 도의회 김상흡 의원은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기로 결심하였다. 며칠 뒤 ‘원주민’과 피난민 대표의 간담회가 열려 “상호친목에 더욱 힘쓰자”고 결의하였고, 도의회(의장 전인홍)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게 된다. 구속된 김명수는 석방되고, 김상흡 의원의 사퇴서는 반려된다. 이 설화사건은 피난민들이 제주 토착민들을 경시하는 인식 때문에 일어났지만 그 바탕에는 4·3사건으로 인해 야기된 토착민과 외래인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⁶⁴⁾

전쟁이 끝난 후 1954년 7월 8일 피난민 약 8백 명이 귀향하면서 점차 제주도의 인구 변화는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1955년 기준으로 제주도 인구는 28만 8,806명을 기록하고 있어서 피난민 약 15만 명 중에 약 7만 명이 귀향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2.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창설에 따른 제주사회의 변화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제주사회에서 경제, 교육, 의료,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육군 제1훈련소 창설은 제주지역 주민들에게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피난민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수입원과 선진문화의 전수자 역할을 하였다. 기간사병과 훈련병들이 훈련소에서 몰래 가지고 나오는 군복, 내복, 양말 등의 군용 물품들을 시장으로 유통되면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육군 제1훈련소

64) 국방부(2008), 앞의 책, 45쪽.

는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의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사회 변화를 주도하게 된다.

우선, 제주에는 방송국이 최초로 설립되었다. 이에 대해 《제주시문화대전》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고 있다.⁶⁵⁾ “1950년 한국전쟁을 겪게 되자 후방 안전 기지인 제주에 방송 보루를 설립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졌다. 이러한 사회 불안 속에서 수시로 변하는 전황을 알려 북한군을 물리치려는 국민 의지를 결집시켜야 했고, 주민과 피난민들을 위문할 전파 매체가 필요하게 되면서 제주에 최초의 방송국이 개국되었다. 1950년 9월 10일 한국방송공사(KBS) 제주방송국 라디오 방송이 개국되었다. 시설과 인력이 빈약하고 출력도 50w정도로 학교 방송 규모였으나 전파 매체의 불모지 제주에 방송 문화의 첫 씨앗을 뿌렸다. KBS 제주방송국 라디오 방송은 제주시 이도2동 제주무선국 수신소 건물(60평)을 임대하여 간이 스튜디오를 만들고 호출 부호 HLKS, 주파수 1,080kHz, 출력 50w로 전파를 발사하여 남한에서 11번째 지방 방송국으로 개국하였다. 개국 당시 가청권은 제주시 중심 지역에 한정되었고, 라디오 보유 대수는 200여 대에 지나지 않았다.”⁶⁶⁾

다음으로 제주사회의 변화는 체육 분야에서 일어났다. “1951년 5월 13일 제1회 군·민 춘계종합대운동회가 범도민 체육대회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내 위커 연병장에서 열렸다. 6월 1일에는 YMCA 주최 제1회 전도축구대회가 열렸다. 이처럼 체육 열기가 무르익자 1951년 6월 15일 오현중학교 강당에 약 100여 명이 모여 제주도 체육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제주도 체육회는 제주도청 사회과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1951년 10월 14일에는 조천에서 전도국민학교 대항축구대회가 열렸다. (중략) 1952년 3월에는 3·1절 기념 제1회 전도남녀탁구대회가 창설되었다. 1951년에는 군·민 춘계종합대운동회가 제2회 군·민 합동체육대회로 이름을 바꿔 1952년 5월 24일부터 이틀간 군부대 소속 선수와 제주도내 중·고교 선수(약 1200여 명)가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렇게 체육 열기가 고조되면서 종목별 경기단체 결성이 추진되었다. “1952년 3월 20일 제주도 탁구협회(회장 강재량)가 발족되고,

65) 《제주시문화대전(<http://jeju.grandculture.net>)》.

66) 《제주시문화대전(<http://jeju.grandculture.net>)》의 방송 편을 참조하였다.

1953년 4월 17일 대한유도회 제주도지부(회장 김영진), 1953년 4월 20일 제주도 배구협회(회장 오병학) 등이 구성됐다. (중략) 광복 후 제주도에는 6·25 전쟁으로 인하여 엄청난 수의 피난민들과 1951년 모슬포에 세워진 육군 제1훈련소 군인을 중심으로 배구, 축구, 농구, 태권도, 송구(핸드볼), 야구, 기계체조 등이 활발하게 행해졌다는 것이다.”⁶⁷⁾

그리고 현대식 의료시설들이 들어서게 된다. “근대 공공의료 기관의 효시는 1912년 10월 일제가 식민지 민심 회유를 목적으로 제주목(濟州牧) 이아(吏衙) 터에 설립한 전라남도 제주자혜의원(도립제주의원의 전신)이다. 군병원으로는 식민지기 자혜의원과 제64 병참병원, 제96사단 예하의 야전병원 등이 있었고, 해방 후에는 한라산 무장대 지휘부의 ‘승패왓’ 이동 야전병원, 해군 제주 기지사령부 의무시설인 해군 제3병원(1952년 해군 제주병원으로 개칭), 육군 제1훈련소 직할 의무부(醫務部) 소속인 육군 98병원, 육군 36병원 소속 제주도장정구호병원 등이 있었다. 한국전쟁 때에는 피난민들을 위한 구호병원 4개소, 진료소 30개소 등이 세워지게 된다.”⁶⁸⁾

한국전쟁은 제주 음악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1951년 모슬포 제1훈련소에 군악(예)대가 조직되었고, 제주중학교 관악대가 확대되어 편성되었다. 이 시기에는 제주도 관악대 발전에 중요한 인물이 제주로 유입되었는데, 1952년 제주도 UN민간협력단체 부사령관으로 부임한 ‘길버트’(Charles E, Gilbert) 소령이 그 주인공이다. 길버트 소령은 당시 제주로 피난을 와 있던 한국보육원 관악대(지휘자 한경화)를 40인조에 달하는 정규 편성으로 키웠다. 경인지역 전쟁고아들이 수용돼 있던 곳(1950년 12월 중공군 침입에 따라 원생 907명이 제주로 피란, 1955년 11월 서울 휘경동으로 이전하였다.)으로, 길버트 소령 부임에 1년 앞서 1951년 미 공군 군사고문관 헤스 대령이 보육원에 소규모 관악대를 이미 창설해 둔 상태였다. 길버트 소령은 한국 보육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제주중학교 관악대, 제주농업고등학교 관악대, 경찰악대, 피란 기독교인들에 의해 조직된 구세군고적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오현고등학교에도 관악대 창설을 권하며 도움을 주었는데, 이에 오현고는 전교생 모금

67) 《제주시문화대전(<http://jeju.grandculture.net>)》의 탁구와 배구협회 편을 참조하였다.

68) 《제주시문화대전(<http://jeju.grandculture.net>)》의 의료기관 편을 참조하였다.

활동으로 악기를 구입하고 1952년 관악대(지휘자 고봉식)를 창설한다.⁶⁹⁾

마지막으로 전쟁고아를 위한 사회복지 시설을 제주도에 처음 설치하게 된다. 한국 보육원과 천사의 집은 제주4·3과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아들을 입소시켜 보호하고 양육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 시설이다.

3. 군 경험을 통한 제주사회 변화

신용준(훈련소 수용대 근무)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모슬포가 있는 대정읍 지역에는 훈련병과 기간사병, 그리고 피난민, 면회객 행렬 등까지 포함해 약 7만 명 이상이 상주하다보니 가뜩이나 물이 부족한 섬 지역에 마실 물조차 제대로 공급이 안됐다.”⁷⁰⁾ 이어서 신용준의 증언은 “솔직히 모든 것이 부족하였다. 모슬포 지역은 한마디로 군도(軍都)로 약 10만 명 정도가 생활하기도 하였다. 먹을 것이 부족했지만 지역 주민들이 주먹밥을 만들어 행군 훈련 때 전달하기도 했으며, 부인회 회원들은 훈련병들과 함께 빨래를 하며 이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격려하기도 하였다.”⁷¹⁾

대부분 훈련병들은 자유가 없어서 제주사회를 접할 수가 없었고, 제주 사람들과의 접촉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훈련병들은 제주도가 본토보다 생활환경이 미약했고, 자연환경도 훈련 받을 때 힘들 수밖에 없었음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물이 없고, 바람이 세고, 비가 많이 온다고 증언하고 있다. 박○필의 증언에 따르면 “그 당시 제주도는 함양군에 비해 도민 생활수준이 좋지 않아서 ‘못살봉’이라고도 하였다.” 정○상은 “제주 양민학살로 인해 여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양민들이 재배한 고추, 채소, 수박 등을 군인들이 가져가서 피해를 주었다. 마음의 여유가 없었지만 가끔 덕수리 민간인을 만나기도 했다”. 하○화의 증언에 따르면 “고구마를 캐 먹어도 욕을 안 해서 인심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 배가 고파서 개인 집에 갔는데 밥을 해 주어서 한 그릇을 얻어먹은 적이 있다. 남자는 일을 안 하고 여자들만 일을 한다. 주로 돼지를 키웠으며 쌀밥은 먹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의

69) 《제주시문화대전(<http://jeju.grandculture.net>)》의 음악 편을 참조하였다.

70) 국방부(2008), 앞의 책, 44쪽.

71) 국방부(2008), 앞의 책, 45쪽.

증언에 따르면 제주도민 생활이 어려웠으며, 여성들이 많았고, 인심이 좋았음을 밝히고 있다.

양○영의 증언을 보면 “훈련병들은 민간인 접촉을 할 수 없었고, 기간사병이 된 이후 교관과 조교로 생활하면서 시간이 생기면 민간인 집에 가서 고구마도 먹고 술도 마셨다. 훈련병들과 비교해서 기간사병들은 고급 생활을 하였다.” 정○수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은 “보급계 조수로서 쌀, 소금, 담배 등 보급품 장부를 정리했고, 쌀 한말을 팔아서 외출도 나갔다. 돈을 갖고 가서 배가 고프니까 빵도 사먹고 하였다.” 정○상은 “육군 98병원에 근무하면서 술을 담가서 내다 팔기도 하였다.” 결국 훈련병들은 제주에서 훈련을 받을 때 식량 부족을 호소하고 있지만 기간사병들은 제주사회와 근접하며 외출도 하고 장사도 하면서 넉넉하지도 않았지만 부족하지 않게 생활하였다고 판단된다.

노○상의 증언에 따르면 “훈련을 받고 나서 삶은 고구마나 말고기 꼬치를 파는 제주도 사람들이 있었다. 말고기 꼬치는 화폐 교환 전 가격으로 약 5천 원 정도하였다.” 최○언은 “학과장에 가서 돌아올 때 보면 고구마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돈을 퍼뜨 주고 사서 먹은 기억이 있다.” 송○윤은 “행군해서 훈련장으로 가는 도중 아줌마들이 삶은 고구마를 팔았다.” 정○상은 역시 “신병교육장에서 빵, 고구마 등을 팔았다.” 그리고 이○암은 “여자들이 고구마를 팔고 했는데 떨어진 고구마를 발로 뭉갤 정도로 인심이 독하였다. 제주도민 특히 제주여성들은 훈련병을 대상으로 고구마, 말고기, 빵 등을 파는 장사를 하였고, 이○민의 증언에서 “내복을 벗어주고 빵과 교환한 적이 있다.”고 표현했듯이 대체로 제주여성들이 음식을 팔았고 물물교환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신용준의 증언을 비교해 보면 94군번 송○윤은 “일요일에 바다로 세탁하러 갈 때 전부 단체생활이라 점심을 가지고 갔다.” 92군번 김○수는 “훈련 중에는 큰 못에 가서 빗물로 세탁을 하였다.” 결국 훈련병들은 세탁을 위해 큰 못이나 바다를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용준의 증언처럼 제주여성과의 만남에 대한 훈련병들의 증언은 들을 수가 없었다.

이 외에도 허○화는 “휴전 후 경찰, 민간인 등과 합동체육대회(씨름, 달리기 등)를 개최하였다.” 또한 서○석도 “휴전 후 연대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전쟁시기와 휴전 후 육군 제1훈련소의 면모가 바뀌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지인의 시각으로 1950년대 제주사회는 자신들의 생활하던 경상남도 함양군에 비해 살기 어려웠던 지역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며, 특히 여성이 많은 지역으로 여성들에게 의한 경제활동이 인상적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제주도민의 인심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는 증언을 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해 경상남도 함양군을 중심으로 구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구술조사이다. 이는 고고학 분야와 같이 지하에 묻혀있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느낌을 들게 하는 의미에서 진행되었다. 그래서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한국 근현대사에 주요한 역사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묻혀있는 문화재와 유사하여 제주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으로 느껴진다. 제주사회에서 조차 아시아 최대의 신병훈련소이며, 한국 최초의 신병훈련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다양한 조사가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둘째, 육군 제1훈련소 소장들의 임무, 훈련병들의 강제소집 및 징집되는 상황, 육지에서 육군 제1훈련소로 이동하는 입대경로, 신병훈련소 생활, 제주사회에 대한 인식과 느낌 등을 파악하였다. 특히 다양한 증언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동일한 응대를 하는 객관성을 추출할 수 있었다.

셋째, 훈련기간, 식사, 식수, 질병 등에 대해 공통적인 증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훈련기간은 16주였지만 전쟁이 급박할 경우 한 달도 채 훈련을 받지 못하고 전장으로 나가야만 하였다. 의식주 생활 중 가장 어려웠던 것은 식수와 식사였고, 특히 지역적 환경에 의해 식수가 모자라서 힘이 들었다. 신병훈련소와 하사관 교육연대에서도 식사량 부족과 훈련소를 퇴소할 때 ‘마른명태’가 나온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또한 훈련소에서 장교와 기간사병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훈련병들의 식사량 부족도 이들의 소행에 의한 것이고, 구타와 착취가 많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훈련소에서 생활할 때 이가 많아서 고생했고, 설사, 눈병, 열사병 등의 질병이 만연했으며,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비밀스럽게 처리했다는 증언들도 있었다.

넷째, 신병훈련소 생활에 대한 증언에 비해 훈련소 규모와 시설에 대한 증언을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적었다. 우선 훈련병들은 자신이 훈련을 받았던

시설과 규모만을 기억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훈련소 규모와 시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억력이 감퇴하여 제대로 증언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기억력으로 자세하게 증언을 하는 조사대상자들도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증언을 통해 어느 정도 훈련소 막사 및 천막의 위치 그리고 훈련장 및 숙영지에 대한 위치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다섯째, 육군 제1훈련소 창설을 통해 제주사회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인구의 증가, 모슬포의 군사도시화, 경제규모의 증대, 문화와 체육, 그리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제주사회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여섯째,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기간사병 및 신병들의 사진과 제대증의 사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앞으로 확보된 사진들은 육군 제1훈련소의 아카이브구축 혹은 역사사진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일곱째,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구술조사가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경남 함양군을 중심으로 구술조사를 진행했으나 매해 6·25참전 유공자의 20% 정도가 사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어 10년 이내에 구술채록 조사대상자가 현격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구술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구술조사도 몇 해 안에 진행되어야만 한다.

여덟째,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지도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 그 당시 훈련소는 일본군 전적지를 이용해서 훈련소를 구축했고, 대부분 일시적으로 건축물과 시설을 만들어 이용했는데 훈련소 폐쇄와 함께 모두 사라져버렸다. 따라서 앞으로 훈련소 내 정확한 훈련장 위치, 각 연대 천막과 막사 등의 지도 체계를 완성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사진 및 구술조사를 통한 위치 추적과 다양한 기술을 통한 지도 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아홉째,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문화재 등록에 대한 빠른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해병대 지휘소와 강병대교회만이 등록문화재로 등재되었고, 훈련소 모습을 간직한 훈련소 정문은 등록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훈련장, 막사, 숙영지 등에 대해 확인된 장소를 중심으로 보존과 복원을 위한 제주도 문화 정책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을 통해 평화교육의 장이며, 인문학적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조사의 문제점

6·25참전유공자회 회원명부는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주요한 기초자료가 되었지만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첫째, 함양군 지역의 면적이 넓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술 조사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또한 함양군 대부분 지역이 지리산 산간지역을 형성하고 있어서 교통의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였다. 특히 산비탈 경사가 높아 교통이 불편했으며, 지리산 자락에서 대상자의 주소를 찾기가 어려웠다.

둘째, 함양군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5월과 6월은 농사철로 조사대상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구술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아 성과 없이 발길을 돌리기가 일쑤였다. 따라서 6·25참전유공자회 함양군지회의 도움으로 안의면에서 6명을 면담할 수 있었고, 또한 함양군 6·25전쟁 제67주년 기념 군민대회에 참석하여 6·25참전유공자 함양읍분회장의 도움으로 4명을 조사하게 되었다.

셋째, 조사대상자 선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대상자들의 연령에 따른 다양한 신체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많은 조사대상자들은 노후에 따른 난청과 기억상실에 곤란을 경험하고 있어서 면담이 불가능하거나 주요한 내용에 대해 전달을 받을 수 없었다. 이와 더불어 와병에 있는 조사대상자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출생년도가 1927년부터 1933년까지를 감안하면 1927년생은 90세이고 1933년생은 84세에 이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 대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내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이번 조사에서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서 근무했던 장교에 대한 증언을 채록하지 못하였다. 훈련소장을 역임한 핵심 장성들은 이미 사망하였고, 일반장교들에 대한 증언을 희망하였지만 경상남도 함양군에는 장교 출신이 없었다. 하지만 경상남도 거창에는 장교 출신이 생존해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다음 구술조사가 진행된다면 장교를 통한 증언이 기대된다.

3. 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조사 및 복원 그리고 활용방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정문에 대한 근대문화유산 추진 계획 수립과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 지역은 군사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는 장소이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모슬포지역에 평화대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었다. 계획 수립 당시 주요한 논쟁거리는 평화대공원의 중심에 일제강점기 군사유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일본군에 의해 구축된 군사유적만으로 평화대공원 수립에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하지만 모슬포 지역에는 일본 군사유적보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가 더욱 중요한 한국의 근대문화유산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신병훈련소이며, 한국에서 최초로 거대 훈련소로서 ‘제1’의 타이틀(title)을 지니고 있다. 평화대공원 설립은 우선 제주 육군 제1훈련소를 필두로 하여 일제 전적지 그리고 제주4·3 유적지를 종합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이로서 한국 및 제주의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대공원의 의미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모슬포 지역 근대문화유산을 파악하여 보면 제주 육군 제1훈련소보다 일본군 전적지의 등재 수가 많다. 2017년 근대문화유산 제정이 확정되어 있는 육군 98병원을 포함하여 육군 제1훈련소에서 3개의 부대시설(강병대교회 등록문화재 제38호,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 등록문화재 제409호)에 불과하다. 특히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대표 문화재로 뽑힐 수 있는 정문이 근대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다른 등록문화재보다 먼저 정문이 등록문화재로 등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시급히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정문이 등록문화재로 등재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등재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주도 문화 정책적 시각에서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많은 등록문화재로의 등재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복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유적지는 훼손되고 파괴되어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우선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규모와 위치에 대한 지도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복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문화 정책적 차원에서 복원 계획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번 조사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서 생활했던 증언자들이 기억하는 사항들을 확인하고 문화재 복원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현재 시점에서 제주도민 및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참가자들의 기억에 의존한 문화재 복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문화 정책적 차원에서 제주도민과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참여자들에 대한 기억을 확보하는 조

사에 매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조사대상자들의 기억이 사라질 것이고, 이들 기억이 사라진 후 복원 계획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셋째,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즉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문화재 활용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육군 제1훈련소는 문화재 활용의 가능성이 높은 장소이다. 우선 한국군 전적지로서 제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전쟁의 실상을 교육할 수 있는 장소이며, 당시 신병들이 훈련을 받았던 장소에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아시아 최고의 신병훈련소였다는 점에서 세계 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는 세계 관광장소로서 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결국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근대문화유산 등재 및 복원과 함께 문화재 자원의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하려는 계획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등록문화재 등재와 복원을 통한 활용 방안은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문화재로서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 최초이며 아시아의 최고인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앞으로 국가문화유산 사적지로서의 요인을 충분히 지니고 있으며, 1950년대 당시의 훈련소가 복원이 된다면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가능성도 논의할 수 있다.

<사진 V-1> 경상남도 함양군 6·25와 베트남전 참전 기념탑



출처 : 2017년 5월 30일 참전 기념탑에서 연구자 사진 촬영

< 참고문헌 >

■ 논문/단행본

- 국방군사연구소, 1994, 『국방사년표 1945~1990』 .
- 국방부, 1954, 『국방부사』 제1집.
- 국방부, 1967, 『한국전쟁사』 제1권.
- 국방부, 1992, 『국방조직변천사』 .
- 국방부, 2008, 『국방저널』 7월호 42~51.
- 김아람, 2017, ‘한국전쟁기 제주 피난과 이주, 그리고 정착’, 『제주 이주의 역사와 문화』 , 2017년 (사)제주학회 45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 김웅철 편저, 2006, 『역사사진자료집 : 强兵臺(陸軍第1訓練所)- 그리고 募瑟浦』 , 남제주문화원
- 남제주군, 2005, 『모슬포 전쟁유적지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
- 박윤식, 2012,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 3 여수 14연대 반란-여수 순천 사건』 , 휘선.
- 백선엽, 2011, 『내가 물러서면 나를 쫓아- 1128일의 기억』 제3권, 중앙일보.
- 백인엽, 2008, ‘전쟁 능력 갖춰야 진정한 군인이다’, 『국방저널』 47~50.
- 염미경, 2017, ‘산업화 시기의 제주 이주민 : 지역정착과 사회연결망’ 『제주 이주의 역사와 문화』 , 2017년 (사)제주학회 45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 육군본부, 1956, 『6·25사변 국방전사(인사편)』 .
- 육군본부, 1970, 『육군발전사』 .
- 제주특별자치도, 2008,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 .
- 《제주신보》 1950년~1956년.
- 프란체스카 도너 리, 2010, 『6·25와 이승만-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 기과랑.
- 6·25참전유공자회 함양군지회, 2014, 『6·25참전유공자 명부』 .

■ 홈페이지 및 웹페이지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제주시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

서귀포문화대전 <http://seogwipo.grandculture.net>

경상남도 함양군청 홈페이지 <http://www.hygn.go.kr>

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

전쟁기념관, 2004 <http://www.warmemo.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http://blog.daum.net/koreanmarinecorps>

■ 신문기사

《중앙일보》 2010.11.09.

《제주도민일보》 2011.09.13.

부록

분야별 전문가 회의록

제목 :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조사- 경상남도 함양을 중심으로

일시 : 2017년 9월 28일(목) 13:00 ~ 15:00

장소 : (사)대정현역사문예포럼 사무실

토론자 : 김웅철(사단법인 대정현역사문예포럼 이사장) 정광중(제주대학교 교수)

참석자 : 고광명, 황석규, 송훈, 이광우(전 KBS 부장)

토론 내용

1. 김웅철

- 육군 제1훈련소 신병과 기간사병에 대한 계량화(수치) 가능성에 대해 주의 경고○ 5년 동안 50만 명, 가장 신병이 많을 때 10만 명. 정확한 수치 계산이 되지 않고, 신병 기록도 현재 오리무중임
- 육군 제1훈련소와 11사단은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 더 나아가 제주와 11사단은 근대사와 많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
- 등록문화재 등록에 주목해야 함. 현재 해병대 지휘소, 강병대교회 그리고 98병원이 등록되었지만 빠른 시일에 훈련소 정문과 충혼비가 등록되어야 함

2. 정광중

- 역사 탐색 및 연구가 되기 위해선 GPS-System을 이용한 치밀한 지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홍보가 전혀 되어있지 않음. 제주도민이 한국 최초의 육군훈련소가 제주에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음.
- 지금까지 모슬포지역 연구조사는 일본군 전적지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평화대공원 계획 수립 시에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비중이 높아져야 함.

3. 연구원

- 이번의 구술조사는 경남 함양군을 중심으로 하였지만 다음에는 전라도 지역과 제주도 지역의 구술조사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어야 함을 깨달음.
-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연구는 지금 시작이고, 등록문화재를 계속적으로 등재시켜 한국 문화역사 사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및 조사가 진행되어야 함.

전문가 워크숍 회의록

제목 :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조사 세미나

일시 : 2017년 8월 31일(목) 15:00 ~ 18:00

장소 : (사)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 교육실

토론자 : 김웅철(사단법인 대정현역사문예포럼 이사장)

김종민(전 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

참석자 : 도내 전문가 및 시민 13인

토론 내용

1.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조사-경상남도 함양군을 중심으로- 발표자 고광명(연구책임)

2. 토론자 1 : 김웅철(사단법인 대정현역사문예포럼 이사장)

○ 신용준 선생 증언 주요 내용 : 수용대 기간사병으로 많은 체험들에 대해 전달함. 2008년 4월 국방저널 인터뷰가 가능할 수 있었음.

○ 구술조사가 힘들고 어렵게 진행됨을 알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전국 광역에 걸쳐 진행되어야 함.

○ 특히 제주도에서 훈련소와 연관을 맺고 있는 조사대상자가 점차 어려움에 처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구술조사가 진행되어야 함.

○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이 중요하며, 나는 사진을 중심으로 훈련소의 근대사를 조명하고 있다면, (사)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은 기록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길 희망함.

3. 토론자 2 : 김종민(전 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

○ 역사적 사실을 조사하다보면 항상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함. 육군 제1훈련소가 제주사회에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석하길 요구함.

○ 역사는 단절되지 않고 지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일본군 유산을 재조명하고, 어떠한 점이 있는지가 궁금함.

○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구술조사도 중요 하지만 고고학처럼 무기와 장소들을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음.

4. 워크숍 참가 시민 토론

○ 중학교 교감 : 학생들에게 육군 제1훈련소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재 보존과 복원의 정도는 어떠한가?

구술조사 질문지

증언자 정보	이름		생년월일	
	계급		군번	
	입대일		전역일	
	출신지		학력	
	직업		결혼	
	주소			
훈련소 입소 전 상황	1. 입대 동기 2. 입대 경로 3. 기타			
훈련소 규모	1. 훈련장 위치 및 범위 2. 부대시설 위치 및 규모 3. 기타(훈련병 수 등)			
훈련소 생활	1. 소속 2. 숙소 및 훈련 숙영지 3. 교육훈련 4. 훈련기간 5. 식사 및 피복 6. 면회(횟수 등) 7. 기억나는 훈련 및 교관 8. 기타			
훈련소 퇴소 후 상황	1. 자대배치 이동 경로 2. 전선배치 지역 및 참가한 전투 3. 소속 및 부대배치 4. 기타			
제주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상				
기타				
일시·장소				
조사자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채록 응답자 특성(1)

대상	나이	출생년도	계급	군번 유형	입대일	전역일
김 ○ 수	22세	1930	상병	92	1952.12	1955.10
최 ○ 언	22세	1930	하사	92	1952.12	1957. 4
박 ○ 필	22세	1930	상병	92	1952.12	1955. 9
정 ○ 수	22세	1930	상병	94	1953. 7	1956.11
하 ○	20세	1931	병장	88	1952. 5	1956.12
진 ○ 권	22세	1930	하사	92	1952.12	1957. 6
조 ○ 완	24세	1927	상사	92	1952. 8	1957. 4
강 ○ 원	17세	1931	대위	21	1948. 7	1956. 5
양 ○ 영	23세	1929	하사	92	1952. 8	1957. 4
김 ○ 태	21세	1931	하사	92	1952.12	1957. 4
정 ○ 상	20세	1932	중사	92	1952.12	1957. 4
김 ○ 민	21세	1931	일병	92	1953. 7	1955. 3
김 ○ 복	21세	1931	하사	92	1952.12	1955. 1
박 ○ 규	22세	1929	하사	06	1951.12	1955. 3
하 ○ 화	21세	1933	상병	10	1954.12	1958.12
노 ○ 상	20세	1932	하사	92	1952. 7	1957. 9
노 ○ 현	22세	1930	상병	92	1952.12	1956.11
김 ○ 상	19세	1933	병장	94	1952. 7	1957. 1
김 ○ 종	19세	1933	병장	94	1952. 7	1953. 7
조 ○ 래	20세	1931	상병	88	1952. 6	1955. 6
송 ○ 윤	20세	1933	상병	94	1953. 7	1957.10
이 ○ 암	20세	1933	병장	94	1953. 7	1957.11
이 ○ 민	21세	1931	하사	88	1952. 5	1956.12
조 ○ 제	22세	1929	이병	06	1951.12	1956.10
허 ○ 오	21세	1931	중사	92	1952.12	1957. 4
김 ○ 철	20세	1932	하사	92	1952.11	1957. 4
김 ○ 동	20세	1932	하사	92	1952.12	1957. 4
김 ○ 호	20세	1929	하사	92	1950. 8	1957. 4
서 ○ 석	22세	1931	병장	94	1953. 7	1956.11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채록 응답자 특성(2)

대상	출신지	학력	직업	결혼	입대 동기	입대 경로
김 ○ 수	안의면	중졸	교사	미혼	강제징집	I 유형
최 ○ 언	안의면	중졸	농사	미혼	강제징집	I 유형
박 ○ 필	안의면	무학	농사	미혼	강제징집	I 유형
정 ○ 수	안의면	무학	농사	기혼	강제징집	I 유형
하 ○	안의면	무학	농사	미혼	강제소집	IV유형
진 ○ 권	안의면	무학	농사	미혼	강제징집	I 유형
조 ○ 완	함양읍	초졸	농사	미혼	강제징집	I 유형
강 ○ 원	안의면	미확인	미확인	미확인	강제소집	기타
양 ○ 영	함양읍	초등 중퇴	농사	미혼	강제징집	I 유형
김 ○ 태	휴천면	미확인	농사	미확인	강제징집	I 유형
정 ○ 상	휴천면	중학 재학	농사	미혼	강제징집	I 유형
김 ○ 민	휴천면	미확인	미확인	미확인	강제징집	I 유형
김 ○ 복	휴천면	미확인	농사	기혼	강제징집	I 유형
박 ○ 규	수동면	중학 중퇴	공무원	미혼	강제소집	III유형
하 ○ 화	백전면	무학	농사	기혼	강제징집	I 유형
노 ○ 상	함양읍	초졸	농사	미혼	강제징집	II유형
노 ○ 현	함양읍	간이학교	농사	기혼	강제징집	II유형
김 ○ 상	함양읍	초졸	농사	미혼	강제징집	I 유형
김 ○ 종	함양읍	미확인	농사	미혼	강제징집	I 유형
조 ○ 래	서상면	초졸	농사	기혼	강제징집	IV유형
송 ○ 윤	서하면	한문서당	농사	미혼	강제징집	I 유형
이 ○ 암	백전면	초졸	농사	미혼	강제징집	I 유형
이 ○ 민	백전면	무학	농사	기혼	강제소집	IV유형
조 ○ 제	지곡면	한문서당	농사	기혼	강제소집	III유형
허 ○ 오	지곡면	무학	농사	기혼	강제징집	I 유형
김 ○ 철	지곡면	중학 재학	농사	미혼	강제징집	I 유형
김 ○ 동	지곡면	미확인	농사	미확인	강제징집	I 유형
김 ○ 호	병곡면	중학 중퇴	농사	기혼	강제징집	I 유형
서 ○ 석	유림면	초졸	농사	기혼	강제징집	I 유형

주 : 입대 경로는 I 유형(함양➡진주➡포항➡제주), II유형(함양➡부산➡포항➡제주), III 유형(함양➡진주➡부산➡제주), IV유형(함양➡부산➡제주)으로 구분함.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채록 조사카드

증언자 정보 (1)	이름	김 ○ 수	생년월일	1930. 7. 29
	계급	상병	군번	9267775
	입대일	1952년 12월 5일	전역일	1955년 10월 23일
	출신지	함양군 안의면	학력	중학교 졸업
	직업	교사	결혼	미혼
	주소	경상북도 함양군 안의면 이진리		
훈련소 입소 전 상황	<p>1. 입대 동기 : 강제징집 1952년 12월 화순 병무청에서 영장을 받고 징집 1기생으로 왔는데 그 당시 서산, 지곡, 안의면 등에서 약 300여 명이 입대했음. 면장 앞에서 안의면 대표로 출장 선서를 낭독했음.</p> <p>2. 입대 경로 : 함양➡진주➡포항➡제주 진주 중앙국민학교 교실에 모아놓고 주먹밥을 제공했으며, 밤새도록 화물열차를 타고 포항에 간 다음 제주도로 이동했음. 대기 중에 주먹밥을 주면 큰 것은 먹고 작은 것은 돌려보낸 적이 있음. 배(LST)에는 약 1,200여 명이 탔으며 36시간 걸려 제주도 대정읍 안덕면 산방산 근처 화순항에 도착했는데 수용연대가 있는 사계리까지 행군해서 갔음.</p> <p>3. 기타 : 안의중학교를 졸업한 후 교원 양성소(13기)를 수료하여 교사 생활을 하다가 군에 입대했으며, 제대 후 교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했음.</p>			
훈련소 규모	<p>1. 훈련장 위치 및 범위 : 모슬포 시내에서 조금 올라가면 대정리 모슬봉 앞에 훈련소가 있었음.</p> <p>2. 부대시설 위치 및 규모 : 훈련소 안쪽에 중대본부가 있었고 산방산 쪽에 사격장 등 학과장이 있었음.</p> <p>3. 기타(훈련병 수 등) : 소집되어 온 훈련병들이 천막 안에 대기하고 있으면 차출되어 갔음. 그 당시 전방이 급해서 수용연대(1~9연대)에는 하루 약 700명씩 입소했는데 사실상 제주도가 군 사령부 역할을 했음.</p>			
훈련소 생활	<p>1. 소속 : 8연대 148중대 중대에는 거창, 부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며, 향도를 했음. 본부중대에서 근무하는 병기계, 보급계, 서무계, 의무계 등은 훈련병 중에서 차출되어 왔는데 그런 사람은 혜택을 많이 보았음. 보급계는 창고를 지키고 보급품을 관리했음. 서무계는 일등병, 하사, 중사 등 기간사병들에게 휴가를 보내주거나 진급사병(훈련병에서 일등병으로)에게 월급을 주는 역할도 했음. 훈련병들의 입소를 비롯하여 훈련병 생활, 퇴소 등 전반적인 병무 일을 담당했음.</p> <p>2. 숙소 및 숙영지 : 사계리 한라산 중턱에는 제1, 2, 3숙영지가 있었음. 몇 십 명이 둘로 담을 쌓아서 만든 학과장에서 훈련을 받았음. 산에 있는 숙영지로 갈 때는 행군을 했는데 그곳에서 잠을 잤음.</p>			

<p>훈련소 생활</p>	<p>3. 교육훈련 : 박격포를 쏘는 학과장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훈련을 받은 기억이 있음. 하루 8시간 교육을 받았는데 오전과 오후 4시간씩 훈련을 받았음. 비가 오면 훈련을 취소해서 철수했다가 다시 훈련을 받았음.</p> <p>사격 후에는 총 수리를 했는데 잘 못하면 기합을 받았으며, M1 소총을 입에 물리는 기합을 받은 적도 있음. 모슬포 앞바다 하모리에 있는 중공군 포로수용소에서 중공군 방공 훈련을 했음.</p> <p>4. 훈련기간 : 96일 동안 훈련을 받았음.</p> <p>5. 식사 및 피복(전투복 등) : 배가 고프니까 식사 당변을 한다고 해서 취사장에서 누룽지를 훑쳐 먹은 기억이 있음. 훈련병 때 세탁물은 큰 못에 가서 빗물로 세탁했음. 훈련소에서 80일이 되면 거의 먹지 못해서 마른 명태가 되었음. 병사들에게는 건빵, 담배(화랑담배) 등 배급이 나왔는데 특히 담배가 나오면 기간사병들이 트집을 잡아서 뺏고 가져갔음.</p> <p>6. 면회(윗수 등)</p> <p>7. 기억나는 훈련 및 교관 : 숙영지에서는 교관, 조교 등 기간사병들과 함께 생활했는데 1953년 1월 1일 설날(양력)을 숙영지에서 보낸 기억이 있음. 그 당시 M1 소총이 없으면 모르게 훑쳐갔는데 하루는 숙영지에서 밤에 보조서고 있을 때 특공대를 조직해서 살며시 가서 총 한 자루를 훑쳐간 기억이 있음. 보급품(방아쇠 뭉치)을 다 채운 다음 나머지는 밭에 던졌음.</p> <p>8. 기타 : 기간사병들 중에 거창군 출신들(임○○ 중대장)이 많아서 함양군에서 간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보았음. 안의면 출신(6명) 중 2명은 제주도 수용대와 통신대에서 근무했으며, 4명은 전방으로 갔는데 그 당시 전방에 가면 죽는 경우가 많았음.</p>
<p>훈련소 퇴소 후 상황</p>	<p>1. 자대배치 이동 경로 : 제주▶제주(모슬포)</p> <p>2. 전선배치 지역 및 참가한 전투</p> <p>3. 소속 및 부대배치 : 육군 제1훈련소 수용연대 서무계 근무</p> <p>4. 기타</p>
<p>제주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상</p>	<p>훈련병들은 자유가 없었으며 제주도 사람을 만난 적이 없음.</p>
<p>기타</p>	<p>94군번은 국가유공자 혜택을 많이 보았음. 그 당시 군대는 두드려 패고 해서 민주 군대가 아닌 개판이었음.</p>
<p>일시·장소</p>	<p>2017년 5월 29일(월) 11:00~13:00 안의면 6·25참전용사 사랑방</p>
<p>조사자</p>	<p>황 석 규, 고 광 명, 송 훈</p>

증언자 정보 (2)	이름	최 ○ 언	생년월일	1930. 11. 20
	계급	하사	군번	9269078
	입대일	1952년 12월 7일	전역일	1957년 4월 25일
	출신지	함양군 안의면	학력	중학교 졸업
	직업	농사	결혼	미혼
	주소	경상북도 함양군 안의면 이천리		
훈련소 입소 전 상황	1. 입대 동기 : 강제징집 1952년 징집 1기생으로 입대했음. 안의면(36개 부락)에서 약 120명이 입대했는데 현재 30명 정도 생존해 있음. 사망자들 중에는 충혼묘지에 간 사람도 있고 가지 않은 사람도 있음. 2. 입대 경로 : 함양➡진주➡포항➡제주 전국에서 온 장병들을 포항에 모아놓고 기다리다가 군번을 받았음. 3. 기타			
훈련소 규모	1. 훈련장 위치 및 범위 : 훈련소에는 1연대에서 9연대까지 있었는데 1~2연대는 천막막사, 8~9연대는 큰 집을 지은 천막막사가 있었음. 2. 부대시설 위치 및 규모 : 모슬포 시내에서 조그마한 산 옆에 연대별로 만들어진 훈련병 시설들이 있었음. 3. 기타(훈련병 수 등) : 1개 중대가 약 350명인데 하루에 입소한 사람이 약 700명(2개 중대)으로 추정됨.			
훈련소 생활	1. 소속 : 9연대 183중대 1소대 2. 숙소 및 숙영지 : 숙영지에서 식사할 때 반합에 배급을 받아서 먹었던 기억이 있음. 3. 교육훈련 : 산비탈에서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있음. 4. 훈련기간 : 96일 동안 훈련을 다 받고 출소해야 되는데 부친이 중대장을 만난 적이 있음. 부친이 하사관 교육연대에 가라고 해서 8번 불러간 적이 있음. 그 당시 훈련을 받아 일선으로 가면 죽었음. 하사관 교육연대(1~4과)에 가면 하사가 되는데 약 250명~350명 정도 입소했음. 5. 식사 및 피복(전투복 등) : 교관들은 아침, 점심을 훈련소에서 먹고 출퇴근을 했음. 배급량은 하루 6홉(보리쌀 4되)인데 남아서 모아둔 쌀을 주면 사모님들이 가져가서 먹었음. 상사 이상은 영외 거주하는데 쌀 1말을 갖고 가면 나머지는 다른 기간사병들끼리 나누어서 먹었음. 한 딱가리한 후 두 사람을 갈라놓고 밥, 국을 나누어서 주는데 두 번 먹으면 다 없어졌음. 반찬으로 소금 국물이 나왔는데 사회에서 밥을 많이 먹던 사람들은 굶어 죽었음. 고추장, 된장, 콩나물, 김치 등이 있어도 제대로 배급되지 않았음. 6. 면회(횃수 등)			

	<p>7. 기억나는 훈련 및 교관 : 6홉(보리쌀 5홉과 쌀 1홉)으로 밥을 지어서 주었는데 배가 고팠던 기억이 있음. 훈련소에서 빵을 팔았는데 그것을 사서 먹었던 기억이 있음. 학과장에 가면 고구마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돈을 퍼뜩 주고 사서 먹은 기억이 있음.</p> <p>8. 기타 : 기간사병들이 모포를 다 가져갔으며 나쁜 짓을 많이 했음. 만일 모포가 없어지면 돈을 거두어서 모포를 채워 놓아야 했으며, 이 외에도 못살게 해서 죽을 지경이었음. 또 병기(총)가 없어지면 두들겨 패서 총을 사오라고 했음.</p>
훈련소 퇴소 후 상황	<p>1. 자대배치 이동 경로 : 제주▶제주지역(제주, 중문, 한림 등)</p> <p>2. 전선배치 지역 및 참가한 전투</p> <p>3. 소속 및 부대배치 : 8연대 148중대 통신대 근무 제주읍, 중문면, 한림면 등 통신대에서 3년 동안 파견 근무했음. 보급계 조수를 했는데 1주일에 한 번 정도 훈련소에 배급을 타러갔음.</p> <p>4. 기타 : 당시 통신부장(중령)이 주소, 군번 등의 쓴 글씨를 보고 통신병으로 차출됐음.</p>
제주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상	<p>훈련병들은 자유가 없었으며 제주도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음. 제주4·3 때 집단적으로 쏘아 죽여서(학살) 남자(60세 이하)들이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그 당시 훈련소 중대본부 인사계는 제주도 출신이었음.</p>
기타	<p>제대 후 소금, 비료 등과 관련된 사업을 했음.</p>
일시·장소	<p>2017년 5월 29일(월) 11:00~13:00 안의면 6·25참전용사 사랑방</p>
조사자	<p>황 석 규, 고 광 명, 송 훈</p>

증언자 정보 (3)	이름	박 ○ 궐	생년월일	1930. 9. 5
	계급	상병	군번	9268481
	입대일	1952년 12월 5일	전역일	1955년 9월 16일
	출신지	함양군 안의면	학력	무학
	직업	농사	결혼	미혼
	주소	경상북도 함양군 안의면 당본리		
훈련소 입소 전 상황	1. 입대 동기 : 강제징집 그 당시 3분의 1은 군에 가서 사망했기 때문에 살아서 돌아간다는 생각을 안 했음. 2. 입대 경로 : 함양➡진주➡포항➡제주 3. 기타			
훈련소 규모	1. 훈련장 위치 및 범위 2. 부대시설 위치 및 규모 3. 기타(훈련병 수 등)			
훈련소 생활	1. 소속 : 3연대 74중대 8소대 2. 숙소 및 숙영지 : 숙영지에는 움막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잠을 잤음. 숙영지는 전부 천막집으로 만들어져 있었음. 3. 교육훈련 : 3시간 훈련을 받은 후 밥을 타러 갔음. 4. 훈련기간 : 96일 5. 식사 및 피복(전투복 등) 6. 면회(횟수 등) 7. 기억나는 훈련 및 교관 8. 기타			
훈련소 퇴소 후 상황	1. 자대배치 이동 경로 : 제주➡강원도 2. 전선배치 지역 및 참가한 전투 : 938고지 전투 검문소를 지나고 938고지로 올라가는데 죽어서 나간 사람들을 많이 목격했음. 3. 소속 및 부대배치 4. 기타			
제주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상	제주도는 함양군에 비해 도민 생활수준이 좋지 않아서 ‘못살봉’이라고도 했음.			
기타	그 당시 안의면에서 입대한 사람들 중에는 전부 전방으로 가지 않았고 수용대, 통신대 등에서 근무한 사람도 있었음.			
일시·장소	2017년 5월 29일(월) 11:00~13:00 안의면 6·25참전용사 사랑방			
조사자	황 석 규, 고 광 명, 송 훈			

증언자 정보 (4)	이름	정 ○ 수	생년월일	1930. 12. 25
	계급	상병	군번	9458603
	입대일	1953년 7월 1일	전역일	1956년 11월 5일
	출신지	함양군 안의면	학력	무학
	직업	농사	결혼	기혼
	주소	경상북도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훈련소 입소 전 상황	1. 입대 동기 : 강제징집 23세 때 결혼해서 1년 후 1953년에 입대했음. 3대 독자라서 보류되어 연기신청을 하여 5월경 징집영장을 받고 군에 갔음. 3대 독자인 경우에는 면제를 시켜 주었는데 6·25 이후에는 3대, 4대 독자 할 것 없이 젊은 사람들은 다 잡아갔음. 2. 입대 경로 : 함양➡진주➡포항➡제주 3. 기타 : 당시 3분의 1은 군에 가서 사망했기 때문에 살아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음.			
훈련소 규모	1. 훈련장 위치 및 범위 2. 부대시설 위치 및 규모 3. 기타(훈련병 수 등)			
훈련소 생활	1. 소속 : 9연대 192중대 2소대 보급계 조수는 쌀, 소금, 담배 등 보급품 장부를 정리했음. 2. 숙소 및 숙영지 3. 교육훈련 : 모슬포 연병장에서 총검술 훈련 등을 받았음. 밀려서 늦게 군번을 받았는데 훈련을 받는 도중 휴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훈련을 마치고 12월 말에 나오는데 제주도에서 마른 명태가 나온다고 했음. 4. 훈련기간 : 96일 5. 식사 및 피복(전투복 등) : 그 당시 쌀 한말을 팔아야 외출을 나갈 수 있었음. 배가 고파서 돈을 갖고 가서 빵도 사먹고 했음. 6. 면회(횃수 등) 7. 기억나는 훈련 및 교관 8. 기타 : 그 당시 다쳐서 병신이 되어야 집에 간다고 했음. 모자 1개에 10원 정도 했음.			
훈련소 퇴소 후 상황	1. 차대배치 이동 경로 : 제주➡강원도(속초, 화천) 2. 전선배치 지역 및 참가한 전투 : 938고지 전투에 참가했으며 화천에서 휴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음. 3. 소속 및 부대배치 : 전방 7사단 3연대 3대대 2소대 4. 기타 : 추워서 죽은 경우도 있었으며, 배가 고프면서도 전투했다고 함.			
제주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상	훈련병들은 자유가 없었으며 제주도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음.			
기타	제대 후 양복점 경영			
일시·장소	2017년 5월 29일(월) 11:00~13:00 안의면 6·25참전용사 사랑방			
조사자	황 석 규, 고 광 명, 송 훈			

증언자 정보 (5)	이름	하 ○	생년월일	1931. 12. 20
	계급	병장	군번	8828986
	입대일	1952년 5월 9일	전역일	1956년 12월 20일
	출신지	함양군 안의면	학력	무학
	직업	농사	결혼	미혼
	주소	경상북도 함양군 안의면 이천리		
훈련소 입소 전 상황	1. 입대 동기 : 강제로집 1952년 5월에 입대했음. 2. 입대 경로 : 함양▶부산▶제주 3. 기타			
훈련소 규모	1. 훈련장 위치 및 범위 2. 부대시설 위치 및 규모 3. 기타(훈련병 수 등)			
훈련소 생활	1. 소속 : 1연대 23중대 2. 숙소 및 숙영지 3. 교육훈련 4. 훈련기간 : 82일 5. 식사 및 피복(전투복 등) 6. 면회(횟수 등) 7. 기억나는 훈련 및 교관 8. 기타			
훈련소 퇴소 후 상황	1. 차대배치 이동 경로 : 제주▶강원도 2. 전선배치 지역 및 참가한 전투 : 최고 전방인 백마고지 전투에 참가 3. 소속 및 부대배치 : 수도사 6사단 5연대 4. 기타			
제주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상				
기타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 포화 속에서 군대 생활을 했음.			
일시·장소	2017년 5월 29일(월) 11:00~13:00 안의면 6·25참전용사 사랑방			
조사자	황 석 규, 고 광 명, 송 훈			

증언자 정보 (6)	이름	진 ○ 권	생년월일	1930. 11. 12
	계급	하사	군번	9268805
	입대일	1952년 12월 7일	전역일	1957년 6월 2일
	출신지	함양군 안의면	학력	무학
	직업	농사	결혼	미혼
	주소	경상북도 함양군 안의면 귀곡리		
훈련소 입소 전 상황	1. 입대 동기 : 강제징집 1952년 12월에 징집 1기생으로 입대했음. 2. 입대 경로 : 함양➡진주➡포항➡제주 3. 기타			
훈련소 규모	1. 훈련장 위치 및 범위 2. 부대시설 위치 및 규모 3. 기타(훈련병 수)			
훈련소 생활	1. 소속 : 1연대 19중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입대해도 같은 중대로 편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2. 숙소 및 숙영지 3. 교육훈련 : 8시에 학과장으로 가서 훈련을 받았음. 4. 훈련기간 : 그 당시 훈련병들 중에서 하사관 교육연대(산방산 옆)에 지원하여 16주 동안 훈련을 받으면 상병으로 진급했음. 헌병학교 9기생으로 졸업했음. 조카가 훈련부장을 역임했음. 5. 식사 및 피복(전투복 등) 6. 면회(횟수 등) 7. 기억나는 훈련 및 교관 8. 기타 : 983중대에서는 병기로 때렸는데 죽은 경우가 있었음. 병기대장 조수를 했으며, 제주 육군 98병원에서도 근무했음.			
훈련소 퇴소 후 상황	1. 차대배치 이동 경로 : 제주➡부산➡강원도(양구) 2. 전선배치 지역 및 참가한 전투 3. 소속 및 부대배치 : 전방 7사단 헌병대와 UN 양구 검문소 근무 4. 기타			
제주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상				
기타	학과장에 갔다 오면 총이 없어져서 돈을 건어서 주어야 총을 주었음.			
일시·장소	2017년 5월 29일(월) 11:00~13:00 안의면 6·25참전용사 사랑방			
조사자	황 석 규, 고 광 명, 송 훈			

증언자 정보 (7)	이름	조 ○ 완	생년월일	1927. 11. 7
	계급	상사	군번	9288715
	입대일	1952년 8월 15일	전역일	1957년 4월 1일
	출신지	함양군 함양읍	학력	국민학교 졸
	직업	농사	결혼	미혼
	주소	경상북도 함양군 함양읍 신천리		
훈련소 입소 전 상황	1. 입대 동기 : 강제소집 함양군에서 약 1,000명 이상이 입대했는데 그 당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시기였음. 2. 입대 경로 : 함양➡진주➡포항➡제주 26세 때 함양국민학교에서 집결하여 간 다음 진주에서 신체검사(갑종 합격)을 받았음. 진주에서 하루 밤을 지낸 후 기차(약 100명 정도)을 타고 포항에 가서 며칠을 지내다가 제주도로 이동했음. 제주도로 갈 때 배멀미를 많이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제주도에 도착해 있었음. 3. 기타			
훈련소 규모	1. 훈련장 위치 및 범위 : 모슬봉 앞 훈련소에 신병 교육장이 있었으며, 그 옆에 하사관 교육연대 교육장이 있었음. 2. 부대시설 위치 및 규모 : 하사관 교육연대 260기의 경우 1개 반이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규모는 약 100~200명 정도였음. 3. 기타(훈련병 수 등)			
훈련소 생활	1. 소속 : 3연대 61중대 배치 1주 동안 훈련을 받고 점호를 실시했는데 동작이 빠르다고 해서 중대본부로 차출되어 가서 근무했음. 훈련을 마친 후 일등병으로 진급해서 중대본부에서 근무했음. 2. 숙소 및 숙영지 : 3연대 중대본부에는 출입문이 없었음. 3. 교육훈련 : 운전교육대에 가려고 희망했는데 이를 앞두고 하사관 교육연대에 입학했음. 하사관 교육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총기소지 검사 등으로 애를 먹었으며 엄격했음. 밥을 받아놓고 감사의 묵념을 하고 1분이 채 안되어 전부 집합을 시켰음. 총기 등 병기검사에서 2번 불합격하여 보충대에서 나와서 3일 동안 대기했음. 일주 행군은 전원 실습훈련으로 공격과 방어전술, 순찰 등의 훈련을 받았으며, 밥을 지으면 배식해서 나누어 먹었음. 지휘관이 분대장들에게 교육을 잘 못 받으면 귀한 집 자식들이 다 죽는다고 했음. 처음에 갔을 때 구대장(고준식)이 5시간 동안 쪼그려 뛰기를 시켜서 골병들어 고생한 적이 있음. 4. 훈련기간 : 8~9주 동안 훈련을 받고나서 여름경 하사관 교육연대(260기)에 들어가기 1주전에 충도 쏘아보지 못하고 휴전(7월 20일)되었음. 하사관 교육연대에서는 8주 동안 기초교육(제식훈련 등) 등을 받았음. 그 당시 분대장을 했는데 훈련 중에 땀을 많이 흘리면 피를 많이 안 흘린다고 했음. 하사관 교육연대 졸업 전에는 철모를 쓰고 배낭을 메고 완전군장해서 기별로 제주도 일주 행군훈련을 했음. 살기 위해 하사관 교육연대에 들어갔으며, 훈련을 받을 때 죽은 사람은 없었음.			

훈련소 생활	<p>4. 훈련기간 : 8~9주 동안 훈련을 받고나서 여름경 하사관 교육연대(260기)에 들어가기 1주전에 총도 쏘아보지 못하고 휴전(7월 20일)되었음. 하사관 교육연대에서는 8주 동안 기초교육(제식훈련 등) 등을 받았음. 그 당시 분대장을 했는데 훈련 중에 땀을 많이 흘리면 피를 많이 안 흘린다고 했음. 하사관 교육연대 졸업 전에는 철모를 쓰고 배낭을 메고 완전군장해서 기별로 제주도 일주 행군훈련을 했음. 살기 위해 하사관 교육연대에 들어갔으며, 훈련을 받을 때 죽은 사람은 없었음.</p> <p>5. 식사 및 피복(전투복 등) : 신병연대와 하사관 교육연대 교육장에서는 밥을 받아 소대별로 배식을 해서 식사를 했음.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국과 밥을 주어서 먹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못했음. 총을 들고 전원 집합시킨 경우도 있었으며, 겨울에는 방한복을 입고 훈련을 받았음.</p> <p>6. 면회(횃수 등)</p> <p>7. 기억나는 훈련 및 교관</p> <p>8. 기타 : 국민학교를 졸업했지만 중학교를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훈련을 마칠 때까지 정보과에서 서로 데려갈려고 했음. 진주에서 같이 입대한 이호영(대학 졸업)과 함께 훈련을 받았는데 이호영이 군의관으로 근무해서 훈련 끝난 후 부산에서 이호영이 데리러 왔음. 이호영과 중대본부 배치를 같이 받아 친해져서 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서무계 조수로 들어갔으며 1분대장도 맡았음. 10년 이상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보초를 많이 서지 않았음. 6개월 만에 시험을 보고 이등상사로 진급했으며, 표창장(6~7개)도 받았음. 그 때 진급 대상자(약 400명) 중 필기시험, 직접면담을 통해 36명이 상사로 진급했음.</p>
훈련소 퇴소 후 상황	<p>1. 자대배치 이동 경로 : 제주▶강원도(사창, 화천 등) 밤중에 26사단으로 배치를 받았는데 들판에 있는 천막에서 취침했음. 40명을 1개 소대로 편성하여 근무를 시작했음.</p> <p>2. 전선배치 지역 및 참가한 전투</p> <p>3. 소속 및 부대배치 : 26사단</p> <p>4. 기타 : 육군통신학교를 졸업하는 등 군에서 10년 근무 후 전역 신청을 8번 했는데도 기각되어, 9번째 신청해서 제대했음. 특기가 통신인 경우 전역을 안 시켜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p>
제주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상	<p>제주도에 처음 갔을 때 무척 추웠는데 훈련을 받다보니 추운 것도 모르고 지냈음. 제주도에서 훈련을 받을 때 힘들어서 그렇게 생각할만한 여유가 없었음. 8~9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거주했지만 제주도에서 만난 사람은 없었고, 인사계가 제주도 여자와 살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음.</p>
기타	<p>중대본부 상사는 자기 이름을 쓸 줄도 잘 모르고 해서 편지가 오면 읽어주기도 했음. 서행수 대위가 왔을 때 인사계가 무식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음. 6·25 때 군에 가면 계급이 올라가고 해서 엉터리 상사들이 상당수 있었음.</p>
일시·장소	2017년 5월 29일(월) 16:00~17:00 자택
조사자	황 석 규, 고 광 명, 송 훈

증언자 정보 (8)	이름	강 ○ 원	생년월일	1931. 10. 11
	계급	대위	군번	215028
	입대일	1948년 7월 13일	전역일	1956년 5월 31일
	출신지	함양군 안의면	학력	
	직업		결혼	
	주소	경상북도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훈련소 입소 전 상황	1. 입대 동기 2. 입대 경로 3. 기타 : 사병 출신이 아니고 장교 출신이어서 사병에 관한 이야기는 잘 모름. 본인은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창설 전에 장교로 부임된 사람임. 가끔 안의면 사랑방에 가면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서 훈련 받았던 이야기 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고, 직접 체험한 것이 없어서 잘 알지 못함. 안의면에 사는 이종일(일병, 92군번)은 1952년 입대하여 일선 전쟁터에서 근무해서 전투에 참여한 적이 있고 훈장도 받고 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음. 다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기억력이나 언어 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임. 본인은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출신도 아니며 소대장 할 때 제주도에서 훈련을 받고 나온 사병도 없었음. 휴전되기 좀 전에 제주도 출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훈련을 잘 받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음.			
훈련소 규모	1. 훈련장 위치 및 범위 2. 부대시설 위치 및 규모 3. 기타(훈련병 수 등)			
훈련소 생활	1. 소속 2. 숙소 및 숙영지 3. 교육훈련 4. 훈련기간 5. 식사 및 피복(전투복 등) 6. 면회(횟수 등) 7. 기억나는 훈련 및 교관 8. 기타 : 휴전되기 직전에 일선에서 소대장, 중대 선임 장교 당시 중공군들이 인해전술로 들어오고 할 때 일선 최전방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음. 어떻게 살아나왔는지 잘 모르고 옛날 생각하면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음. 제주도에서 훈련 받은 사람들은 다양하다고 생각함. 처음 제주도에서 나온 사람들은 최전방에서 실제적으로 전투력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나중에 나온 사람들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배를 타고 오다가 휴전되었음. 특히 94군번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음.			

훈련소 퇴소 후 상황	<p>1. 자대배치 이동 경로</p> <p>2. 전선배치 지역 및 참가한 전투 : 최전방 근무</p> <p>3. 소속 및 부대배치 : 7사단 8연대 2대대 6중대</p> <p>4. 기타 : 휴전되고 난 다음 3년간 근무 후 첫 번째로 전역 신청을 했는데 승인되어 전역했음(1956년). 그 당시 총탄이 날아오고 해도 살았는데 살려고 했으면 살지도 못하고 죽었음. 20세 때 젊은 시절이라 죽음이란 공포를 잘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 전우들이 옆에 쓸어져서 죽어가고 했을 때 적개심이 생겨서 막 총구를 겨눈다고 함.</p>
제주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상	<p>작년과 올해 제주도 동문시장에 갔었음. 제주도 훈련소와 관련된 사진은 없음. 처음 제주도에 갔을 때 시장에 가면 고구마 등을 팔고 해서 잘 살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음.</p>
기타	<p>13년전 만 해도 제주도 포로수용소, 전적지 등을 가면 약 700명 이상이 참가했는데 최근에는 등록된 회원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전적지 순례행사에 갈 때 그 전에는 차량 4대가 필요했지만 이번에는 차량 2대(약 80여명)를 다 채우지 못했음. 기념탑을 건립하면서 조사했을 때 사망자 452명, 회원 596명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현재 250명 정도가 생존해 있음. 기념탑은 보훈처 1억, 경상남도 1억, 함양군 1억, 회원들 각각 5만원씩 모금을 조성해서 만들었음. 현재 6·25전쟁참전 유공자 30%는 병원 생활을 하고 있으며, 병원 생활을 안 해도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음. 자식들이 군대(장교)에서 복무하고 있어서 큰일 난다고 해서 사진들을 다 태워버렸음. 그 당시 카메라가 없었고 전문 사진사가 아니면 사진을 찍을 기회가 없었음.</p>
일시·장소	<p>2017년 5월 30일(화) 10:00~12:00</p> <p>6·25참전유공자회 함양군지회 향군회관 사무실</p>
조사자	<p>황 석 규, 고 광 명, 송 훈</p>

증언자 정보 (9)	이름	양 ○ 영	생년월일	1929. 3. 31
	계급	하사	군번	9232159
	입대일	1952년 8월 15일	전역일	1957년 4월 1일
	출신지	함양군 함양읍	학력	국민학교 중퇴
	직업	농사	결혼	미혼
	주소	경상북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훈련소 입소 전 상황	1. 입대 동기 : 강제소집 애국단체인 대한청년단에서 활동하다가 두 번 영장을 받고 1952년 8월 15일에 병곡면 김○○과 같이 입대했음. 2. 입대 경로 : 함양▶진주▶포항▶제주 3. 기타 : 부친이 중산도 종교에 심취해서 국민학교(1~4학년)를 겨우 다녔음.			
훈련소 규모	1. 훈련장 위치 및 범위 2. 부대시설 위치 및 규모 3. 기타(훈련병 수)			
훈련소 생활	1. 소속 : 7연대 138중대 2. 숙소 및 숙영지 : 제1, 2, 3숙영지가 모슬포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는 잘 모름. 제2숙영지는 대왕암 근처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교관(박격포 등)으로 생활했음. 숙영지 내에서는 땅위에 판자를 깔아 놓고 취침했음. 숙영지에서 2년 동안 근무했는데 하는 일 없이 지냈으며, 군가를 부르지 못했음. 92군번은 훈련을 받고나서 학과장을 만들고 했음. 3. 교육훈련 : 각 학과장마다 교관들이 있었는데 일등중사(상사)가 선임 조교로 대전차포, 박격포, 무관단총 등의 교육을 시켰음. 논산에 있는 제2훈련소로 이동해서 2년 동안 교관으로 근무했음. 4. 훈련기간 : 12주 동안 신병훈련을 받았으며, 그 당시 훈련장에는 선임 조교(중위) 1명, 조교 5~6명이 배치되어 교육을 시켰음. 중대에는 약 20여 명이 같이 생활했음. 5. 식사 및 피복(전투복 등) : 몇 주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병 대접이 안 좋았음. 훈련소장(오덕준)이 새로 부임하면서 식사 등 급양 보급에 힘쓰고 강병을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순찰을 나오면 밥을 많이 주는 등 식사 메뉴가 달라졌음. 신병훈련 때 새 구두(군화)를 팔아먹었던 기억이 있음. 방한복에 이가 있었는데 미군부대에서 공급한 DDT(살충제)로 한 번에 박멸시켰음. 6. 면회(횃수 등) : 외출할 때 모슬포 시내로 나갔는데 용돈이 없어서 사먹지 못했음. 7. 기억나는 훈련 및 교관			

훈련소 생활	<p>8. 기타 : 훈련을 받은 후 육지로 갈려고 했는데 7연대 138중대 훈련병들을 전원 집합시켰음. 학력(대졸, 고졸, 중졸, 국졸 등)을 분류하여 학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음. 그 당시 2살 아래 박규영(밀양 출신)과 같이 근무 했을 때 국졸이 왜 나가느냐고 반문한 적이 있음. 막사에서 본적, 현주소, 이름, 군번 등을 영어로 작성했는데 호출되었음.</p> <p>그래서 밀양 출신 손○○ 등 9명이 발령을 받아 기간사병으로 남게 되면서 만 4년 동안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서 생활했음. 위병소에서 근무할 때 연락이 오면 다시 본부로 연락하는 역할을 수행했음. 훈련병 시절에는 함양군에서 많이 입대하여 경상남도 출신들이 많았음.</p>
훈련소 퇴소 후 상황	<p>1. 자대배치 이동 경로 : 제주▶▶▶마산▶▶▶대전</p> <p>2. 전선배치 지역 및 참가한 전투</p> <p>3. 소속 및 부대배치 : 14사단 본부 수용대</p> <p>4. 기타 : 하루 세끼 밥을 줄 때 반찬(멸치 5마리)과 된장국을 주었는데 배가 고팠음. 마산공과대학 근처 번개부대 미 52사단(CP본부)에서 정보원 모집이 있어서 미군 부대에 지원했음. 내 마음 속에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로 생각했음. 그 당시 CP 본부에는 두 명(조선대 문리대 2학년 재학, 광주 출신 김○○)이 있었는데 미군 중사와 고문관으로 근무했음.</p>
제주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상	군대에서 생활하면서 민간인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없었음. 조교 등 기간사병들은 시간이 생기면 민간인들 집에 가서 고구마도 삶아서 먹고 술도 마셨으며 고급 생활을 했음.
기타	전역 후 30년 동안 함양에 혼자 생활했음.
일시·장소	<p>2017년 5월 31일(수) 10:00~12:00</p> <p>6·25참전유공자회 함양군지회 향군회관 사무실</p>
조사자	황 석 규, 고 광 명, 송 훈

증언자 정보 (10)	이름	김 ○ 태	생년월일	1931.12. 7
	계급	하사	군번	9267897
	입대일	1952년 12월 5일	전역일	1957년 4월 20일
	출신지	함양군 휴천면	학력	
	직업	농사	결혼	
	주소	경상북도 함양군 휴천면 목현리		
훈련소 입소 전 상황	1. 입대 동기 : 강제징집 2. 입대 경로 : 함양➡진주➡포항➡제주 3. 기타			
훈련소 규모	1. 훈련장 위치 및 범위 2. 부대시설 위치 및 규모 3. 기타(훈련병 수)			
훈련소 생활	1. 소속 2. 숙소 및 숙영지 3. 교육훈련 4. 훈련기간 5. 식사 및 피복(전투복 등) 6. 면회(횟수 등) 7. 기억나는 훈련 및 교관 8. 기타			
훈련소 퇴소 후 상황	1. 자대배치 이동 경로 2. 전선배치 지역 3. 참가한 전투 및 부대배치 4. 기타			
제주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상				
기타	와병 중에 있어서 증언할 상태가 아니었음. 귀가 들리지 않아 인터뷰를 중단했음.			
일시·장소	2017년 5월 31일(수) 15:00~15:30 자택			
조사자	황 석 규, 고 광 명, 송 훈			

증언자 정보 (11)	이름	정 ○ 상	생년월일	1932. 3. 15
	계급	중사	군번	9267846
	입대일	1952년 12월 5일	전역일	1957년 4월 10일
	출신지	함양군 휴천면	학력	중학교 재학
	직업	농사	결혼	미혼
	주소	경상북도 함양군 휴천면 대천리		
훈련소 입소 전 상황	<p>1. 입대 동기 : 강제징집 징집 1기생으로 입대했는데 그 이전 교사, 경찰들은 군에 가지 않했음. 현재 같은 시기에 입대한 성○○, 김○○ 등 참전용사 60명 중에서 13명이 생존함.</p> <p>2. 입대 경로 : 함양➡진주➡포항➡제주 휴천면사무소에 집결해서 함양국민학교로 갔으며, 다시 진주 역전까지 간 다음 열차로 포항에 도착했음. 포항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군복과 군번을 받고 하루 걸려서 제주도 화순에 도착했음.</p> <p>3. 기타 : 산천 향교에서 운영하는 사립 명림중학교(2학년 1학기) 재학 중 신체검사를 받고 입대했는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음. 그 당시 쌀 값 한 되에 만원할 때 100만 원 정도 갖고 입대했음.</p>			
훈련소 규모	<p>1. 훈련장 위치 및 범위 : 모슬포에 있는 하사관 교육연대는 1, 2연대 사이 본부 근처에 있었으며, 사계리 국민학교에는 보충대(수용대)가 있었음.</p> <p>2. 부대시설 위치 및 규모 : 육군 98병원, 워커훈련소장 근처 사계리에는 중공군 포로수용소가 있었음.</p> <p>3. 기타(훈련병 수 등)</p>			
훈련소 생활	<p>1. 소속 : 8연대 145중대</p> <p>2. 숙소 및 숙영지 : 모슬포 인근에는 제1숙영지(한림에서 금악 방면으로 올라가는 마절리), 제2숙영지(중문 위쪽), 제3숙영지(서귀포 위쪽), 제5숙영지(서귀포 위쪽) 등이 있었음. 특히 모슬포 뒤쪽 모슬봉 근처에 수원지를 만들었음. 서림수원지(서림리)는 바다에서 물이 나와서 식수를 공급했음. 급양생산대는 제1, 2, 3, 5숙영지 중 제3숙영지에 있었음. 제1숙영지는 사격, 제2, 3, 5숙영지는 전술훈련 등을 했음. 사격장은 제1숙영지(마절리)로 20m 사격 훈련(모슬봉 쪽으로)을 했음.</p> <p>3. 교육훈련 : 신병 훈련소에는 제식훈련, 화기학과(M1 등), 전술학과 등 3개 학과장이 있었음. 하사관 교육연대에서는 모슬포에서 한림까지 가는 일주(장거리) 행군훈련을 했음.</p> <p>4. 훈련기간 : 96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향도, 보급계, 병기계, 분대장, 소대장 등을 역임했음.</p>			

훈련소 생활	<p>5. 식사 및 피복(전투복 등) : 훈련을 받을 때 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고생했음. 하루 급식량이 나와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바람에 훈련병들이 먹지 못해서 마른 명태 상태였음. 중대장, 소대장 등 전방에서 온 군인들이 있어서 욕을 많이 했음. 취사장에서 소를 잡았는데 군 간부들이 집에 다 가져갔음. 신병교육대 조교들은 피복, 총기 부품 등을 팔아서 돈을 벌었음.</p> <p>6. 면회(횃수 등)</p> <p>7. 기억나는 훈련 및 교관</p> <p>8. 기타 : 오덕준 훈련소장은 나중에 부임했고 이준식 훈련소장은 마지막 소장을 역임했음. 하루는 사계리 바닷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병무과장(거창 출신)이 제주도에서 기간사병을 모집한다고 해서 거창, 함양 출신들이 많이 지원했음. 군번, 성명, 본적지 등을 칠판에 한문으로 작성하는 시험을 치렀는데 거창 사람들은 다 합격했음. 그래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남게 되면서 연대 조교를 하게 되었음. 교관은 15명 정도로 야간 분대 공격훈련(84일차) 조교를 담당했음. 1년 만에 일등중사(하사)로 진급하고 제주도 경비사령부에서 근무했음.</p>
훈련소 퇴소 후 상황	<p>1. 자대배치 이동 경로 : 제주▶하사관 교육연대▶제주(경비사령부) 신병훈련(96일)이 끝난 후 하사관 교육연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음.</p> <p>2. 전선배치 지역 및 참가한 전투</p> <p>3. 소속 및 부대배치 : 경비사령부, 육군 98병원에서 근무했음. 그 당시 육군 98병원에서는 술을 담가서 내다 팔고 했음.</p> <p>4. 기타</p>
제주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상	<p>제주4·3 때 양민학살로 인해 남자에 비해 여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음. 양민들이 재배한 고추, 채소, 수박 등을 군인들이 훔쳐가서 먹었음. 영양실조, 자해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 산에서 나무를 캐다가 화장해서 장례를 치렀는데 하루 종일 나무를 캐서 갖고 와도 화장을 전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 모슬포에는 훈련병, 기간사병 등을 다 포함해서 약 10만명 군인들이 살고 있었음. 마음의 여유가 없었지만 덕수리에 있는 민간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들은 신병 교육장에서 빵, 고구마 등을 팔았음.</p>
기타	1957년 4월 10일 전역 후 예비군 중대장, 면장, 조합장, 노인회장 등을 역임했음
일시·장소	2017년 5월 31일(수) 16:00~16:40 자택
조사자	황 석 규, 고 광 명, 송 훈

증언자 정보 (12)	이름	김 ○ 민	생년월일	1931. 12. 18
	계급	일병	군번	928871○
	입대일	1953년 7월 7일	전역일	1955년 3월 10일
	출신지	함양군 휴천면	학력	
	직업		결혼	
	주소	경상북도 함양군 휴천면 대천리		
훈련소 입소 전 상황	1. 입대 동기 : 강제징집 2. 입대 경로 : 함양➡진주➡포항➡제주 3. 기타			
훈련소 규모	1. 훈련장 위치 및 범위 2. 부대시설 위치 및 규모 3. 기타(훈련병 수 등)			
훈련소 생활	1. 소속 2. 숙소 및 숙영지 3. 교육훈련 4. 훈련기간 5. 식사 및 피복(전투복 등) 6. 면회(횟수 등) 7. 기억나는 훈련 및 교관 8. 기타			
훈련소 퇴소 후 상황	1. 자대배치 이동 경로 2. 전선배치 지역 및 참가한 전투 3. 소속 및 부대배치 4. 기타			
제주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상				
기타	기억력 상실에 따른 인터뷰 중단.			
일시·장소	2017년 5월 31일(수) 17:00~17:20 자택			
조사자	황 석 규, 고 광 명, 송 훈			

증언자 정보 (13)	이름	김 ○ 복	생년월일	1931. 1. 25
	계급	하사	군번	9257908
	입대일	1952년 12월 15일	전역일	1955년 1월 20일
	출신지	함양군 휴천면	학력	
	직업	농사	결혼	기혼
	주소	경상북도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훈련소 입소 전 상황	1. 입대 동기 : 강제징집 1952년 12월 휴천면에서 약 200명이 집결해서 입대했는데 같이 간 동료들은 다 죽었음. 2. 입대 경로 : 함양➡진주➡포항➡제주 3. 기타 : 휴천면 지역 젊은이들은 지리산과 가까워서 도망 다니느라 힘든 세월을 보냈음.			
훈련소 규모	1. 훈련장 위치 및 범위 2. 부대시설 위치 및 규모 3. 기타(훈련병 수 등)			
훈련소 생활	1. 소속 2. 숙소 및 숙영지 : 제3숙영지로 올라갔는데 한 열흘 뒤에 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와서 훈련받고 있었음. 3. 교육훈련 : 함양, 거창 사람들은 한 부대에 모여서 훈련을 받았는데 연대장이 거창 고향 사람이라 대우를 많이 받았음. 4. 훈련기간 : 96일 동안 훈련을 받고 춘천으로 갔음. 5. 식사 및 피복(전투복 등) : 전방에 가면 죽으러가니까 식사는 주는 대로 먹었으며 훈련 받을 때는 무척 힘이 들어서 고생했음. 6. 면회(횃수 등) 7. 기억나는 훈련 및 교관 8. 기타			
훈련소 퇴소 후 상황	1. 자대배치 이동 경로 : 제주➡강원도(춘천)➡대구 체력(몸)이 허약하여 춘천에서 4~5일 있다가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하루 밤을 지내고, 대구 육군 18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2~3개월 요양하다가 제대했음. 2. 전선배치 지역 및 참가한 전투 3. 소속 및 부대배치 : 강원도 춘천 보충대 2사단 18연대(예비연대)와 5사단에서 근무했음. 4. 기타			
제주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상				
기타				
일시·장소	2017년 5월 31일(수) 17:30~18:30 자택			
조사자	황 석 규, 고 광 명, 송 훈			

증언자 정보 (14)	이름	박 ○ 규	생년월일	1929. 8. 15
	계급	하사	군번	0673349
	입대일	1951년 12월 13일	전역일	1955년 3월 15일
	출신지	함양군 수동면	학력	중학교 중퇴
	직업	공무원	결혼	미혼
	주소	경상북도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훈련소 입소 전 상황	<p>1. 입대 동기 : 강제소집 함양에서 제일 먼저 군에 갔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음. 그 당시 공무원으로 연기를 신청하면 되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군에 가게 되었음.</p> <p>2. 입대 경로 : 함양➡진주➡부산➡제주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만 함양에서 트럭으로 40~50대가 갔음. 부산(동래구)에서 집결해서 엘에스티(LST) 군함을 타고 제주도로 갔음.</p> <p>3. 기타 : 중국에서 중학교 5학년을 다녔는데 4년 수료증을 받았음. 중국 천진에서 살았는데 해방이 되서 고향으로 돌아왔음. 그 당시 부모님은 진취적인 삶을 살고자 중국에서 생활했음.</p>			
훈련소 규모	<p>1. 훈련장 위치 및 범위</p> <p>2. 부대시설 위치 및 규모</p> <p>3. 기타(훈련병 수 등)</p>			
훈련소 생활	<p>1. 소속</p> <p>2. 숙소 및 숙영지 : 천막을 쳐 놓고 나무을 베서 침상을 만들고 그 위에 가마니를 깔고 모포(헌것)을 덮고 잤음.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서 군번을 받았음.</p> <p>3. 교육훈련 : 사격(총을 쏘는 훈련) 등 기초훈련을 받았음. 헌병 3기생으로 대구에서 군대 생활을 했음. 신병훈련이 끝난 후 전부 시험을 치르도록 했음. 본인은 시험보고 합격한 다음 대구헌병학교에서 4개월 정도 훈련을 받았는데 그 당시 피부가 말라가지고 사람 얼굴이 아니었음.</p> <p>4. 훈련기간 : 제주도에서 96일 동안 신병훈련을 받은 후 대구헌병학교에서 4개월 정도 교육을 받았음.</p> <p>5. 식사 및 피복(전투복 등) : 신병훈련 때 밥을 제대로 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당번이 타고 와서 먹었는데 밥, 국그릇이 없어서 잘 먹지 못했음. 12월경 군에 갔는데 겨울 의복(옷)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음. 그리고 겨울인데도 한 달 정도 되니 옷에 이가 쭉 붙어 있어서 이를 잡는 시간을 주었는데 그때 이를 잡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음. 봄이 되어 미군들이 준 약(디디티)을 뿌리니 이가 없어졌음. 그 당시 물(소금물)을 먹으려고 해도 먹으면 배탈이 나서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고통을 당했음. 배탈이 나면 우동 한 그릇에 간장을 넣고 고추 가루를 타고 저어서 먹으면 낫는 수가 있었음. 우동은 민간인들이 팔았는데 어떤 사람은 내의를 팔아서 사 먹는 사람도 있었음.</p>			

	<p>6. 면회(횃수 등)</p> <p>7. 기억나는 훈련 및 교관 : 얼굴이 확 줄 정도로 배가 고팠던 기억이 남아 있음. 훈련소장, 중대장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음.</p> <p>8. 기타 : 신문에서 휴전되기 어렵다는 기사를 읽고 헌병학교를 가야 산다고 해서 시험을 치르게 되었음. 중대본부 기간사병(고대 출신)이 무학이 시험 본다고 말한 적이 있음. 그래서 서무계가 무학이라도 시험을 보면 되는데 무엇이 잘못이냐고 따져 물었던 기억이 있음. 헌병학교 시험과목은 한문이었지만 시험 문제는 잘 알지 못함. 연대본부에 불러가서 약 40~50명이 시험을 치렀는데 몇 명이 합격했는지는 잘 모름.</p>
훈련소 퇴소 후 상황	<p>1. 자대배치 이동 경로 : 제주▶대구(헌병학교 3기생)</p> <p>2. 전선배치 지역 및 참가한 전투</p> <p>3. 소속 및 부대배치</p> <p>4. 기타</p>
제주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상	<p>봄이 되면 제주도 무 크기가 컸는데 배가 고파서 무를 뽑아 먹었던 기억이 있음.</p>
기타	<p>특별히 아는 사람 아니면 함께 모이지 않았음. 전역 후 사회생활(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 협의회장 등)을 많이 해서 여러 번 훈장을 받았음. 그 당시 무학은 제대시켜 준다고 해서 군 생활을 할 때 학력을 무학으로 한 적이 있음.</p>
일시·장소	2017년 6월 1일(목) 11:00~12:00 자택
조사자	황 석 규, 고 광 명, 송 훈

증언자 정보 (15)	이름	하 ○ 화	생년월일	1933. 2. 15
	계급	상병	군번	1004535
	입대일	1954년 12월 15일	전역일	1958년 12월
	출산지	함양군 백전면	학력	무학
	직업	농사	결혼	기혼
	주소	경상북도 함양군 백전면 백운리		
훈련소 입소 전 상황	1. 입대 동기 : 강제징집 휴전 1년 후 21세 때 영장을 받고 포항에 갔는데 나중에 입대했음. 2. 입대 경로 : 함양➡진주➡포항➡제주 진주 시청에서 약 100여 명이 집결해서 갔음. 3. 기타 : 1954년 3월 결혼하고 9개월 후 12월에 입대했음.			
훈련소 규모	1. 훈련장 위치 및 범위 2. 부대시설 위치 및 규모 3. 기타(훈련병 수 등)			
훈련소 생활	1. 소속 : 2연대 2중대에서 3연대 2중대로 이동(신체검사 불합격). 매일 새로운 중대가 들어오는데 열사병으로 아파서 일주일 입원해서 3연대로 이동했음. 2. 숙소 및 숙영지 3. 교육훈련 : 오전에 훈련 받고 오후에 비오면 훈련을 하지 안했음. 학과 마치고 나면 실탄, 탄피 등 정리 작업을 했음. 휴전 후 경찰, 민간인 등과 함께 씨름, 달리기 등 합동체육대회를 개최했음. 4. 훈련기간 : 보통 95일 동안 훈련을 받는데, 먼저 간 사람은 4~50일 동안 훈련을 받았음. 5. 식사 및 피복(전투복 등) : 식사 양이 충분하지 못해서 빵이나 찢고추 같은 것을 사서 먹었음. 훈련 받을 때 물이 가장 귀해서 철제드럼(도라무깡)에 있는 물을 마신 적이 있으며, 뒤에 간 사람이 다 마실 정도로 물이 부족했음. 산방산 밑에 가서 세탁을 한 적이 있음. 6. 면회(횃수 등) 7. 기억나는 훈련 및 교관 8. 기타 : 기간사병이 한 사람당 5대씩 약 200여명을 두들겨 패서 뒤지게 맞은 적이 있음. 악질 중에는 전라도 출신들이 많았음.			
훈련소 퇴소 후 상황	1. 자대배치 이동 경로 : 제주➡부산 2. 전선배치 지역 및 참가한 전투 3. 소속 및 부대배치 : 부산 병기지 사령부와 경비중대 대대 해산으로 인해 중대로 편입되어 병기지 사령부(총포창, 타이어창, 자동차(중고품) 폐창)로부터 발령을 받아 근무했음. 1955년 12월 이후 부산 대신동에 있는 경비중대에서 6개월 근무하고 제대(4년 근무하고 상병으로 제대)했음. 4. 기타			

제주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상	고구마를 캐 먹어도 욕을 안 해서 인심이 좋다는 것을 알았음. 배가 고파서 개인 집에 갔는데 밥을 지어 한 그릇을 주어서 먹은 적이 있음. 남자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 여자는 일을 했음. 주로 돼지를 키우면서 살았고 쌀밥은 먹지 못했음.
기타	10년 전 제주도에 갔을 때 훈련소 정문 앞까지 갔지만 2연대 있던 장소가 감귤 밭으로 변해 있었음.
일시·장소	2017년 6월 25일(일) 14:00~15:00 자택
조사자	황 석 규, 고 광 명, 송 훈

증언자 정보 (16)	이름	노 ○ 상	생년월일	1932. 3. 22
	계급	하사	군번	9224213
	입대일	1952년 7월 17일	전역일	1957년 9월 18일
	출신지	함양읍 석복면	학력	국민학교 졸
	직업	농사	결혼	미혼
	주소	경상북도 함양군 함양읍 죽곡리		
훈련소 입소 전 상황	<p>1. 입대 동기 : 강제징집. 1952년 7월 징집영장이 나와서 갔는데 그 당시 군대에 가면 죽는 시절이라 갈 생각을 안했음.</p> <p>2. 입대 경로 : 함양➡부산➡포항➡제주 입대 이전 함양국민학교에서 집결 후 트럭(3대)을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음. 부산 보충대에서 하루 밤을 지낸 후 포항에서 군번을 받고 3~4일 만에 제주도에 도착했음.</p> <p>3. 기타 : 그 당시 군에 가면 죽는 상황이라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송별회를 해 주었음.</p>			
훈련소 규모	<p>1. 훈련장 위치 및 범위 :</p> <p>2. 부대시설 위치 및 규모</p> <p>3. 기타(훈련병 수 등)</p>			
훈련소 생활	<p>1. 소속 : 6연대 99중대 그 당시 훈련소에는 9연대(골짜이), 5연대(정문 좌), 6연대(정문 우), 3연대(전면 중앙), 101, 102중대(정문 앞)가 있었음.</p> <p>2. 숙소 및 숙영지 : 모슬포 인근에는 제1, 2, 3, 5숙영지가 있었음. 제2숙영지에는 폭포가 있어서 물이 좋아 논도 있고 해서 많이 사용했으며, 한번 가게 되면 그곳에서 2주 동안 교육을 받았음. 제5숙영지는 주변에 공비가 있어서 교육을 받거나 행군을 할 때 완전무장을 했음.</p> <p>3. 교육훈련 : 하사관 교육연대에서 교육을 받을 때 모가지(목)에 힘이 없어서 철모가 왔다 갔다 했음.</p> <p>4. 훈련기간 : 90일 정도 신병훈련(교육)을 마친 후 하사관 교육연대에 들어가서 48일 동안 훈련을 받았음. 하사관 교육연대는 국민학교 정도를 졸업해야만 시험을 보고 들어갈 수 있었음.</p> <p>5. 식사 및 피복(전투복 등) : 도라무통에 손 집어 놓고 먹을 정도로 배가 고파서 시레기 풀이라도 먹고 싶은 심정이었음. 신병교육이 끝나고 나오면 마른명태가 나온다고 할 정도로 먹지 못했음.</p> <p>6. 면회(횃수 등) : 훈련병 때 면회 온 사람은 없었지만 전방가기 전에 부친이 면회 온 적이 있음.</p> <p>7. 기억나는 훈련 및 교관</p> <p>8. 기타 : 전방에 가면 한참 죽는 상황이고 가면 죽는 판이라 하루살이 삶을 살았음.</p>			

훈련소 퇴소 후 상황	<p>1. 자대배치 이동 경로 : 제주➡부산 입대 동기들은 전방에서 거의 다 전사했음.</p> <p>2. 전선배치 지역 및 참가한 전투</p> <p>3. 소속 및 부대배치 : UN군 지원부대로 편입되고 나서 휴전 후 한국군으로 편입되어 근무(5년 6개월)했음.</p> <p>4. 기타 : 부산에서 교육을 받고 나서 군번줄을 팔아서 사먹은 기억이 있음.</p>
제주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상	<p>훈련을 받고 돌아올 때 보면 삶은 고구마나 말고기 꼬치를 파는 제주도 사람들이 있었음. 말고기 꼬치는 화폐 교환 전 가격으로 약 5천 원 정도했음. 고구마, 빵도 팔았는데 사먹는 사람은 교육을 받지 않았음.</p>
기타	<p>훈련 받을 때는 고향 땅을 밟고 나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음.</p>
일시·장소	<p>2017년 6월 26일(월) 10:00~13:00 RAON HOTEL 커피숍</p>
조사자	<p>황 석 규, 고 광 명, 송 훈</p>

증언자 정보 (17)	이름	노 ○ 현	생년월일	1930. 9. 10
	계급	상병	군번	9257566
	입대일	1952년 12월 4일	전역일	1956년 11월 5일
	출신지	함양군 함양읍	학력	간이학교
	직업	농사	결혼	기혼
	주소	경상북도 함양군 함양읍 죽곡리		
훈련소 입소 전 상황	1. 입대 동기 : 강제징집 연령이 넘어서 1952년 12월 징집 1기생으로 입대했음. 2. 입대 경로 : 함양▶부산▶포항▶제주 죽곡면 부락에서 6명이 입대했는데 포항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갔음. 3. 기타			
훈련소 규모	1. 훈련장 위치 및 범위 2. 부대시설 위치 및 규모 3. 기타(훈련병 수 등)			
훈련소 생활	1. 소속 : 2연대 41중대 한날 똑같이 동일 군번끼리 같이 가더라도 중대는 다르게 편성되었음. 1~8연대를 연대별로 나누어서 분산시키는데 출선 순서대로 중대를 나누었음(1중대 약 100명). 모슬포 시내 옆에 2중대 천막 막사가 있었음. 2. 숙소 및 숙영지 : 훈련병들은 훈련 갔다가 돌아올 때 돌맹이를 지고 와서 숙소를 만들었음. 3. 교육훈련 : 각개전투 훈련을 받았음. 그 당시 1시간 정도 훈련을 받으면 훈련병들이 조(자)는 경우가 많았음. 기간사병들 중에는 전라도 출신(1명)이 있었음. 총기 수리할 때 기간사병들이 엄하고 독했음. 4. 훈련기간 : 06군번은 80일, 92군번은 96일 동안 훈련을 받았음. 5. 식사 및 피복(전투복 등) : 겨울이라도 바람이 많이 불지 않고 따뜻해서 세탁하러 가면 이가 많았음. 배가 고파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음. 6. 면회(횃수 등) : 그 당시 함양에서 온 사람들이 약 200여 명이 넘었는데 같은 고향 출신 노은상이 신병훈련소에 찾아온 적이 있음. 7. 기억나는 훈련 및 교관 : 기간사병들이 훈련병들에게 썩은 동태눈가리라고 표현한 적이 있음. 8. 기타 : 훈련병들은 훈련 내용 외에 다른 사항들을 잘 알지 못함.			
훈련소 퇴소 후 상황	1. 자대배치 이동 경로 : 제주▶강원도(춘천) 2. 전선배치 지역 및 참가한 전투 3. 소속 및 부대배치 : 춘천 제1보충대 4. 기타 : 춘천 제1보충대로 갔는데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불러주는 사단공연 행사 때 각 사단에서 차출하러 온 적이 있음.			
제주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상	제주도 흙은 힘이 없어서 군복에 흙이 많이 묻었음.			
기타				
일시·장소	2017년 6월 26일(월) 10:00~13:00 RAON HOTEL 커피숍			
조사자	황 석 규, 고 광 명, 송 훈			

증언자 정보 (18)	이름	김 ○ 상	생년월일	1933 2. 9
	계급	병장	군번	9462792
	입대일	1952년 7월 17일	전역일	1957년 1월 10일
	출신지	함양읍 신천리	학력	국민학교 졸업
	직업	농사	결혼	미혼
	주소	경상북도 함양군 함양읍 신천리		
훈련소 입소 전 상황	1. 입대 동기 : 강제징집 1952년 22세 때 함양에서 두 사람이 같이 입대했음. 2. 입대 경로 : 함양➡진주➡포항➡제주 함양군에서 영장을 받고 트럭(5대)으로 진주까지 간 다음 포항에서 군 번을 받고 15일간 대기하고 있다가 제주도로 갔음. 3. 기타			
훈련소 규모	1. 훈련장 위치 및 범위 2. 부대시설 위치 및 규모 3. 기타(훈련병 수 등)			
훈련소 생활	1. 소속 : 9연대 182중대(약 160여 명) 2. 숙소 및 숙영지 : 9연대는 맨 끝자락(골짜기)에 있었는데 막사(조립 식 창고) 가운데 통로 양쪽에 취침 침대가 놓여 있었음, 3연대는 천막 막 사였음. 3. 교육훈련 : M1소총 분해결합, 각개전투, 총검술 등의 훈련을 받았음. 4. 훈련기간 : 96일 동안 훈련을 받는 중 휴전되었음. 5. 식사 및 피복(전투복 등) 6. 면회(횟수 등) : 돈이 없으면 면회를 가지 못하는 시절이었음. 면회를 가지 못하지만 돈을 부친다는 편지가 온 적이 있음. 7. 기억나는 훈련 및 교관 8. 기타 : 휴전 소식을 듣고 환호했음.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생각은 안했지만 조금은 걱정이 되었음. 직업 군인으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5년 정도 했으니까 지원하지 않고 제대 하려고 했음. 군에 입대할 때 돈을 줌 갖고 갔는데 화투를 좋아하는 조교들이 놀음해서 다 갖고 갔음.			
훈련소 퇴소 후 상황	1. 자대배치 이동 경로 : 제주➡부산➡강원도(춘천, 화천) 훈련이 끝나서 배를 타고 부산 보충대에서 며칠 있다가 다시 열차를 타 고 전방부대가 있는 강원도 춘천 보충부대로 갔음. 2. 전선배치 지역 및 참가한 전투 : 강원도 춘천 보충부대 3. 소속 및 부대배치 : 21사단 65연대 3대대 8중대 4. 기타 : 사단 교대가 많았으며 화천에서 전역했음.			
제주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상	제주도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음.			
기타				
일시·장소	2017년 6월 26일(월) 10:00~13:00 RAON HOTEL 커피숍			
조사자	황 석 규, 고 광 명, 송 훈			

증언자 정보 (19)	이름	김 ○ 중	생년월일	1933. 4. 17
	계급	병장	군번	9462005
	입대일	1952년 7월 17일	전역일	1953년 7월 17일
	출신지	함양군 함양읍	학력	
	직업	농사	결혼	미혼
	주소	경상북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훈련소 입소 전 상황	1. 입대 동기 : 강제징집 1952년 21세 때 입대했음. 2. 입대 경로 : 함양➡진주➡포항➡제주 3. 기타			
훈련소 규모	1. 훈련장 위치 및 범위 2. 부대시설 위치 및 규모 3. 기타(훈련병 수 등)			
훈련소 생활	1. 소속 : 9연대 182중대 2. 숙소 및 숙영지 3. 교육훈련 4. 훈련기간 : 82일 동안 훈련을 받았음. 5. 식사 및 피복(전투복 등) 6. 면회(횟수 등) : 면회 온 사람이 없었음. 7. 기억나는 훈련 및 교관 : 훈련을 받으려고 이동할 때 뛰어다녀서 힘들 었던 기억이 있음. 8. 기타 : 휴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따 쏘아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음.			
훈련소 퇴소 후 상황	1. 자대배치 이동 경로 : 제주➡부산(보충대)➡강원도 2. 전선배치 지역 및 참가한 전투 3. 소속 및 부대배치 : 15사단 38중대 1대대 통신병 4. 기타			
제주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상				
기타				
일시·장소	2017년 6월 26일(월) 10:00~13:00 RAON HOTEL 커피숍			
조사자	황 석 규, 고 광 명, 송 훈			

증언자 정보 (20)	이름	조 ○ 래	생년월일	1931. 6. 5
	계급	상병	군번	8837971
	입대일	1952년 6월 3일	전역일	1955년 6월 21일
	출신지	함양군 서상면	학력	국민학교 졸
	직업	농사	결혼	기혼
	주소	경상북도 함양군 서상면		
훈련소 입소 전 상황	<p>1. 입대 동기 : 강제징집 서상면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징집되어 약 50여 명이 입대했음. 현재 생존자는 10명(요양원 2명, 거동불편 4명)이며, 이번 군민대회에 4명이 참가했음. 같이 간 사람들은 5월 1일 입소했는데 신체검사 연기로 6월 3일 입소했음.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4월 19일 국민학교 벚꽃나무 밑에서 송별회를 해 주었음.</p> <p>2. 입대 경로 : 함양▶부산▶제주 서상면 국민학교에 집결해서 환영식을 한 후 스리쿼터(짐차 20명)를 타고 부산 유락국민학교로 갔음. 화물선을 타고 이틀 정도 걸려서 제주도 화순항(장정대기소)에 도착했음.</p> <p>3. 기타 : 1945년 3월 25일 국민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입학하려고 했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진학하지 못하고 한문을 공부했음. 치술, 치약 등 살림살이와 돈은 몸뚱이에 메서 갖고 갔음. 그 당시 집안 어른신들 말씀을 거역하지 못해서 얼굴도 모르는 서하면 출신인 부인과 결혼(2남 1녀)한지 3일 만에 입대했음.</p>			
훈련소 규모	<p>1. 훈련장 위치 및 범위</p> <p>2. 부대시설 위치 및 규모</p> <p>3. 기타(훈련병 수 등)</p>			
훈련소 생활	<p>1. 소속 : 9연대 125중대 2소대 2분대 88군번 중에서 낙오자가 되어 전라도 출신 사람들과 훈련을 같이 받았음. 현재 서상면 6·25참전용사 60명 중에서 10명 정도가 생존해 있음.</p> <p>2. 숙소 및 숙영지 : 막사는 아래 지역에 있었고 정문도 있었음.</p> <p>3. 교육훈련</p> <p>4. 훈련기간 : 96일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6월 3일 입소해서 10월 21일 퇴소했음.</p> <p>5. 식사 및 피복(전투복 등) : 훈련 받을 때 5분 동안에 빨래하라고 해서 동작이 빠른 사람은 빨래를 하지만 느린 사람은 소지품도 꺼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음. 불침번을 서게 되면 눈병, 이질 등에 안 걸린 사람이 없었음. 안 걸린 사람은 명당 집 집안에서 태어난 자손이었다고 했음. 수통 하나면 5명이 세수를 했는데 무명 수건으로 닦으면 얼굴이 반들반들했음. 밥을 타러 2명(하나는 밥, 다른 하나는 국)이 가는데 타고 오다가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경우 그날은 소대원이 밥을 다 굶었음.</p> <p>6. 면회(횃수 등) : 면회를 온 적이 없었으며, 제대할 때까지 부인 얼굴을 보지도 못했음.</p>			

	<p>7. 기억나는 훈련 및 교관 : 수용연대에 있을 때 한라산에 고사리 꺾으러 가자고 해서 갔는데 호각을 부르면 많이 꺾은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등 동일한 시간대에 비교해서 적게 꺾은 사람들을 몽둥이로 때리고 했음. 나중에 가마니에 담고 가서 팔아 한라산 후생사업(돈벌이)을 했다고 함. 간부 부인들이 빵을 팔았는데 빵 먹은 사람들은 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훈련을 받고 했음.</p> <p>8. 기타 : 훈련소에서는 하루에 여러 사람이 사망하는데 훈련 때 사망한 사람은 비밀로 했음. 하루라도 매를 맞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했으며, 매일 먹고 자는 생각만 했음. 1중대에 약 250명이 생활했는데 한사람이라도 잘못하면 서로 때리고 했음.</p>
<p>훈련소 퇴소 후 상황</p>	<p>1. 차대배치 이동 경로 : 제주▶▶부산▶▶경기도(연천) 부산에서 이틀 있다가 M1 소총을 메서 화물차(약 50여 명)를 타고 전방 연천까지 갔음. 연천에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조부의 배정을 통해 후방(중대본부 보급계 조수)으로 가게 되어 생존했음.</p> <p>2. 전선배치 지역 및 참가한 전투 : 백마고지 전투에 참여하러 올라가는데 시신들을 본 적이 있음. 그 때 백마고지를 뺏기면 철원도 빼앗겼음.</p> <p>3. 소속 및 부대배치 : 9사단 29연대 2대대 7중대 3소대 2분대 수송부대 인사과 근무(만 3년 근무)</p> <p>4. 기타 : 중공군 군수품들은 상해에서 왔는데 숨이 안에 들어 있어서 비가 내려도 비가 새지 않았음. 한국군(미국산 군수품)은 화랑 담배를 피웠으며 중공군 담배는 싱거웠음. 훈련소에서 매일 수첩에 일기 형태로 하루 일과를 작성했는데 훈련 끝난 후 부산으로 이동할 때 배 안에서 정보과 소속 군인들이 마이크를 통해 간첩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서 바다에 버리게 되어 눈물이 날려고 했음. 마을에서 이장할 때 1961년부터 1967년까지 일기 작성을 안했지만 1975년부터 현재까지 날씨, 시장가면 물건 산 것, 농협 예·출금, 하루일과 등 주요 내용(요점)들을 일기 형태로 작성하고 있음.</p>
<p>제주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상</p>	<p>제주도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음.</p>
<p>기타</p>	<p>죽을 때까지 인정은 변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친목도모를 위해 모임을 가졌는데 고인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와서 모임(6·25참전 유공자회)에 나가지 않고 있음. 노인회 서상면 분회 회장 역임. 인간은 본심을 지키고 살아라! 20년 전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갔었는데 그 당시 기둥이 남아 있었음.</p>
<p>일시·장소</p>	<p>2017년 6월 26일(월) 14:00~14:40 자택</p>
<p>조사자</p>	<p>황 석 규, 고 광 명, 송 훈</p>

증언자 정보 (21)	이름	송 ○ 윤	생년월일	1933. 2. 26
	계급	상병	군번	9459651
	입대일	1953년 7월 7일	전역일	1957년 10월 20일
	출신지	함양군 서하면	학력	한문서당
	직업	농사	결혼	미혼
	주소	경상북도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		
훈련소 입소 전 상황	<p>1. 입대 동기 : 강제징집 18세 때 특공대에 근무(1953년 3월말까지 1년 반)하면서 빨갱이 한 사람을 잡은 적이 있음. 1953년 7월에 입대했는데 그 당시 누군가가 군대에 간 것을 알면 빨갱이들이 그 가족을 다 죽였음.</p> <p>2. 입대 경로 : 함양➡진주➡포항➡제주 징집영장을 받고 함양에서 집결해서 진주로 간 다음 그곳에서 하루 밤을 숙박하고 포항에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며칠 동안 지내다가 배(짐을 싣는 배)로 제주도에 갔음. 그 때 주먹밥을 세 개 주었는데 배 멀미해서 먹지 못했으며 소변도 제대로 보지 못했음.</p> <p>3. 기타 : 모친이 없어서 한문서당에서 공부를 했음.</p>			
훈련소 규모	<p>1. 훈련장 위치 및 범위</p> <p>2. 부대시설 위치 및 규모</p> <p>3. 기타(훈련병 수 등)</p>			
훈련소 생활	<p>1. 소속 : 7연대 2중대</p> <p>2. 숙소 및 숙영지</p> <p>3. 교육훈련 : 각개전투 훈련을 받을 때 철조망이 쳐 있는 밑으로 기어간 적이 있음.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전방으로 가지 못했고 훈련이 끝나면 바로 전방으로 가는 상황이었음.</p> <p>4. 훈련기간 : 96일 동안 훈련을 받았음. 행군을 해서 훈련장에 가는 도중 아줌마들이 삶은 고구마를 팔았음. 훈련을 받을 때 눈병, 설사병 등에 걸리는데 특히 배탈이 많이 났음. 아침 먹고 행군할 때 물에 소금을 타서 주는데 먼지가 많아서 수통 하나를 갖고 가도 부족했음.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었으며, 야외에서 훈련 받을 때는 죽는 경우도 있었음. 그 당시 육군 98병원에 간 적은 없는데 입원하게 되면 입대 동기들과 같이 퇴소하지 못했음. 아파도 아프다고 못했으며 눈병에 걸린 적이 있음.</p> <p>5. 식사 및 피복(전투복 등) : 훈련 받을 때 배가 고파서 생쌀을 한 주먹 먹었던 적이 있음. 전방에 가도 배가 고프고 했는데 간부급들이 영외 생활하다보니 전부 가져가서 먹었음. 취사반에 먹을 것이 있으면 다 가져갔음. 하루 쌀 2홉이 나오는데 다 먹지 못하면 취사병들이 쌀을 팔아서 휴가를 갔음.</p> <p>6. 면회(윗수 등)</p>			

	<p>7. 기억나는 훈련 및 교관 : 어느 날 저녁 화장실에 모자를 뺏으러 갔는데 뺏지 못했음. 한라산 밑에서 마지막 야간훈련을 받다가 모자가 날아가버렸는데 사람 좋은 2분대장이 모자를 가져다주어서 고비를 넘긴 적이 있음. 행정반 사람들이 보급품 검열 때문에 밤에 왔다가 직접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음. 일요일에 바다로 세탁하려고 갈 때 단체생활이라 전부 짐을 가지고 갔음. 한개 반합에 두 사람이 먹었는데 처음에는 선을 그어 먹다가 나중에는 서로 먹으려고 했음.</p>
<p>훈련소 퇴소 후 상황</p>	<p>1. 자대배치 이동 경로 : 제주▶강원도 입대를 한 사람들 중 4명이 같이 갔음. 당시 계급은 상병이었는데 배우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주소를 쓰라고 해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소대로 전출되어 갔는데 분대장(병장)은 좋은 사람이었음. 중대본부 서무계에서 자신을 서로 데려 가려고 했음(월급 등 인사계 담당)</p> <p>2. 전선배치 지역 및 참가한 전투</p> <p>3. 소속 및 부대배치 : 창설부대 15사단 2연대 2중대 2소대</p> <p>4. 기타 : 피죽 쫓가리를 먹었으며, 작업복 한 벌, 모자, 신, 모포 한 장씩 등을 공급 받고 생활했으며, 모포는 둘이서 한 장씩 덮고 갔음. 소대는 집 같은 분위기였음. 6~7년 근무한 사람(직업 군인)이 소대 보급품 일을 잘 수행했음.</p>
<p>제주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상</p>	<p>제주도민을 만난 적이 없음.</p>
<p>기타</p>	<p>휴전되었다고 하니 마음이 기뻐다!</p>
<p>일시·장소</p>	<p>2017년 5월 26일(월) 15:00~16:00 자택</p>
<p>조사자</p>	<p>황 석 규, 고 광 명, 송 훈</p>

증언자 정보 (22)	이름	이 ○ 압	생년월일	1933. 1. 12
	계급	병장	군번	9461947
	입대일	1953년 7월 7일	전역일	1957년 11월 4일
	출신지	함양군 백전면	학력	국민학교 졸업
	직업	농사	결혼	미혼
	주소	경상북도 함양군 백전면 평촌리		
훈련소 입소 전 상황	1. 입대 동기 : 강제징집 특공대에서 활동하다가 1953년 7월 21세 때 입대했음. 2. 입대 경로 : 함양➡진주➡포항➡제주 진주 중앙국민학교에서 포항으로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이틀 정도 걸렸음. 포항에서 한 달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제주도로 갔음. 3. 기타			
훈련소 규모	1. 훈련장 위치 및 범위 2. 부대시설 위치 및 규모 3. 기타(훈련병 수 등)			
훈련소 생활	1. 소속 : 9연대 184중대 2. 숙소 및 숙영지 : 정문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 기억이 안 나고 기억나는 것이 거의 없음. 학과장에 가서 돌담을 쌓았던 것은 기억됨. 기뻐던 일도 슬펐던 일도 없었음. 3. 교육훈련 : 전시 중이라 훈련을 심하게 받았음. 훈련을 잘 받으면 절대로 안 다친다고 했음. 훈련소 입소 당시 연병장에 앉혀 놓으니 덥고 해서 죽든지 말든지 빨리 훈련소에서 나가고 싶은 생각만 들었음. 4. 훈련기간 : 16주 중 14일차 교육을 받을 때 휴전되었음. 5. 식사 및 피복(전투복 등) : 물이 잘 나오지 않고 농촌에 살다가 간 사람들은 그저 그렇지만 도시에서 간 사람들은 덥고 애먹고 힘들었음. 6. 면회(횃수 등) 7. 기억나는 훈련 및 교관 8. 기타 : 탈영한 사람들은 섬이라 육지로 가지 못하고 잡혀서 다시 돌아왔는데 형무소로 갔음. 훈련장에서 여자들이 고구마를 팔고 했는데 떨어진 고구마를 발로 몽겔 정도로 인심이 지독했음.			
훈련소 퇴소 후 상황	1. 차대배치 이동 경로 : 제주➡부산➡강원도 휴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16주 동안 훈련을 받은 후 부산 동래에 있는 유락국민학교로 갔음. 그 당시 먹지 못해서 마른 명태와 같은 몰골이었음. 2. 전선배치 지역 및 참가한 전투			

	<p>3. 소속 및 부대배치 : 25사단 9연대(창설 통신대) 교환대에서 통신 가설을 담당했음. 제대 36개월 넘긴 사람들은 3년 6개월 근무했음.</p> <p>4. 기타 : 임진강 근처에 지뢰 매설하는 작업을 나갔는데 도랑가에 돌이 쌓여 있어서 오래된 지뢰인지 몰라서 던졌는데 터진 적이 있음. 휴전 후에도 지뢰 매설로 인해 터져서 많이 죽었음. 배구 선수를 하다가 갔기 때문에 축구를 잘 했음. 25사단에서 근무할 때 코치가 부산 사람인데 중대 별로 모여서 담배내기를 한 적이 있음. 부연대장이 축구에 소질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서 나간 적이 있음.</p>
제주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상	제주도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음.
기타	제주도에 갔었지만 훈련소를 방문하지 못했음.
일시·장소	2017년 5월 26일(월) 16:00~17:30 차택
조사자	황 석 규, 고 광 명, 송 훈

증언자 정보 (23)	이름	이 ○ 민	생년월일	1931. 3. 7
	계급	하사	군번	8832019
	입대일	1952년 5월 18일	전역일	1956년 12월 10일
	출신지	함양군 백전면	학력	무학
	직업	농사	결혼	기혼(조혼)
	주소	경상북도 함양군 백전면 양천리		
훈련소 입소 전 상황	<p>1. 입대 동기 : 강제소집 의용경찰대로 2~3년간 근무하다가 1952년 5월 벚꽃 한창 필 때 입대했는데 죽으려 간다고 생각했음. 당시 약 120명이 입대했는데 군번 동기 중 생존자는 없음(전사자 11여명).</p> <p>2. 입대 경로 : 함양▶부산▶제주 소집영장을 받고 트럭 3대에 타고 부산으로 간 후 이틀 걸리고 제주도로 갔음. 백전면 주민들이 태극기를 만들어 길가에 나와서 환송식을 해주었는데 친척들이 울고불고 했음.</p> <p>3. 기타 : 전쟁으로 인해 빨갱이들이 못살게 해서 결혼 3개월 후에 입대했는데 살아서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음. 지리산 자락에 엄청나게 빨갱이들이 많아서 생전에 총을 만지지 않았던 약 200여 명 주민들이 특공대, 의용경찰대 등을 조직해서 백전면을 지켰음.</p>			
훈련소 규모	<p>1. 훈련장 위치 및 범위</p> <p>2. 부대시설 위치 및 규모</p> <p>3. 기타(훈련병 수 등)</p>			
훈련소 생활	<p>1. 소속 : 5연대 96중대</p> <p>2. 숙소 및 숙영지 : 신병들은 훈련 받을 집이 없어서 총을 들고 돌 하나씩을 갖다 놓고 하면서 천막 막사를 만들었음.</p> <p>3. 교육훈련 : 각개전투, 사격 등의 훈련을 받았는데 총매고 돌매고 행군할 때 군가도 불렀음. 기상은 오전 6시에 일어나고 훈련은 오후 5~6시경에 종료했음.</p> <p>4. 훈련기간 : 96일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4월경에 가서 10월경에 마쳤음. 사는지도 죽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한 달 동안 도라무통 작업을 했음.</p> <p>5. 식사 및 피복(전투복 등) : 공기와 물이 나빠서 배가 아팠는데 하나님이 도와준 덕택에 살아남았음. 내복을 벗어주고 빵과 교환해서 먹었음. 훈련 받을 때 설사병으로 먹지 못해서 밥이 남았지만 성한 사람은 배가 고팠음.</p> <p>6. 면회(횃수 등) : 면회를 온다고 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만나지 못했음.</p> <p>7. 기억나는 훈련 및 교관</p> <p>8. 기타 : 이미 휴전한다고 정해져 있었는데도 모르고 한국군 결사대에 보내졌음.</p>			

<p>훈련소 퇴소 후 상황</p>	<p>1. 자대배치 이동 경로 : 제주▶▶▶부산▶▶▶강원도(양구) 부산에서 강원도 양구까지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군인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고 있었음.</p> <p>2. 전선배치 지역 및 참가한 전투</p> <p>3. 소속 및 부대배치 : 7사단 3연대 2대대 8중대 강원도 양구 옆 화천댐 중화기 중대에서 근무(일등상사)하여 편하게 지냈는데 그 당시 중화기 중대에 가면 생존율이 60%였음. 이후 고향 사람들이 보살피 준 덕택으로 7사단에서 25사단(보급부대)으로 전출 갔는데 인사계(선임상사)가 전시에 휴가를 보내줄려고 했음. 다리 부상을 당했는데 휴전 후 제일 좋은 곳에서 근무했음. 그 당시 소총수 돌격 앞으로 해서 죽는 사람보다 부상당한 사람이 많았음. 밀양고등학교를 빌려서 병원으로 사용했음. 사단 병기중대에서 5년 6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그 때 탄피를 1박스 가져가면 쌀 1가마를 주었음.</p> <p>4. 기타 : 조부가 돌아가셨을 때 차에 크게 다쳐서 부상을 입었음. 노무자들이 담배, 물 등을 갖고 올라가는데 시체들이 즐비해 있었음. 중환자들은 아프면 병원으로 갔는데 양구 부대에서 아파서 죽은 사람들을 많이 목격했음.</p>
<p>제주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상</p>	<p>제주도가 아주 못살 때 신병 생활을 했음. 훈련소에서 송장을 신고 나가는 것을 보고 눈물을 많이 흘렸음.</p>
<p>기타</p>	<p>전쟁은 안 겪어보면 몰라요!</p>
<p>일시·장소</p>	<p>2017년 5월 26일(월) 16:30~17:30 자택</p>
<p>조사자</p>	<p>황 석 규, 고 광 명, 송 훈</p>

증언자 정보 (24)	이름	조 ○ 제	생년월일	1929. 3. 2
	계급	이병	군번	0673217
	입대일	1951년 12월 13일	전역일	1956년 10월 20일
	출신지	함양군 지곡면	학력	한문서당
	직업	농사	결혼	기혼
	주소	경상북도 함양군 지곡면 공배리		
훈련소 입소 전 상황	1. 입대 동기 : 강제로 집 밀양 거주 때 소집으로 군대에 입대했음. 2. 입대 경로 : 함양➡진주➡부산➡제주 1951년 12월 입대 당시 4개 군(거창, 함양, 산천, 합천 등)이 군별로 집결해서 밤 9시경 차를 타고 진주역으로 간 다음 부산에서 배를 타고 제 주도로 갔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음. 세상 물정을 잘 모르 는 허○○씨와 함께 도망을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어 서 따라오지 않아 도망가지 못했음. 3. 기타			
훈련소 규모	1. 훈련장 위치 및 범위 2. 부대시설 위치 및 규모 3. 기타(훈련병 수 등)			
훈련소 생활	1. 소속 : 1연대 1중대 1소대(반장) 2. 숙소 및 숙영지 : 훈련소에는 1연대에서 9연대까지 있었는데 나중에 12연대까지 생겼음. 1연대는 천막 막사였음. 3. 교육훈련 4. 훈련기간 :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음. 5. 식사 및 피복(전투복 등) : 훈련소에서 돼지 사육(약 100두)을 해서 사병들이 먹었음. 훈련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음. 학과 장에 가면 먹을 것을 파는 사람이 있어도 사먹지 못해 내색을 못했으며, 돈을 내서 통째로 사면 기간사병과 같이 나누어 먹었음. 소대장, 연대장까 지 문제가 되다보니 부패가 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곳에서 빨리 벗 어나고 싶은 심정이었음. 봄이 오면 쭉 등을 뜯어 삶아서 소금을 넣고 먹 었던 기억이 있음. 6. 면회(횟수 등) 7. 기억나는 훈련 및 교관 : 그 당시 기억나는 기간사병들 이름은 잘 모 름. 8. 기타 : 그 당시 밤이 되면 밖에 나가지 못했으며, 죽창을 들고 보초를 서기도 했음. 돈이 필요로 했는지 몰라도 말을 안 들으면 몽둥이로 매일 맞았음. 돈이 있는 사람도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돈을 주면 안 때리고 해 서 무척 화가 많이 났음. 부대 내에서 돈을 거두어 상납한 적이 있음. 조 교들에게는 맞은 적이 있지만 훈련병들끼리는 서로 때리지 않았음.			

훈련소 퇴소 후 상황	1. 자대배치 이동 경로 : 제주▶강원도(속초) 훈련병 생활을 끝내고 속초에 갔는데 살만했으며 대한부인회에서 커피 한 사발을 준 적이 있음. 훈련 끝나고 나올 때 빠삭 말라 있었음. 2. 전선배치 지역 및 참가한 전투 3. 소속 및 부대배치 : 논산훈련소에서 5년 동안 근무했음.
제주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상	
기타	
일시·장소	2017년 6월 27일(화) 09:30~10:30 자택
조사자	황 석 규, 고 광 명, 송 훈

증언자 정보 (25)	이름	허 ○ 오	생년월일	1931. 11. 9
	계급	중사	군번	9268780
	입대일	1952년 12월 5일	전역일	1957년 4월 20일
	출신지	함양군 지곡면	학력	무학
	직업	농사	결혼	기혼
	주소	경상북도 함양군 지곡면 공배리		
훈련소 입소 전 상황	<p>1. 입대 동기 : 강제징집 군대에 입대하기 전 집안 어른들이 씨(후손)를 본다고 결혼해서 6개월 후에 입대했음.</p> <p>2. 입대 경로 : 함양➡진주➡포항➡제주 함양국민학교에 집결해서 진주, 그리고 포항으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소변을 보러 가면 그 자리가 없어졌음. 신체검사 없이 바로 훈련을 받았음.</p> <p>3. 기타</p>			
훈련소 규모	<p>1. 훈련장 위치 및 범위</p> <p>2. 부대시설 위치 및 규모</p> <p>3. 기타(훈련병 수 등)</p>			
훈련소 생활	<p>1. 소속 : 1연대 9중대</p> <p>2. 숙소 및 숙영지 : 훈련소에는 1연대에서 9연대까지 쭉 있었는데 중대 본부는 한두 채 있어서 나무로 짓고 거주했으며, 가운데 통로 양쪽에서 잤음(한 막사에 약 50여명). 2~3일 동안 훈련을 받은 교육장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물이 좋았음.</p> <p>3. 교육훈련</p> <p>4. 훈련기간 : 96일 동안 훈련을 받은 후 하사관 교육연대에 가지 안 했음.</p> <p>5. 식사 및 피복(전투복 등) : 밥은 도라무깡에서 퍼서 먹었는데 배가 고파서 생썩이나 생감자를 뜯어서 먹었음. 돈이 없어서 사 먹지도 못하고 돈이 있으면 기간사병들이 가져갔음. 그 때는 먹는 것이 힘든 시절이라 배가 고프고 훈련을 받기가 힘들어서 집에 가고 싶은 생각만 들었음. 하루에 쌀 두 홑이 나왔는데 기간사병들이 가져가서 먹었음.</p> <p>6. 면회(횃수 등) : 부친이 면회를 오지 못해서 제주에 가는 사람에게 20만원(화폐 교환 이전)을 보내왔는데 빵 하나를 사 먹고 나머지는 기간사병들이 가져갔음.</p> <p>7. 기억나는 훈련 및 교관 :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의 모자를 뺏은 적이 있음.</p> <p>8. 기타</p>			

<p>훈련소 퇴소 후 상황</p>	<p>1. 자대배치 이동 경로 : 제주▶강원도(속초, 양양) 연천, 포천, 금화 등 22사단 소총(화기)소대에서 총(포)반장을 했음.</p> <p>2. 전선배치 지역 및 참가한 전투 : 속초, 양양 등의 전선</p> <p>3. 소속 및 부대배치 : 22사단 소총(화기)소대 속초, 양양 등의 전선에 투입되어 싸웠음. 그 당시 약 30여 명이 같이 갔는데 다른 사단으로 간 사람은 거의 사망(보충병 등)했음</p> <p>4. 기타 : 7년 동안(84개월 20일) 이등상사(상사)로 오랫동안 근무했음. 월남 파병 후에는 1년에 2계급 승진했음.</p>
<p>제주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상</p>	<p>제주도 사람들을 만난 경우가 없었음. 그 당시 삶은 고구마를 팔아도 사먹지 못했음.</p>
<p>기타</p>	<p>전방 투입 전 한달 동안 점심으로 문어 젓갈이 든 주먹밥 한 덩어리를 주었는데 이 때 식사는 제주도 훈련소에서 생활할 때보다 나았음.</p>
<p>일시·장소</p>	<p>2017년 6월 27일(화) 11:00~12:00 자택</p>
<p>조사자</p>	<p>황 석 규, 고 광 명, 송 훈</p>

증언자 정보 (26)	이름	김 ○ 철	생년월일	1932. 3. 28
	계급	하사	군번	9268400
	입대일	1952년 11월 6일	전역일	1957년 4월 20일
	출신지	함양군 지곡면	학력	중학교 재학
	직업	농사	결혼	미혼
	주소	경상북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훈련소 입소 전 상황	<p>1. 입대 동기 : 강제징집 1952년 10월 안의중학교 2학년 재학 중 입대했음.</p> <p>2. 입대 경로 : 함양➡진주➡포항➡제주 함양국민학교에 집결해서 진주(중앙국민학교)로 간 다음 열차(화물차)을 타고 포항항으로 가서 제주도에 도착했음. 지곡면사무소(40여 명)에서 열차를 타고 진주로 갔는데 몇 천 명이 집결해 있었음. 배가 안 떠서 포항에서 4~5일 대기하다가 풍파를 만나서 2~3일 더 걸려 제주도에 도착한 다음 백사장에 내려 걸어서 훈련소에 입소했음. 식사는 반찬도 없이 소금을 묻힌 주먹밥을 하나 주어서 먹었던 기억이 있음.</p> <p>3. 기타</p>			
훈련소 규모	<p>1. 훈련장 위치 및 범위</p> <p>2. 부대시설 위치 및 규모</p> <p>3. 기타(훈련병 수 등)</p>			
훈련소 생활	<p>1. 소속 : 3연대 74중대</p> <p>2. 숙소 및 숙영지 : 모슬포 인근에는 제1숙영지(물이 부족), 제2숙영지(물이 좋음) 등이 있었음. 1, 2연대는 천막, 3연대는 텐트를 치고 훈련병 생활을 했음.</p> <p>3. 교육훈련</p> <p>4. 훈련기간 : 96일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전시가 급해서 80일 만에 전방에 투입한 경우도 있었음.</p> <p>5. 식사 및 피복(전투복 등) : 좋은 작업복도 아닌 실탄에 맞거나 피 묻은 옷을 입고 2개월 정도 훈련을 받았음.</p> <p>6. 면회(횃수 등) : 삼촌(대위)이 면회를 와서 장교 집에서 외박을 한 적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했음. 그 당시 논 한말지기(200평)를 팔아서 면회를 왔는데 그 이후 돈이 생겨서 친구들에게 빌려주기도 했음.</p> <p>7. 기억나는 훈련 및 교관 : 포복할 때 배가 고파서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으며, 배가 곪은 것이 제일 힘들었음.</p> <p>8. 기타 : 그 당시 옷에 이가 있어서 DDT(가루약)를 분무기로 뿌려서 죽였음.</p>			

<p>훈련소 퇴소 후 상황</p>	<p>1. 자대배치 이동 경로 : 제주▶강원도(속초 등) 자대배치 사흘 만에 강원도 속초 전방에 투입되어 근무했음. 집안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제주도나 후방으로 갔는데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전방으로 가서 근무했음. 인제, 사창, 연천, 포천, 금화, 양구 등에서 주로 군 생활을 했음.</p> <p>2. 전선배치 지역 및 참가한 전투 : 강원도 속초 전방부대</p> <p>3. 소속 및 부대배치 : 밤중에 후퇴하다가 양양 22사단 창설부대로 갔음.</p> <p>4. 기타 : 지곡면에는 대동아전쟁, 6·25전쟁을 경험한 20여 명 참전 용사들이 있음. 휴전 후 진급이 안돼서 5년 만에 하사로 진급하여 5년 동안 복무한 후 의가사 제대를 했음. 그 당시 하사가 안 된 사람은 제대가 안 되었음.</p>
<p>제주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상</p>	<p>하루 동안 훈련을 나가면 민간인들이 고구마를 팔았는데 영외로 나가는 경우가 힘들었음.</p>
<p>기타</p>	
<p>일시·장소</p>	<p>2017년 6월 27일(화) 13:30~16:30 자택</p>
<p>조사자</p>	<p>황 석 규, 고 광 명, 송 훈</p>

증언자 정보 (27)	이름	김 ○ 동	생년월일	1932. 3. 26
	계급	하사	군번	9268377
	입대일	1952년 12월 6일	전역일	1957년 4월 20일
	출신지	함양군 지곡면	학력	
	직업	농사	결혼	
	주소	경상북도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훈련소 입소 전 상황	1. 입대 동기 : 강제징집 1952년 12월 입대했음. 2. 입대 경로 : 함양➡진주➡포항➡제주 진주에서 수속을 받은 후 포항에서 1개월 동안 대기하다가 제주도로 간 다음 그곳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음. 제주도에 갔더니 사람들은 잘 안 보이고 밤에 도착하니 떡을 나누어 주었음. 3. 기타			
훈련소 규모	1. 훈련장 위치 및 범위 2. 부대시설 위치 및 규모 3. 기타(훈련병 수 등)			
훈련소 생활	1. 소속 : 3연대 74중대 2. 숙소 및 숙영지 : 내무반 생활 때 훈련병을 때리는 경우가 많았고, 분대장이 추울 때 밤에 나오라고 해서 막대기로 때린 적도 있음. 연대본부, 중대본부에는 막사가 있었지만 훈련병들이 생활하는 중대에서는 천막을 치고 생활했음. 3. 교육훈련 : 훈련을 받으러 가다보면 가끔 집이 하나씩 보였으며, 텐트를 치고 잤음. 4. 훈련기간 : 3월경 훈련(96일)이 끝나고 취사반에서 1개월 동안 근무했음. 5. 식사 및 피복(전투복 등) : 식사는 도라무짬에서 퍼서 배급했는데 20세 때 배가 고파서 힘들었음. 백인엽 장군이 훈련소 소장으로 있을 때 콩나물국을 배급한 적이 있음. 6. 면회(횟수 등) 7. 기억나는 훈련 및 교관 8. 기타			
훈련소 퇴소 후 상황	1. 차대배치 이동 경로 : 제주➡부산➡강원도(춘천, 양구) 1953년 3월 훈련이 끝나고 부산으로 간 다음 열차(짐칸)타고 전방부대가 있는 춘천으로 갔음. 양구에는 7사단 등 4개 사단이 있었는데 나중에 미군 2사단으로 전출되어 갔음. 2. 전선배치 지역 및 참가한 전투 : 강원도 춘천 전방부대 3. 소속 및 부대배치 : 7사단 5연대(창설부대) 처음에는 UN군에 가려고 한 달 동안 대기하다가 전방 1, 2사단으로 갔는데 전투는 안하고 훈련을 많이 받았음. 4. 기타 : 밤 12시경 공격을 시도할 예정이었는데 밤 10시경 휴전될 가능성이 많다며 철수하라고 했음.			

제주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상	
기타	말도 못해요 높은 사람이 다 가져갔어요.
일시·장소	2017년 6월 27일(화) 15:30~16:30 자택
조사자	황 석 규, 고 광 명, 송 훈

증언자 정보 (28)	이름	김 ○ 호	생년월일	1929.11.25
	계급	하사	군번	9232213
	입대일	1950년 8월 30일	전역일	1957년 4월 30일
	출신지	함양군 병곡면	학력	일본 중학교 중퇴
	직업	농사	결혼	기혼
	주소	경상북도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훈련소 입소 전 상황	1. 입대 동기 : 강제징집 1950년 8월 30일 24세 때 입대했음. 2. 입대 경로 : 함양➡진주➡포항➡제주 포항에서 며칠 머물지 않았음. 3. 기타 : 일본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귀국했음.			
훈련소 규모	1. 훈련장 위치 및 범위 2. 부대시설 위치 및 규모 3. 기타(훈련병 수 등)			
훈련소 생활	1. 소속 : 몇 연대에 소속되어 훈련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음. 2. 숙소 및 숙영지 : 막사는 둘로 지었음. 3. 교육훈련 : 사격(총 쏘는 것) 훈련 등을 배웠음. 빨리 결판을 낸다고 해서 하사관 교육연대에 가지 않았음. 4. 훈련기간 : 3개월 정도 훈련을 받아서 교육기간을 다 채웠음. 5. 식사 및 피복(전투복 등) : 배가 고파서 돈으로 사먹은 적이 있음. 6. 면회(횟수 등) : 한 번도 면회를 온 적이 없음. 7. 기억나는 훈련 및 교관 8. 기타			
훈련소 퇴소 후 상황	1. 자대배치 이동 경로 : 제주➡부산➡강원도 나중에 육군 정훈학교로 가서 일본 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했음. 전방에서 시험을 보고 인사과에서 근무했음. 2. 전선배치 지역 및 참가한 전투 3. 소속 및 부대배치 : 9사단 28연대 인사과 4. 기타			
제주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상	훈련을 받을 당시 제주도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음. 제주도는 바람이 세고 먼지가 많았음.			
기타	전역 후 모슬포에 간 적이 없음.			
일시·장소	2017년 6월 27일(화) 17:00~18:00 자택			
조사자	황 석 규, 고 광 명, 송 훈			

증언자 정보 (29)	이름	서 두 석	생년월일	1931. 5. 7
	계급	병장	군번	9456700
	입대일	1953년 7월 3일	전역일	1956년 11월 5일
	출신지	함양군 유림면	학력	한문서당, 국졸
	직업	농사	결혼	기혼
	주소	경상북도 함양군 유림면		
훈련소 입소 전 상황	1. 입대 동기 : 강제징집 부모님이 계셔서 신부를 데려다 놓고 22세 때 입대했음. 2. 입대 경로 : 함양➡진주➡포항➡제주 함양군에서 집결하여 포항으로 간 다음 날씨가 안 좋아서 일주일 걸려 제주도에 입항했음. 포항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군번을 받았음. 3. 기타 :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 곧 휴전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훈련소 규모	1. 훈련장 위치 및 범위 2. 부대시설 위치 및 규모 3. 기타(훈련병 수 등)			
훈련소 생활	1. 소속 : 7연대 142중대 2. 숙소 및 숙영지 : 서귀포 폭포 위쪽에 제2숙영지가 있었음. 3. 교육훈련 : 학과장에 갈 때 수통에 물이 없으면 가지 못했음. 처음에 는 설사병 등으로 같은 중대에서 이질로 사망한 경우도 있었음. 제식 훈 련 등 기초훈련은 많이 받지 않고 M1총 사격, 각개전투 등의 교육을 주 로 받았음. 학과장으로 이동할 때 아침, 저녁으로 제주도 훈련소 군가를 부르면서 갔음. 4. 훈련기간 : 17일 훈련을 받고 휴전되었음. 5. 식사 및 피복(전투복 등) : 물도 보급이 잘 되고 모자 하나로 16주 동안 사용했음. 식사(밥, 국)는 두 사람이 같이 하는데 빨리 먹는 사람은 먼저 먹고 느린 사람은 나중에 먹었음. 여름에는 이가 있어서 물가로 가 서 세탁했는데도 죽지 않아(삶지 않아서) 살충제(DDT)를 뿌려서 박멸했 음. 6. 면회(횃수 등) : 면회는 오지 못했지만 부인이 국민학교를 졸업해서 편지 왕래가 가끔 있었음. 7. 기억나는 훈련 및 교관 8. 기타 : 휴전 후에는 연대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했던 기억이 있음.			
훈련소 퇴소 후 상황	1. 자대배치 이동 경로 : 제주도➡강원도(양구, 인제) 2. 전선배치 지역 및 참가한 전투 3. 소속 및 부대배치 : 1102 야전 공병대(도로, 건설 등) 행정반 서무계 4. 기타			
제주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상				
기타				
일시·장소	2017년 6월 28일(수) 14:00~15:30 자택			
조사자	황 석 규, 고 광 명, 송 훈			

Abstract

**Oral Survey about the 1st Korea Army Training Camp in Jeju
-Focusing on Hamyang in Gyeongsangnamdo-**

Kwang-Myong Koh, Suk-Kyu Hwang, Hoon Song
Jeju Multicultural Education & Welfare Institute

This study is the first study attempt to the 1st Army Training Camp in Jeju, It was the largest basic training center in Asia and no study has been carried out regarding the first basic training center in Korea.

According to the common point among verbal evidences, the training period was 16 weeks but in case the war was imminent, new recruits were dragged into a war after training for even less than 1 month. The most difficult part among food, clothing, and shelter was drinking water and food, and there was a proverb that a dried pollack discharged from the training camp was stationed at his own unit. Also, the corruption of officers and enlisted soldiers was prevalent in the training camp so that the food deprivation of new recruits was caused by them and beating and exploitation occurred frequently. New recruits went through trouble since the training camp was infested with lice, diseases such as diarrhea, eye diseases and heatstroke, and they died frequently but it was handled as confidential. The position of barracks, tents, training grounds and billeting places was determined to some degree through the verbal evidences regarding the size and facilities of the training camp. This investigation revealed that the 1st Army Training Camp in Jeju significantly had a large impact on the community in Jeju. In addition, materials such as photos of enlisted soldiers and new recruits were secured.

The verbal investigation regarding the 1st Army Training Camp in Jeju

should be carried out continuously and urgently. The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based on Hamyang-gun, Gyeongsangnam-do, but 20% of Korean War Veterans passes away every year. This will accelerate further in future so that the number of target veterans for investigation will decrease significantly within 10 years. Therefore, the investigation should be expanded on a national scale, and the verbal investigation targeting the Jeju region should be carried out with the next few years.

It is necessary to complete the map system for the 1st Army Training Camp in Jeju. At that time, the training camp was established using a battlefield with Japanese army, and mostly temporary buildings and facilities were established and used so that all buildings and facilities vanished together when the training camp was closed down. Therefore, a lot of effort and time to complete the map system including the accurate position of training grounds, regiment tents and barracks in the training camp are necessary. It is necessary to register the 1st Army Training Camp in Jeju as a cultural property promptly. The front gate of the training camp which keeps the best appearance in the old days has not been registered as a cultural property. Also,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onfirmed training grounds, barracks and billeting places in the 1st Army Training Camp in Jeju are necessary, and it is also necessary to find a measure to utilize such places as the places for peace education and humanistic tourist attractions.

Keyword : the 1st Army Training Camp in Jeju, Hamyang-gun, Gyeongsangnam-do, life in the training camp, size and location of training camp, community in Jeju,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ies

연구진

연구책임	고광명	(사)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
공동연구	황석규	(사)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
공동연구	송훈	(사)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

제주학연구 42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조사 -경상남도 함양군을 중심으로-

발행인 || 강기춘

발행일 || 2017년 11월

발행처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3층

전화: (064) 726-0973 팩스: (064) 747-6140

홈페이지: www.jst.re.kr

인쇄처 || 제주문화상사

ISBN : 978-89-6010-559-1 93090

-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